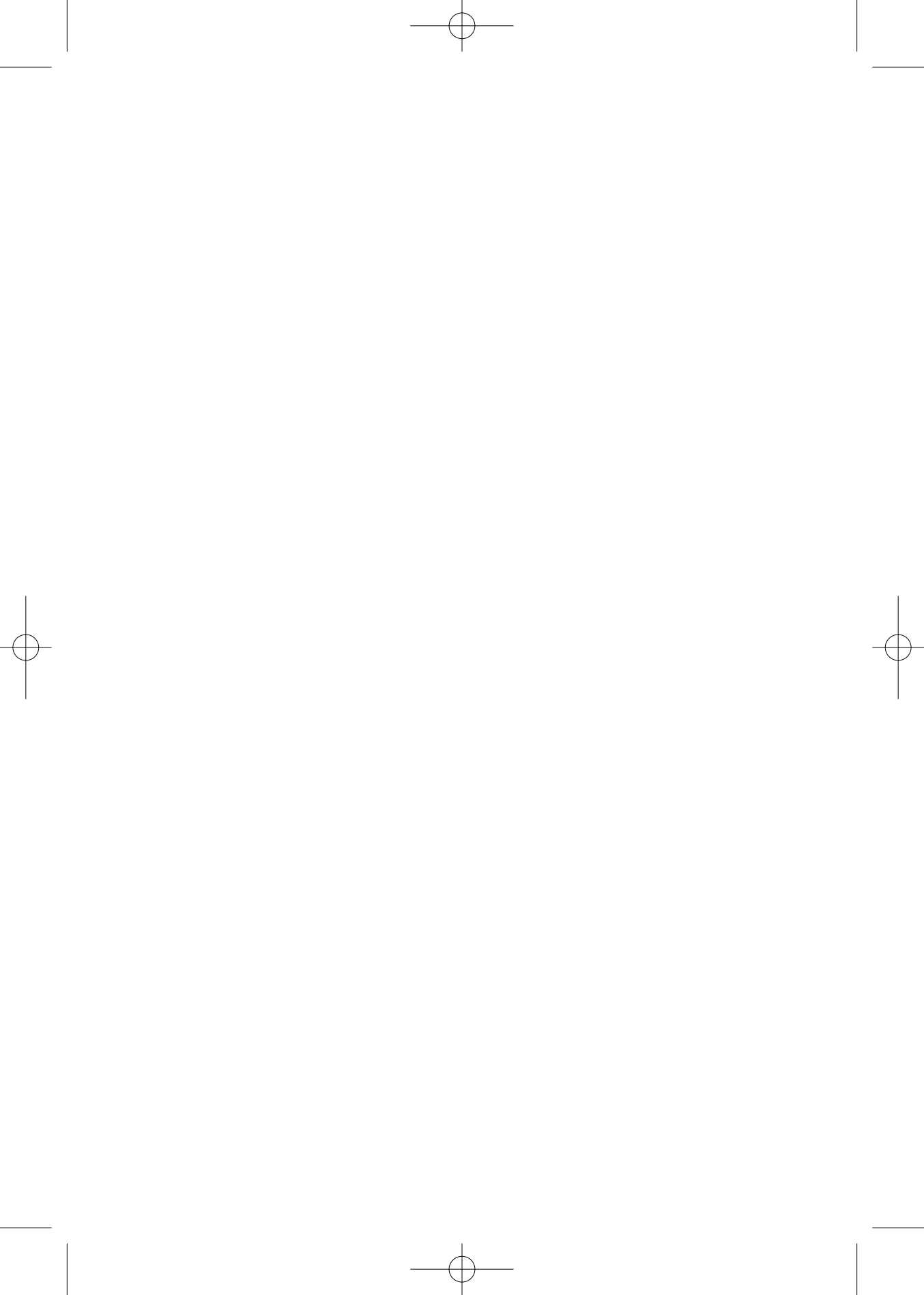


성북구 주민참여예산 길라잡이

우리가 디자인하는 성북구 살림살이



성북구 주민참여예산 길라잡이 발간에 즈음하여



우리나라에 지방자치제가 도입된 지도 어느덧 20년 가까이 되었습니다. 민선 5기가 지향하는 구정의 비전과 철학의 핵심은 ‘사람이 희망인 도시’이며, 특히 사람이 주인으로 참여하는 도시를 만들어 가는 것이 꿈이자 목표입니다.

지금까지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예산편성권을 독점하였기에 지역 주민의 다양한 요구를 수용하지 못한 면이 있었으며, 일부 단체장은 선심성 예산 운용으로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 주민들이 자신들의 생활에 직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책 결정에 참여하고 제안하는 제도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주민참여예산제〉라 할 수 있습니다.

1988년 브라질의 포르투 알레그리(Porto Alegre) 시는 심각한 재정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세계 최초로 주민참여예산제를 도입해 문제 해결에 성공하였습니다. 지방재정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구의 재정 여건을 주민과 공유하고 효율적 재정 운영을 함께 고민하며 우선순위를 주민들이 결정하는 주민참여예산

제는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우리나라의 주민참여예산제는 2004년 전남 광주시 북구에서 시작된 이래 2010년 지방선거 이후 전국적으로 확산됐고 2011년 3월 지방재정법 개정과 함께 예산편성 시 주민의견 수렴을 의무화하였으나, 아직 상당수의 자치단체가 운영조례조차 마련하지 않았거나 위원회도 구성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구가 지난 1년여의 시행 과정을 토대로 주민참여예산 길라잡이를 발간하게 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주민참여예산 길라잡이의 발간은 예산학교, 주민설명회, 시범분과 및 위원회 운영의 경험 등을 정리하여 초기 단계의 시행착오를 되짚어 보고 주민참여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며, 아울러, 다양한 계층과 나이와 직업의 성북구민이 예산편성에 더욱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자료를 공유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책에는 그런 성북구의 의지와 노력, 그리고 헌신적으로 참여해 주신 주민 여러분의 정성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제작에 참여한 많은 분들과 관심과 애정을 보여 주신 주민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 책이 중앙과 지방정부의 공무원들과 관계자, 지역 주민 여러분께 널리 읽혀서 주민참여형 지방자치체가 뿌리내리는 데 소중한 자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 2월

성북구청장 김영배

성북구 주민참여예산 길라잡이 발간을 축하하며



존경하는 성북구민 여러분!

성북구의회 의장 윤이순입니다. 다사다난했던
신묘년 한 해가 어느덧 지나가고 새로운 희망과 기
대로 우리의 마음을 설레게 하는 임진년 새해가 밝
았습니다.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 증대를 위한 우리 구 주민참
여예산제 시행 원년을 맞아 성북구 주민참여예산 길라잡이의 발간
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지방정부 예산편
성 과정에 지역 주민들의 참여와 토론을 거쳐 예산 지출의 범위와
우선순위 등을 반영하는 제도로 지방재정 의사 결정 과정에 주민
이 참여하는 참여민주주의의 한 형태입니다. 여러 지방자치단체들
이 주민참여예산제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지방예산 편성 과정에
어떤 형태로든 주민참여를 시도하는 것은 고무적인 현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2012년도 예산을 수립할 때 주민참여예산제를 실
시하여 좋은 호응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듯 현재는 과

거와는 달리 모든 지자체 행정이 투명해졌고 앞으로 더욱 밝아질 것으로 확신합니다.

성북구 주민참여예산 길라잡이의 발간은 지난 1년 동안의 주민참여예산제의 운영 과정상의 문제점을 끌어내고 개선 방안을 체계적으로 정리함으로써 우리 성북구 주민참여예산제의 토대를 확고하게 구축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한 향후 지방자치단체에 주민참여예산제의 이해와 운영 방향 결정 등을 위한 지침서로 널리 활용되어 지방자치 발전에 보탬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성북구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구민 여러분의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 어린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임진년 새해에도 구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2012년 2월

성북구의회 의장 윤이순

주민들의 예산참여로 성북구의 꿈과 비전이 커져 갑니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이제 남미와 북미, 유럽 등의 여러 도시에서 시행되는 대표적인 시민 참여 프로그램입니다. 국제연합(UN)과 세계은행(World Bank)에서도 참여예산제도는 예산 및 행정의 투명성을 담보하는 가장 혁신적인 방법이라고 평가받았고, 시민참여를 강조하는 세계적인 흐름을 이끄는 대표 프로그램이 되었습니다. 바로 이 주민참여예산제가 2011년 대한민국의 성북구에서도 시작됐습니다.

5월 참여예산 추진 준비단 출범을 시작으로 7월에는 구청장과 함께 성북구 20개 동의 주민들을 직접 만나는 주민설명회가 개최되었고 8월부터 위 속에서는 성북구 주민참여예산학교 주·야간반이 운영되어 87명의 수료생을 배출하는 등 한 편의 로드쇼처럼 진행되었습니다. 특히 주민설명회 전체 과정을 구청장이 참여해 주민의 의견을 경청하는 모습은 어느 자치구에서도 보기 힘든 의미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주민참여예산학교 수료생과 홈페이지를 통한 자발적인 참여자들

을 비롯하여 많은 주민들의 신청 속에 40명의 예산위원이 위촉되었습니다. 참여예산위원회는 동별 소규모 사업분과, 교육분과, 복지분과, 마을만들기 사업분과로 구성되었고, 모두들 열심히 활동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활동의 결과로 주민들이 원하는 26건의 사업에 약 65억 상당의 사업을 확정하여 성북구 구의회로 송부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일차년도 사업을 마치면서 그동안 얼마나 많은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했는지, 40명의 예산위원들은 여러 주민들의 의견을 얼마나 성실하게 경청하고 수렴했는지, 현장을 얼마나 꼼꼼하게 조사했는지 등등의 까다로운 평가 기준을 세운다면, 성북구의 주민참여예산제는 모든 것이 잘되었다고 자랑할 수만은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성북구의 2012년 주민참여예산제는 2011년보다 한층 더 주민참여가 촉진되는 방향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무궁무진합니다. 무엇보다 성북구 1기 주민참여예산위원들의 열정과 에너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짧지만 낯설었던 1년의 과정 동안 예산위원들은 주민참여예산제가 단순히 물리적인 재정 지원만 받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터로서의 지역에 대한 꿈과 비전을 갖게 한다는 확신을 얻기 시작했습니다. 토론 과정을 통해서 자신들의 요구 사항이 선정되면 그 문제의 해결이 가능하다는 것도 확인했습니다. 이러한 참여예산은 마을 주민들이 자발적인 조직을 만들고, 이들 간에 마을 전체의 공동 비전을 만드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입니다. 동별로, 아파트별로 마을 단위의 주민 조직이 토론을 시작하고, 특정한 분야의 비정부기구(NGO)들도 모여 우리가 살 지역을 어떻게 바꿀지를 이야기할 것입

니다. 우리의 토론은 공동의 비전을 향해 나아갈 것입니다.

참여예산제를 처음 시작했던 브라질의 포르투알레그리 시에서는 참여예산 초기에 ‘자신들의 요구를 반영해 줘서 감사하다’는 표현을 시장에게 많이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20여 년이 지난 현재 이러한 예산 투자는 자신들의 당연한 권리의 행사이기 때문에 시장에게 ‘수고했다’는 표현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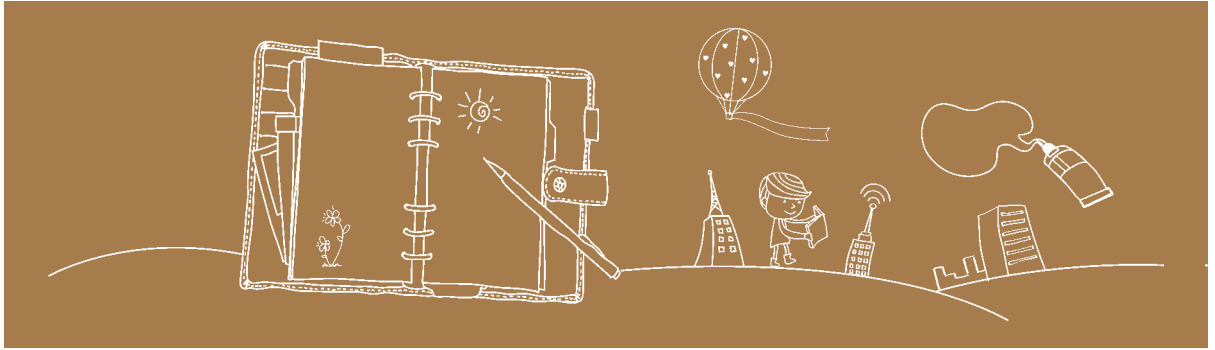
주민참여예산제는 주민들이 책임 행정과 투명한 재정 살림을 만들어 가는 과정에 일조하게 만듭니다. 궁극적으로 삶터인 자신의 지역을 더욱 아끼고 사랑하게 되어 지역공동체로서 마을이 되살아나게 됩니다.

이 책은 성북구의 2011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과정을 정리하는 백서인 동시에 2012년을 더욱 내실 있게 준비하는 출발서입니다. 또한 주민참여예산제를 아직 시작하지 못한 기초자치단체에게는 좋은 안내서가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책이 대한민국 방방곡곡에서 꿈틀대는 주민참여에 대한 기대와 꿈을 현실로 만드는 데 유용한 지침서가 되기를 바랍니다.

2012년 2월

성북구청



contents

발간사	3
축사	5
책을 펴내며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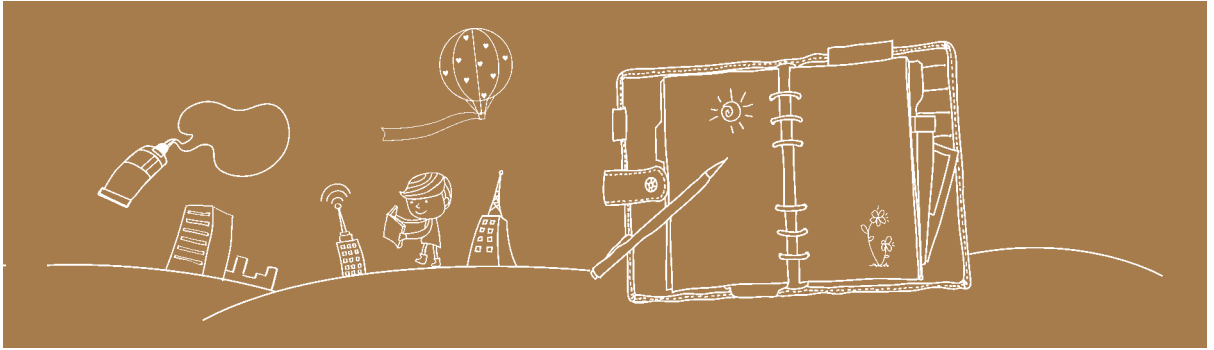
제1장 대한민국 · 성북구 주민참여예산제

[전문가 좌담회]

1. 우리나라 주민참여예산제 1년 평가	17
2. 성북구 주민참여예산제를 향한 기대	30

제2장 성북구 주민참여예산제 A부터 Z까지

1. 주민참여예산제 한 눈에 그리기	51
2. 주민참여예산제 추진준비단	65
3. 주민참여예산제 주민설명회	76
4.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를 위한 설문조사	93
5. 주민참여예산학교	106
6.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활동	127



제3장 예산위원이 말하는 성북구 참여예산제

[생생인터뷰]

나무를 키우는 마음으로 한 걸음씩 163

제4장 주민참여예산제 고민거리와 지역 사례 탐색

- | | |
|--------------------------------|-----|
| 1. 주민참여예산제 각 기구는 어떻게 구상해야 하는가? | 180 |
| 2. 지역회의는 어떻게 운영해야 하는가? | 188 |
| 3. 사업의 우선순위는 어떻게 정해야 하는가? | 197 |
| 4. 분과위원회는 어떻게 구성해야 하는가? | 205 |
| 5. 주민참여가 보장되는 새로운 의사결정 시스템은? | 208 |
| 6. 주민참여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은? | 211 |

제5장 부록 219

나도 예산 디자이너!

“주민참여예산제가 뭔가요?”





성북구 주민참여예산에 참여하는 방법은요!!

▶ 직접 우리 마을을 발로 뛰며 살펴보고 싶은 분들

→ “주민참여예산학교” 부터 시작해보요! 많은 이야기를 나누면서 더 알찬 참여예산제를 만들 수 있어요.

▶ 직장생활로 정기적인 참여는 어렵지만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고 싶은 분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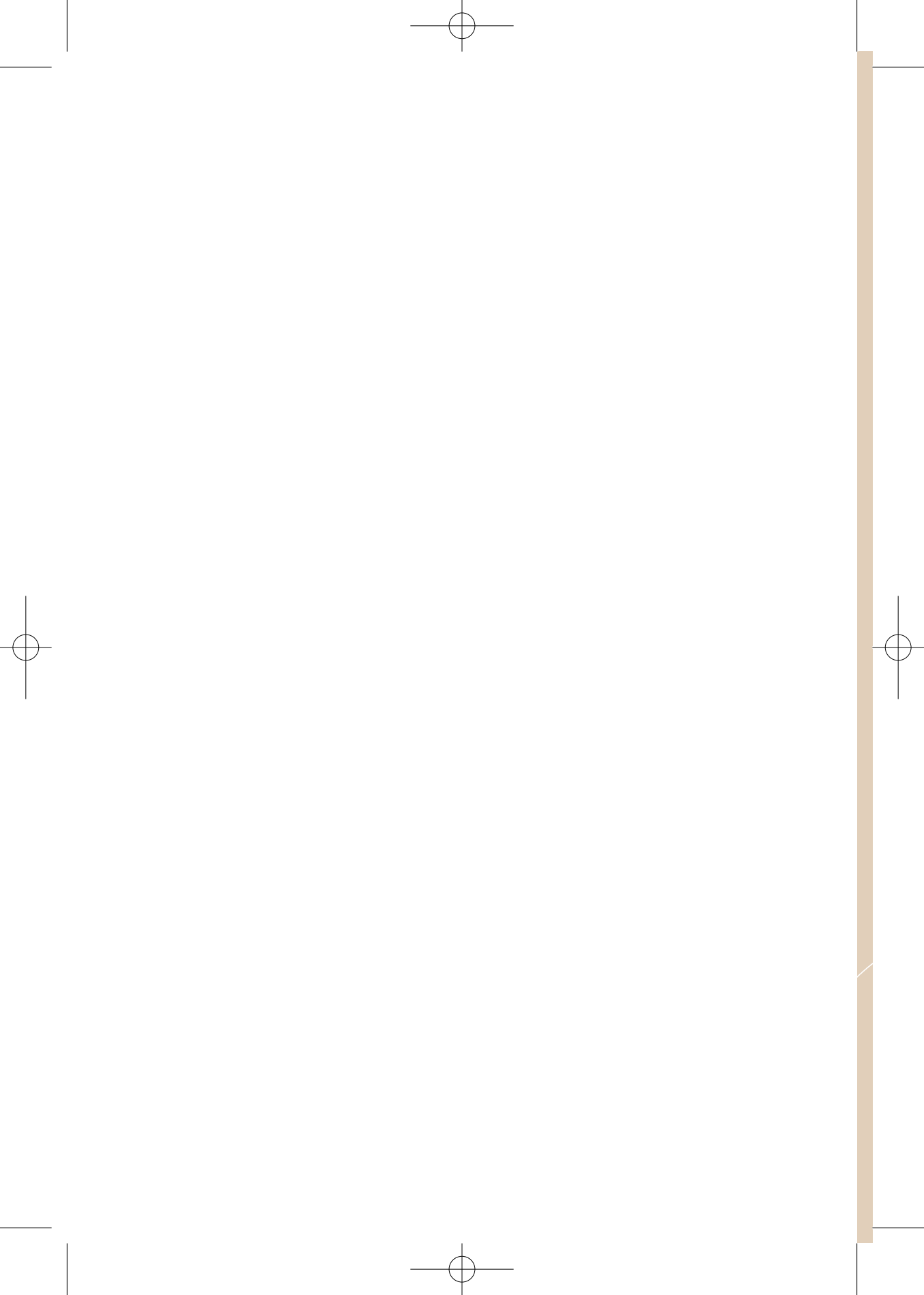
→ 권역별 지역회의 혹은 설명회에 오세요.

- 지역회의는 성북구 관내 지역에서 주민들이 모이는 회의로 참여예산위원회보다 회의 개최수가 적은 반면에, 주민들이 직접 의견을 피력할 수 있는 장입니다.
- 설명회는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홍보하고, 주민 의견을 직접 낼 수 있는 장입니다.

▶ 관심은 있지만 뭔가 자리를 맡아 일하는 게 부담스러우신 분들

→ 성북구청 홈페이지 “주민참여예산방”에 의견을 내주세요.

→ 동사무소에 주민 분들의 의견을 받는 “참여예산 건의함”에 의견을 넣어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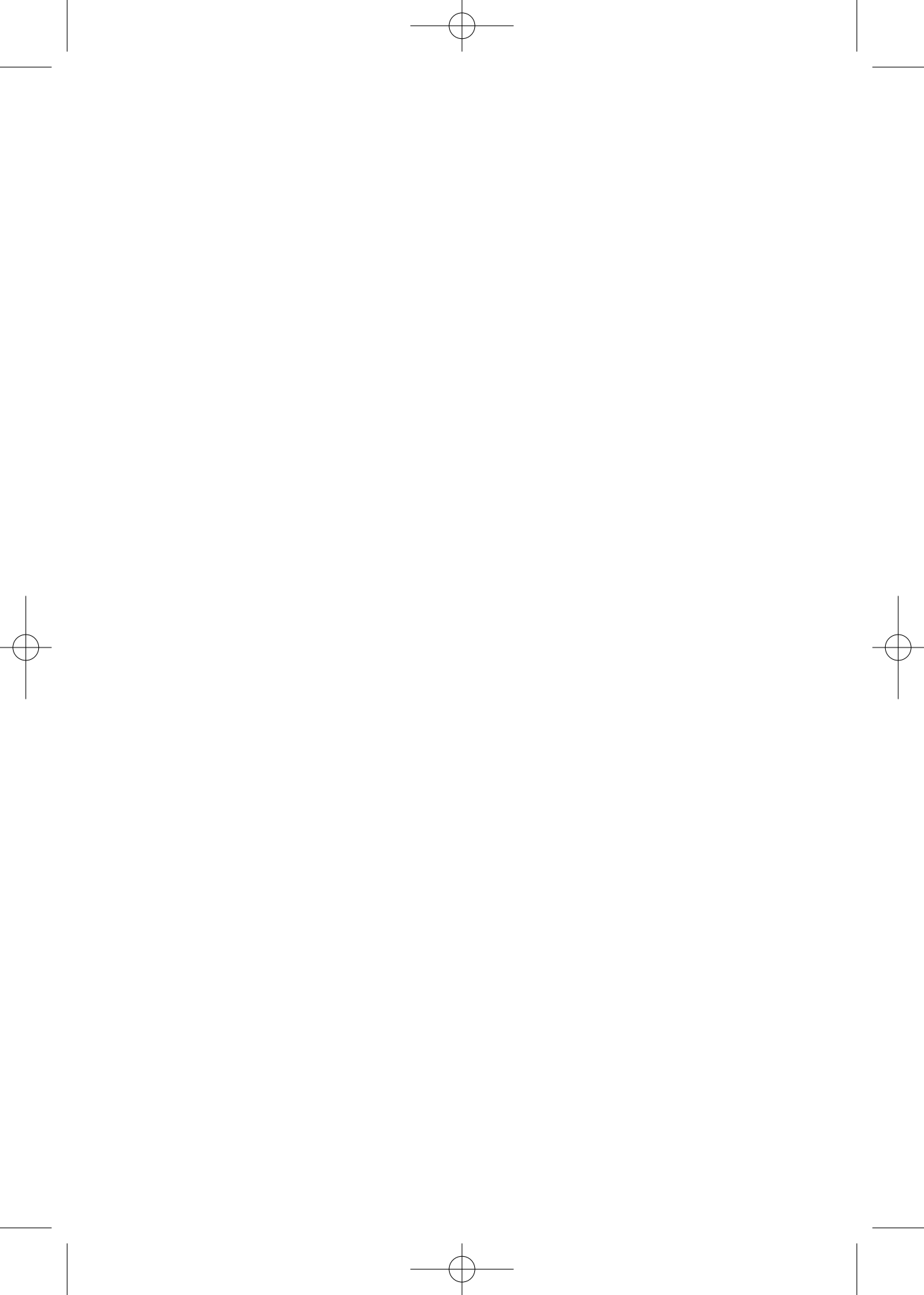
1장

대한민국·성북구 주민참여예산제



- ▶ [전문가 좌담회 ①] 주민참여예산제 1년을 말한다
우리나라 주민참여예산제 1년 평가
- ▶ [전문가 좌담회 ②] 성북구 주민참여예산제를 말한다
성북구 주민참여예산제를 향한 기대





[전문가 좌담회 ①] 주민참여예산제 1년을 말한다

우리나라 주민참여예산제 1년 평가



2011년 12월 28일, 성북구청 6층 회의실에서 전국에서 내로라하는 주민참여예산제 전문가가 한자리에 모였다. 이들은 세 시간에 걸친 좌담회를 통해 2011년 9월부터 의무화된 주민참여예산제 의무화 1년을 평가하고, 성북구 주민참여예산제가 주민참여형으로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방안을 주제로 의견을 나눴다. 이번 좌담회는 향후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할 주민참여예산제가 나아갈 방향성을 모색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마련되었다.(편집자 주)



송창석 희망제작소 부소장

• 사회자 • 이번 좌담회는 두 가지 세션으로 진행됩

니다. 우선 우리나라 전체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평가와 전망이고, 다음으로 성북구 주민참여예산제가 정착되기 위해 필요한 조언을 듣는 순서입니다. 우선 좌담회를 시작하기에 앞서 2011년 한 해 동안 어느 단체장보다 열심히 참여예산제를 진행하신 성북구청장님의 1년 소회를 듣겠습니다.

귀가 큰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바란다



김영배 성북구청장

“성북구 주민참여예산제가 성공하려면, 우리가 어디에 힘을 집중할 것인지를 고민해야 합니다. 지역회의를 어떻게 할 지, 예산 분야 중 어디에 집중해야 할 지를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 김영배 구청장 · 주민참여예산제 위원님들의 생각이 어떠셨나 궁금합니다. 예산이란 주민들이 낸 세금으로 형성된 공적인 살림인데, 주민들의 포괄적인 위임만으로는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보완할 게 많다고 봅니다. 즉 주민의 의견이 특정한 대표성을 가져야 하는지, 자기 이해관계가 있는 의견은 어떻게 봐야 하는지, 초등학교가 초등학교 수준에서 결정하는 것도 용인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우리의 공통된 기준이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내년에는 우리가 현재 목표로 하고 있는 주민참여예산이 무엇인지 결정하고, 공통된 인식과 목표를 가지고 움직이는 것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는 구조화된 활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작년 5개월 동안 해 봤지만 쉽지가 않았습니다. 간단하게 해결할 것 같지만 되는 논리와 안 되는 논리가 모두 있기 때문에, 주민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를 풀기 위해서는 지속적이고 일정한 활동이 필요합니다.

입이 큰 위원회가 아니라 귀가 큰 위원회가 됐으면 합니다. 40명 정도인데 400명 정도는 되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그다음 해에는 좀 더 커져야 하고요. 올해 애를 써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북구 발전의 큰 거름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주민참여예산제 2011년을 돌아보다

“2011년은 시범적인 형태로 제한된 영역에서 운영된 것이 전반적인 경향이었습니다. 크게 두 가지가 미흡한 점으로 나타났습니다. 첫째, 주민참여가 실질적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둘째, 지방의회가 주민참여예산제의 걸림돌로 작용했습니다.”



이호 소장

• 발제자 - 풀뿌리자치연구소 이호 소장 • 반갑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시민들의 참여가 중요하다고 하는데 정치적,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적은 얼마되지 않았습니다. 작년 6·2 지방선거 이후에 민주당이 당론으로 주민참여예산제를 채택하면서 이슈가 되었고, 올해 3월 지방재정법이 개정되면서 9월부터 자치단체들이 참여예산제를 의무적으로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자치단체장이 의지가 있는 지역에서는 작년말부터 준비를 했지만, 대부분의 지역들에서는 올해 하반기에 와서야 뒤늦게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따라서 1년 평가를 하기에는 주기가 짧습니다. 성북구는 미리 준비했으므로 평가가 될 수도 있겠지만 전반적으로는 평가할 게 많지는 않습니다. 하반기에 조례를 통과시키는 과정에 자치단체장의 의지가 반영된 곳이 적었고, 일부 지역에서만 실험적인 시도가 있었습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수원시, 부천시, 인천광역시 연수구, 성북구 등 일부 자치단체에서 자치단체장이 의지를 가지고 준비를 한 것은 다행이지만, 올해 제대로 시행했기보다는 시범적인 형태로 제한된 영역에서 작동된 것이 전반적인 경향이었습니다.

크게 두 가지 미흡한 점이 나타났습니다.

첫째,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되어야 하는데, 그렇게 실시

한 경우가 드뭅니다. 둘째, 주민들이 의견을 제출하는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지역회의를 만들지 않은 곳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주민들의 참여를 보장하도록 광주 북구에서 지역회의를 만들었지만, 회의 체로만 규정했습니다. 동별로 위원 10~20명만 구성되면 그분들만의 의견을 수용하는 형태이므로 모든 사람에게 기회가 보장됐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주민의 참여와 관련해서는 단순히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했는지만 보는 게 아니라, 공무원이 편성한 예산을 삭감할 수 있는지도 봅니다. 그런데 이런 다양한 의견이 봉쇄가 된 거죠. 일부만 개방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각 부서별로 최초 예산액이 만들어지기 전에 각 실과소로 보내서 최초 예산요구액에 대해서 위원들이 먼저 심의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실질적인 주민참여가 보장되는데 그렇게 운영된 곳은 없었습니다. 올해의 경우에는 그렇게 준비할 시간이 없었지만 향후 개선되어야 합니다.

모범적인 지역은 없습니다. 하지만 부분적으로 모범적인 사례는 나왔습니다.

인천 연수구 사례는 개방성에 있어서 모범적인 사례로, 5인 이상만 모이면 참여예산 설명회를 운영했습니다. 부천시도 동별 지역회의를 100명씩 구성하려고 했던 시도, 100명을 공개추첨을 한 것도 상당히 재미있는 사례입니다. 수원시에서 청소년 참여예산위원회를 구성한 것, 부천시에서 교육경비지원과 관련해 학교를 방문해 교육경비예산을 조정한 것, 서대문구에서 주민강사 양성과정을 운영한 것, 즉 주체를 양성한 것은 모범적이었습니다. 성북구에서 직접 주민설명회를 하며 주민을 찾아다닌 것도 좋은 사례입니다. 또

한 지역소규모 현안 사업 예산을 주민이 직접 결정한 것도 좋은 사례입니다. 이런 사례들이 한 자치단체에서 종합적으로 나온다면 좋을 것입니다.

〈주목할 만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사례〉

- 인천시 연수구에서 찾아가는 예산학교를 민간위탁하고, 이 위탁 단체에서 70회 이상 주민들을 직접 찾아가 이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한 예는 매우 모범적 사례. 또한 서울 성북구의 설문조사 등을 통한 다양한 주민의견 수렴 노력 사례
- 동별 지역회의의 위원을 100명으로 구성하고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지역회의의 위원들 중에 선임함으로써 개방적 주민참여를 확대한 경기도 부천시 사례
- 청소년 참여예산위원회를 구성하여 청소년들의 제안을 수렴한 경기도 수원시의 사례(그러나 이 경우 시장에게 직접 제안하였음에도 행정에서 별도로 심의하여 그 채택 여부를 결정한 것은 미흡)
- 교육 경비 지원과 관련하여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직접 결정하도록 한 경기도 부천시 등의 사례
- 주민강사 양성을 통해 주민 주도의 참여예산 운영 기반을 마련한 서울시 서대문구 사례
- 동별 또는 권역별 등 주민설명회 개최 사례 옮김(경기도 수원시, 인천시 부평구, 서울시 성북구 등)
- 공개추첨을 통한 위원회 구성 사례(경기도 수원·부천시, 서울 성북구 등)
- 지역 소규모 현안 사업에 대한 지역회의 자체 결정권 부여 사례(경기도 부천시, 서울 성북구) 등

주체별 대응과 관련해서 두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중앙정부가 주민참여예산 활성화 부분에 발목을 잡고 있습

니다. 행정안전부가 표준조례안을 1안, 2안, 3안으로 내려보냈는데, 1안과 2안의 경우 주민참여예산조례안은 지방자치에 맞지 않고 오히려 합법적으로 주민참여예산제를 무력화시켰다는 점에서 문제가 많습니다. 단체장의 의지가 없으면 주민참여예산제를 제대로 운영하기 어렵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방자치를 연구한 학자들도 표준조례안의 문제점을 많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둘째, 사실 지방의회가 대표적으로 주민참여예산제의 걸림돌로 작용했습니다. 예산의 최종 결정권과 대표성을 침해하고, 특히 지방의원들이 쓸 수 있는 동별 예산의 결정권을 침해한다는 것입니다.

여유있게 시작해야 합니다. 공공성에 맞는 것인지, 예산의 사회적 가치, 가령 사회적 약자에 대한 가치 기준과 토론이 필요합니다. 제가 자문으로 참여했던 지역에서는 CCTV 설치 여부에 대해 논쟁이 있었는데, 토론 시간이 부족해서 결정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예산위원회에 우선순위에 대한 기준정립이 필요하고, 사회적 가치를 녹여낼 수 있는 기준도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위원들 간의 토론이 필요하고, 토론에 소요되는 시간은 결코 시간 낭비가 아닙니다. 외국의 경우, 1박 2일 내내 토론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 **사회자** • 이호 소장님께서 발제를 해 주셨는데, 이에 대해 바로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 **김영배 구청장** • 참여예산제도는 예산편성권을 주민들에게 나눠 주는 것이기 때문에 단체장의 권한 즉 공무원이 하던 일을 주민들이 함께하는 것으로 바뀌는 구조이므로, 단체장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

각합니다. 하지만 민관이 함께하는 거버넌스 인식이 필요하고 이는 새로운 시대적 조류입니다. 따라서 공무원의 인식변화가 필요합니다. 과거 건의였던 것이 이제는 참여이고, 구청장이 민원을 해결해주는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이제는 주민참여예산제가 법적으로 의무화되는 정도로 시대가 변하고 있습니다. 이에 공무원들도 이 부분을 명확히 인식하고, 주민의견을 건의 수준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진지하게 접근하는 것이 직무 범위에 포함된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지만 인식을 바꾸어야 합니다.

또 한 가지, 주민참여예산제가 성공하려면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성북구에서는 지역회의를 어떻게 할지, 어떤 예산분야에 집중해야 할 지를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김태일 성북구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장

“주민참여예산제는 지방자치 이후 두 번째로 큰 변화입니다. 지금부터 어떻게 할 것인가가 중요합니다. 잘하는 몇 개 자치단체가 어떻게 사례를 만드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 김태일 위원장 • 성북구 주민참여예산위원들이 현재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지방자치 이후 두 번째로 큰 변화입니다. 단체장이 선거를 통해서 권한을 부여받는 대의민주주의 시대이지만, 주민참여예산제는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것을 보장하는 제도이므로 큰 변화입니다. 이호 소장님의 발제에 대부분 동의합니다. 솔직하고 냉정한 평가입니다. 하지만 저는 변화에 대한 더 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것이고, 지금부터 어떻게 할 것인가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훨씬 더 많은 변화가 가능합니다.

잘하는 몇 개 자치단체가 어떻게 사례를 만드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결국 그 사례가 모델이 되므로 초기에 잘하는 자치단체가 어떤 방향성을 보이느냐가 중요합니다. 초기에는 자치단체장 의지가 중요하지만, 조금만 시간이 지나도 참여예산위원, 시민단체와 전문가 그룹이 점점 중요하게 될 것입니다. 성북구의 경우도 당장 내년에 구청장님이 예상하지 못한 사업이 제안되고,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싶은 방법을 알게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주민참여예산제가 성공하기 위한 기준이 이호 소장님이 말씀한 개방성, 권한부여, 투명성이라는 세 가지에 동의합니다. 개방성은 ‘성북구 주민을 어떻게 불러낼 것인가’이고, 권한부여 부분은 ‘실무 과정에서의 어려움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라면, 투명성 부분은 자치단체의 예산과정 공개뿐만 아니라 주민참여예산위원회 활동 자체가 투명하게 공개되고 알려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 김영배 구청장 • 한 가지만 빠진 부분을 보충하겠습니다. 교육이 중요한 것 같아요. 예산이 쉽지가 않고, 참여가 구체적으로 자기 생활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인식을 가질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합니다. 가장 좋은 것은 좋은 사례를 보는 것인데 처음부터 쉬운 것은 아니니까요. 그러니 초기에는 동별로 주민참여예산학교를 운영하는 노력을 통해, 전반적으로 주민들께서 상황과 중요성을 인식하는 게 중요합니다.



박준복 인천참여예산센터 소장

“시민사회가 요구하는 내용이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공무원이 이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중요합니다. 저는 정해진 모범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지역에 맞게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박준복 소장 • 이호 소장님의 발제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저는 인천에서 이 제도가 만들어지기 전인 1999년부터 예산편성을 해 왔고, 2006년부터는 시민단체들과 함께, 3년 전부터는 저도 공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참여하면서 주민참여예산제의 방향에 대해 많이 이야기했고, 그 사례를 가지고 연수구에 직접 들어가서 해봤습니다. 저는 좋은 이론은 많다고 생각합니다. 시민사회가 요구하는 내용이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공무원이 이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중요합니다. 저는 모범이 따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지역에 맞게 만들어 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연수구의 사례는 그렇습니다. 이미 작년 지방선거 이전에 가장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하는 몇몇 지방자치단체가 지금도 모델이 되는 것이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자치단체장이 누구냐에 따라서 제도 운영이 달라지고, 마찬가지로 지난해 6·2 지방선거를 통해 진보적 구청장 당선 이후 우후죽순처럼 하고 있고, 법 제도 강제로 인해 전국 시행은 했지만, 제대로 시행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관이 하면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민은 준비되어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결국 지역 특성에 맞게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연수구는 처음부터 구청장, 인천지역 시민사회가 모여 주민참여

예산제를 상의했습니다. 연구구의 주민참여예산의 방향이 무엇인지 논의했습니다. 연구구의 풀뿌리 자치조직 10개와 연구구가 양해각서(MOU)를 체결했고 시민단체네트워크가 관제탑 역할을 했고, 교육은 위탁을 받아 수행했습니다. 연구구가 2700건의 사업제안을 받았는데, 제안자에게 제안한 사업이 정책으로 반영됐는지 여부를 알려 줄 수 있어야 하는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산팀에서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이고, 그래서 민이 해야 할 일입니다. 교육도 입찰을 통해서 당당하게 여건에 적절한 단체에 위탁을 주되, 연구구는 3.7배의 교육 실적을 올렸습니다. 5명 이상이 원하면 찾아가는 예산학교를 운영하고, 참여를 원하지만 시간이 없는 사람에게는 서포터즈로 언제라도 건의서를 낼 수 있도록 했습니다. 시간과 의욕이 있는 분들은 모두 지역위원이나 구민위원으로 참여하게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위원회를 공식적으로 개최한 회의가 52회였습니다. 52회 회의를 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러나 절대 관이 나서서 사람을 모으지 않았습니다. 이미 수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홍보가 되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오는 것입니다. 제가 희망을 가지는 것은 연구구의 경우에는 전체 11개 동 중에서 6개 동이 주민총회라는 이름으로 했는데 내년에는 엄청난 폭발적 에너지를 발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교육이었습니다. 스스럼없이 해내기 위해서는 교육과 1박 2일 정도의 워크숍이 필요합니다. 내가 왜 여기에 참여하는지, 우리 마을뿐만 아니라 구 전체의 공공적 목적을 가지고 참여할 때 우리 지역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인식해야 한다는 점에서 자기 인식이 필요합니다. 그런 관점을 가지고 하면 발전이 있을 것입니다.

정말 관이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정보를 모두 오픈할 수 있을지가 중요합니다. 연수구는 과장, 주무팀장들이 의회보고 형태로 수차례 나와서 했습니다. 민에게 자료를 제공하지 않으면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성북구의 내년 발전방향에 대해서는 다음 토론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인욱 좋은예산센터 사무국장

“2012년 주민참여예산제의 전략은 ‘기본을 바로 세우자’입니다. 시민들 의견을 반영해야 하고, 그 예산안에는 제한이 없어야 하고, 플러스 알파로 지역역량에 맞는 모델을 찾는 것을 의미합니다.”

• 최인욱 국장 •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는 모든 자치단체가 다 시범사업이고 실험이었습니다. 올해의 성과는 이호 소장님의 B 유형(29쪽 참조)이 어딘지가 드러난 것이 성과입니다. 의지가 있는 자치단체가 어디인지, 어떻게 내년을 끌고 나갈 것인지가 전국적인 분위기와 발전가능성을 좌우할 것입니다. 저는 내년에 설정되어야 할 전략은 “기본을 바로 세우자”라고 봅니다. 의지가 있는 자치단체는 부각이 됐는데, 새로 시작한 지자체는 실험 단계에서 좌충우돌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을 바로 세워야 새로운 실험을 할 수 있는 역량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참여예산제의 기본은 예산안에 시민들 의견을 반영해야 하고, 시민들과 함께 논의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예산안에는 제한이 없어야 하고 전체 예산안을 주민들과 함께 논의, 결정하는 시스템이 기본이란 점을 상기하면서, 어떤 지자체의 특성은 플러스 알파로 들어가는

것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플러스 알파 부분은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그 지역 역량에 맞는 모델을 들 수 있습니다만, 저는 더 필요하게 주민참여예산제의 목표와 지향성, 전망을 보여 주는 것도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사회자 • B유형이라고 분류된 지자체는 성북구, 수원시, 부천시, 인천 연수구, 서대문구 등입니다. 전국 244개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B유형에 속한 지자체 만이라도 내년에 더 나은 대안을 찾아야 할 책무가 있다고 봅니다.



송정복 희망제작소 연구원

“주민주체가 어떻게 형성되고, 어떻게 이끌어 나갈 것이냐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지난 7~8년 동안 운영된 지역에서의 주민 주체, 새롭게 시작하는 지역에서의 주민 주체가 각각 어떻게 형성되고 어떻게 운영되는지를 정리하는 것은 매우 의미있는 작업입니다.”

• 송정복 연구원 •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제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하나 더 추가했으면 하는 것은 참여하는 주민 주체가 어떻게 형성되고, 어떻게 이끌어 나갈 것이냐 또한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지난 7~8년 동안 운영된 지역에서의 주민 주체, 새롭게 시작하는 지역에서의 주민 주체가 각각 어떻게 형성되고 어떻게 운영되는지를 정리하는 것도 매우 의미 있는 작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단체장의 의지와 무관하게 주민의 의지 유무에 따라 현실적으로 운영되기 어렵지 않겠습니까.

〈이후 소장이 분류한 주민참여예산제 내실화 정도에 따른 분류〉

- A 유형 : 법 개정에 의해 참여예산 조례를 제정 또는 제정할 예정이나 이에 특별한 정치적 의지가 개입되지 못한 채 형식적으로 진행된 사례
- B 유형 : 법 개정 이전 또는 이후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치적 의지로 참여예산을 추진한 사례

(1) A 유형

- 전국 250개 이상의 자치단체들 중 대다수가 이 유형에 속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이 유형의 경우, 주민참여예산제 도입과 관련한 특별한 논란이 발생하지는 않음. 다만, 지방의회의 일부 의원들이 주민참여예산제의 시행에 힘을 싣기 위한 조례안을 만든 경우도 있으나, 조례 통과 과정에서 대부분의 핵심적 내용들이 후퇴하는 경향을 보임
- 이 경우에는 예산편성 과정에 대한 주민참여의 유일한 틀로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두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단순 회의체의 성격을 부여함으로써 권한이 없는 일반 위원회와 같은 성격으로 전락할 위험 높음
 - 이 경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회의를 통해 이 위원회에 참여하는 이들로부터 예산편성 관련 의견을 수렴하는 데 그침(개방성, 적절한 권한 부여, 투명성 모두 부재)

(2) B 유형

- 경기도 수원·부천시, 인천광역시 연수구, 서울특별시 서대문·성북구 등 일부 자치단체에서 주민참여예산 관련 활동이 가장 적극적으로 나타났거나 계획되는 중이라 할 수 있음
 - 물론, 이외에도 자치단체장이 주민참여예산제를 높은 정책 우선순위에 두는 곳도 일부 발견되나, 행정 및 지방의회의 비협조로 조례의 내용이나 운영 계획 등이 크게 내실을 가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 이 경우, 실질적으로는 A 유형과 비슷한 문제를 낳고 있으며, 다만 위원회에서 제안한 내용들에 대해서 자치단체장이 전향적으로 전격 수용하는 정도에 그칠 것으로 예견됨(A 유형의 경우, 대부분 올해 참여예산 과정을 시행하지 않았음)

[전문가 좌담회 ②] 성북구 주민참여예산제를 말한다

성북구 주민참여예산제를 향한 기대



대한민국 주민참여예산제의 성과와 전망을 진단하는 1부 좌담회가 끝나고, 2부에서는 성북구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전문가 조언이 이어졌다. 본 장은 2011년 7월 20일 조례 통과 이후 빠듯한 일정 속에서 진행된 성북구 주민참여예산제를 돌아보고 2012년을 준비하고자 성북구 주민참여예산위원들과 함께 진행됐다. (편집자 주)

성북구 주민참여예산제의 성과와 의미

• **사회자** • 2부를 시작하겠습니다. 1부의 총론적 논의가 있었다면, 2부에서는 성북구 주민참여예산제를 되돌아보고, 전문가들과 직접 참여한 주민참여예산위원들과의 토론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우선 발제를 시작하겠습니다.

• **발제자 - 희망제작소 송정복 연구원** • 우선 자치법규 시스템을 가지고 서울시 자치구 조례 상황을 정리해 봤습니다.

성동구는 두 차례 조례안을 제안했지만 통과가 안 됐고, 양천구는 무소식입니다. 형식적으로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한 자치구가 8곳, 위원회의 권한과 관련해서 예산편성권 우선순위를 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한 곳은 금천구 1곳, 위원수는 20~100명으로 다양하고 예산위원의 임기는 1~2년이고, 민관협의회를 명시한 곳은 관악구와 강동구 2곳입니다. 지역회의를 조례에 명시한 곳은 6곳이고, 참여예산의 평가와 전망을 연구하는 기능을 담은 연구회를 조례에 명시한 곳은 성북구와 관악구 2곳입니다.

조례상으로 보면 성북구 조례는 시민위원수가 40명으로 평균 수준이고, 위원 1인당 예산을 추천으로 하는 등 전반적으로 양호한 수준입니다. 행정의 지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조례에 규정이 있어야 하는 만큼, 조례 평가를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당연직 규정이 있어, 해당 실국장이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하게 되어 있는데, 종로구는 예산부서의 장만 당연직 위원으로 있고, 서대문구·강동구·금천구·은평구는 지역 주민들로만 예산위원을 구성하게 됩니다. 노원구·도봉구·마포구·성북구는 실국장이 당연직 위원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실국장은 회의에 참석하기도 어렵고 이미 예산 검토 과정에 참여하므로 당연직 예산위원이 되는 조례안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2011 서울시 자치구 주민참여예산 조례 현황〉

* 2012.2.10 기준

자치구	조례 공포일	예산 위원회 설치(안)	예산편성 우선순위 결정권한	시민위원회의 구성			지역회의의 구성	연구회
				인원	임기	기타		
종로구	8/19	3안	○	30명내	2년	호선	-	-
중구	7/22	1안	×	둘수있다	-	-	-	둘수있다
용산구	7/01	1안	×	둘수있다	-	-	-	둘수있다
성동구	협의중							
광진구	7/26	1안	×	둘수있다	-	-	-	둘수있다
동대문	9/15	1안	×	-	-	-	-	둘수있다/ 의회와협의
종랑구	7/26	1안	×	둘수있다	-	-	-	둘수있다
성북구	7/20	3안	○	40명내	2년	분과 구성	-	10인 이내구성
강북구	9/23	3안	○	50명내	2년	위원장 호선	-	-
도봉구	6/10	3안	○	40명내외	2년	분과위 구성/ 부구청장이 위원장	동별 지역회의 개최 의무	-
노원구	8/25	3안	○	60명내	2년	분야별 분과위 구성	주민자치위원 및 통장 1/30이하	-
은평구	8/04	3안	○	100명	임의	분과위 구성, 호선	10명이상참석	-
서대문	6/08	2안	○	30명내	1년	호선	20명이상참석	-
마포구	9/22	2안	○	20명내	2년	호선	-	-
양천구								
강서구	8/05	2안	○	30명내	2년	분과위/ 운영위구성		-
구로구	4/14	3안	○	100명내	2년	호선	20명이내구성	-
금천구	6/08	3안	○○	40명내	2년	호선	-	-
영등포	7/18	3안	○	30명내	2년	분과구성,호선	-	-
동작구	9/08	3안	○	40명내	2년	분과구성,호선	-	-
관악구	7/28	3안	○	100명내외	1년	분과/ 민관협의회 구성	50명이내/자치 위원1/30이하	15인 이내구성
서초구	11/01	1안	×	둘수있다	-	-	-	둘수있다
강남구	12/31	1안	×	둘수있다	-	-	-	둘수있다
송파구	07/25	1안	×	둘수있다	-	-	-	둘수있다
강동구	07/27	3안	○	50명내	2년	분과/ 민관협의회 구성	-	-
교육청				50명내	1년	7월초		

* 위 자료는 서울시 강석호 의원 보도자료와 자치법규시스템자료를 재정리한 것

전반적인 평가 및 문제점과 관련해서는 성북구 분과위원회 평가 내용을 정리해서 발표하는 것입니다. 숙의민주주의를 위해서는 충분한 시간이 필요한데, 성북구의 경우는 7월 20일에 조례가 공포되었기 때문에 모든 일정이 촉박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위원들이 관련 내용을 익히는 것이 부족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위원 선정 후 저희가 주민참여예산워크숍을 다녀왔습니다. 분과위원회 구성을 할 때 성북구청 담당과의 협조를 얻어 업무 현안 설명 등이 이뤄졌어야 하는데 그 점이 실무적으로 진행되지 못한 점이 아쉽습니다. 아울러 성북구 내에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주민 기반 조직이 적으면서 지역 주체 역량이 부재하다는 점도 아쉬웠던 점이었습니다.

모범적 제도 정착을 위한 몇 가지 제언

성북구 주민참여예산제 진행 과정을 간단하게 평가해 보겠습니다. 성북구청장님이 13회에 걸쳐서 주민설명회를 다니면서 1,500명 정도를 만나셨습니다. 참여예산에서 단체장의 의지가 매우 중요한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확실했다는 평가가 가능합니다.

성북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과정을 전반적으로 평가해 보겠습니다.

① 섬세한 운영 과정의 설계, 위원들의 역할 확대

- 2011년 시범사업 운영 결과, 마을만들기 분과 활동이 마을만들기위원회와 중복되거나, 교육분과는 세부 사업이 아닌 포괄적으로 분야별 비율을 조정하는 역할에 머물렀다는 평가임
- 분과 구성을 특정 사업 분야로 한정하지 말고, 울산 동구나 광

주 복구처럼 행정 부서와 연동하며, 각 분과별 자체 사업 예산 편성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협의 및 우선순위 조정이 가능하도록 참여 범위 확대할 것(국고보조사업의 경우에도 주민제안이 있는 경우 이해와 협의 과정 필요)

- 참여예산위원들의 역할을 제안된 사업들에 대한 평가와 우선 순위 결정에 제한하지 말고, 지역별 주민 의견 수렴 방안을 기획하고 집행하는 것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음

② 참여예산위원들의 적극적 참여 및 전문성 강화

- 2011년 참여예산제 추진 일정이 촉박하긴 하였으나, 위원 선출 후 분과위원회 개최 전까지 15일간의 시간이 있는 등 위원들의 적극성 여부에 따라서는 관련 분야에 대한 학습이나 해당 부서의 예산안에 대한 설명 요구 등을 진행할 수 있었음
- 참여예산 위원들 스스로 해당 분야의 지역 현안을 파악하고,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방법들을 고민할 수 있도록 심화 교육 과정 설계 필요(마을만들기 워크숍에서 많이 도입하는 ‘동네한바퀴’ 프로그램이나 마을 길잡이 등 다양한 시도 필요)

③ 지역회의 운영 및 주민참여 확대방안 강구

- 주민참여예산이 다양한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다수 주민의 수요에 맞춰 적절히 사업 예산을 배분하는 것이라면, 다양한 주민제안이 이뤄지도록 참여 과정을 설계하여야 함
- 지역회의는 실질적인 주민참여와 의견수렴 창구임을 감안하

면, 2012년에는 동별 또는 권역별이라도 지역회의를 개최할 필요가 있음. 지역회의가 기존 주민자치위원이나 통장뿐만 아니라 다수의 일반 주민들이 참여하기 위해서는 지역단위에서도 각 계층별, 연령별, 부문별 참여가 가능하도록 회의 시간을 주야간, 주말에 개최하는 등 섬세한 운영 필요

- 아울러, 참여예산위원 중 권역별 배분을 통해, 연수구와 같이 사람이 모이는 곳이면 어디든지 찾아가는 참여예산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주민제안사업을 수렴하는 것도 좋은 방법임(이 경우 생업에 종사하지 않은 위원들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며, 지역별 주부모임이나 유치원 교사모임, 동창회 등 지역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모임들을 사전에 파악하여 설명회를 개최하거나 사업제안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임)

④ 공무원 교육을 통한 참여예산 실무지원 강화

- 2011년 시범사업 운영과정에서 분과별로 사업부서의 참여 및 실무역량을 지원하기로 하였으나, 해당 부서의 협조미흡으로 이뤄지지 않음
- 참여예산 운영초기에는 참여예산위원들이 지역현황 및 현안들을 충분히 숙지하고 있지 못할 뿐만 아니라, 제한된 시간에 관련 사업예산을 살펴보고 우선순위를 조정하기 위해서는 관련 행정부서의 사업설명 및 긴밀한 협조가 상시적으로 이뤄져야 함
- 따라서 행정 부서 구분에 맞추어 분과위원회를 구성하고, 해당 부서에서 간사역할을 지원 하도록 함으로서 위원들의 해당분야에 대한 이해도를 높임과 동시에 분과별 논의사항이 행정에

곧바로 전달되도록 함

- 이를 위해서는 동장을 비롯하여 사회복지과, 교육지원과 등 긴밀한 협의가 필요한 부서 공무원을 중심으로 참여예산에 대한 이해 및 실무진행과정에 대한 교육 필요
- 아울러, 상시적인 주민참여가 이뤄지도록 사업집행단계에서도 다양한 주민참여 방안을 설계하도록 내부 공모제 등을 운영할 필요가 있음

⑤ 투명성 및 정보공개

- 주민참여예산은 예산편성 과정에 대한 권한이 부여되기 때문에, 다양한 이해관계가 개입되거나 첨예한 대립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분명한 운영 원칙과 투명한 운영 과정, 정보공개가 전제되어야 함

• 김태일 위원장 • 내년엔 본격적으로 운영하게 되니, 저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예산위원들께서 느끼시겠지만 예산의 참여 범위와 권한에서 어디까지 참여하는 것이 본래의 취지를 살릴 것인지에 대해서 참여예산위원들과 구청 공무원, 구청장님 모두가 고민할 것입니다. 가능한 한 취지에 맞추어 범위를 확대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공무원과 주민참여예산위원들의 활동에 서로 도움을 주는 구조인 만큼, 이 구조를 잘 활용하면 서로가 도울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 박준복 소장 • 저는 주민참여예산제의 성공 요건은 네 가지라고 생각함

니다. 첫째는 구청장의 의지입니다. 둘째는 공직 사회가 이를 받을 수 있는 인식이 있냐, 셋째는 준비되어 있는 주민 조직이 있느냐, 마지막으로 참여예산의 범위를 어디까지 할 것이냐입니다. 제가 몇 가지를 권고해 드리면 성북구는 좋은예산센터, 이음, 희망제작소에서 도움을 줬는데 과감하게 전문 기관에 위탁하는 것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운영할 수 있는 콘트롤 타워인 민관협력기구가 필요합니다. 〈민관협의회〉와 다른 것입니다. 〈민관협의회〉는 사업의 우선순위 등을 결정하는 것이고, 제도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를 고민하는 콘트롤 타워가 필요한데, 민관협력기구가 이 기능을 맡아야 합니다. 교육의 중요성도 말씀하셨는데, 아무리 재정민주주의라고 하지만 주민들이 직접 참여한다고 해서 절차를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과 국단위 20억 이상 사업에 대한 투융자심의, 회의의 사전심의가 필요한데도 우리가 참여한다고 억지쓰듯이 하면 곤란하죠. 이런 사전 절차를 거치는 것은 규정에 이미 나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고 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수많은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하나라도 헛되이 해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진행 과정을 주민들에게 알리는 보고회와 총회를 개최해야 합니다. 연수구는 세 차례 정도 했고 인터넷 생중계로 회의를 공개 진행했습니다. 예산을 어디까지 참여할 수 있게 할 것이냐인데 사실상 자치구 단위는 경직성 경비를 빼면 가용예산이 별로 없습니다. 성북구는 40명이지만 인천은 적게는 200명, 많게는 700명까지 참여하고 있는데 이분들에게 1년 동안 수많은 토론과 의견수렴을 해서 1~2% 반영한다고 하면 다음 해에 이

분들이 또 참여하려고 하지 않겠죠. 따라서 국시비에 대한 보조사업의 경우는 모르겠지만 가용 예산과 경상 경비를 심의해 수십억 재원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집행하는 예산에 낭비적 요소가 많습니다. 또 한 가지는 국시비 보조사업의 경우에도 사업비가 과다하게 부풀려져 잉여금을 능가하는 게 많습니다. 제가 아는 인천광역시 모 자치구의 경우, 예산이 2000억 내지 4000억이 되는데, 자치구에서 이월예산이 9.6%까지 나왔습니다.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죠. 이렇게 허술하게 예산을 편성해서 1회 또는 2회 추경예산 때 그 돈을 가지고 의회에서 편성하지 못했던 구청장 관심사업이 1회, 2회 추경때 편성되는 관행들이 계속되고 있다는 거죠. 국시비 보조사업도 인프라 사업의 경우에 예산이 과다하게 편성되어 있으면 과감하게 조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민이 참여해서 아는 만큼 참여 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가용 예산도 모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조례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합니다. 처음 만나는 조례는 상당히 구체적이고 촘촘해야 하고, 제도를 운영해 가면서 걸림돌이 있는 것을 풀어 나가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제가 2006년부터 해 오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촘촘하지 않으면 이 제도에 들어오는 사람이 정해져 있습니다. 구 단위, 동 단위든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관료조직에 참여해 왔던 사람들의 목소리만이 반영될 수밖에 없습니다. 인천의 경우, 기존 조직은 1/3만이 참여하도록 조례 상에 규정해 놔거든요. 처음에는 좀 더 참신한 분들이 참여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이 제도가 정착되면 규정을 풀어 다양한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동 지역회의의 위원장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활동하는 분이시면 동에서 생기는 일을 모

두 알기 때문에 동 지역회의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인력낭비, 시간낭비, 예산낭비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 최인옥 국장 • 저는 송정북 연구원의 발제에 동감합니다. 사실 성북구가 진지하게 적극적으로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시범사업의 성격이 강했고, 그것을 제한적으로 운영했습니다. 정상적인 체제로 시작하는 2012년이 되어야 합니다. 아까 언급했던 분과위원회가 현재는 협소한 예산항목이나 활동으로 국한되어 있는데, 성북구 예산위원님들이 직접 운영을 해보니까 실제로 할 일이 별로 없고 활동하기가 어려웠다는 평가를 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분과위원회를 빨리 바꿔야겠다, 실제 예산 전반을 논의할 수 있도록 바꿔야겠다는 제언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렇더라도 우리 지역의 참여예산 과정에서 지향해야 할 목표를 분명하게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예산을 보는 기준을 참여예산위원회에서 세워야 하는데, 올해는 어떤 가치나 생각을 우선적으로 반영한다든지 등을 위원들이 논의를 해서 핵심목표를 설정한다든지, 아니면 내용적으로 중점을 두는 방식을 뒤서 해결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합니다.

• 이호 소장 • 저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북구가 지역회의가 구성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참여예산위원회 활동이 더욱 확대되어야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참여예산위원회가 주어진 안건을 처리하는 게 아니라 활동을 기획하고 실행하는 수준이 되어야 합니다. 주민들에게 어떻게 더 많은 의견을 수렴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기획하고 집행하는 수준으로 가지 못하면, 대부분의

일을 공무원에게 맡기는 형태가 되고, 이는 공무원을 믿고 못 믿고의 문제가 아니라 주민 주도가 실행되지 못한다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권한에 있어서도 더 유연하게 바라보고 이를 집행할 수 있는 단위로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되어야 합니다.

또 하나는 참여예산의 가장 큰 문제 중의 하나가 단기 예산, 1년 예산만을 보게 되는데, 중기 재정 예산이나 투융자 심의 예산 등 더욱 큰 단위의 예산을 고민하고 이를 단기 예산과 어떻게 결합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합니다. 투융자 심의에 참여해서 참여예산위원들의 의견을 밝혀야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전반에 시행되고 있는 참여예산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국회 재정법을 근거로 해서 진행되고 있는데, 참여예산이 항상 이 시스템을 근거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 세계 300여 개 도시에서 참여예산을 실시하고 있고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참여예산 운영 결과를 예산위원들이 평가를 해 보고 주민들의 참여가 부족했다면 왜 부족했는지를 고민하고 바꿔 나가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의 경우에는 주민참여예산제를 잘 운영하다가 마지막에 공무원들과 얼굴을 붉힌 적이 있었는데, 올해 했던 것을 내년에도 그대로 운영하려고 해서였습니다. 그렇게 운영되지 않으려면 여러분이 스스로 평가해봐야 합니다. 세계적으로 모범적인 사례라고 언급되는 도시에서도 첫해부터 모범적인 형태로 운영된 곳은 한 곳도 없습니다. 계속 평가하면서 바꾸고 10년 이상 운영하면서 시스템을 만들어 낸 것입니다. 그 지속적인 과정이 중요합니다.

• 사회자 • 참여예산위원님들이 부담을 느끼실 시간입니다. 실제 활동

하신 분들의 입장과 생각을 들어보겠습니다.

·박종태 위원· 실제 나가보니까 어땠는지 느낌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예산위원으로서 활동해 보니 구의원과 의견차이가 나타납니다. 개발 지역인지 아닌지에 대한 현장에 대한 의견차이도 나타났고, 중요 사업 위치에 대해서도 의견차이가 나타났습니다. 참여예산위원들이 현장에 나가 사심없이 열심히 살펴보고 의견을 제안한다는 점을 구청장님께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하나는 과장님께 건의할 사항입니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는 예산이 미미하다고 하지만 지역회의 강화를 통해서 모든 예산에 대해 심의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 점을 참고해 주십시오. 다음으로 구의원 관련 부분입니다. 구의원과 주민참여예산위원회와 의견 차이가 나는 사업에 대해서 사전 조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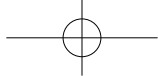
·성낙경 위원· 마을만들기 사업분과에서도 구의원님과 의견이 달랐는데 조정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올렸던 안에서 조정이 됐는데, 내년부터는 참여예산위원회 회의를 할 때 구의원도 참석하는 열린 토론의 장을 만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것은 권한의 문제가 아니고 상호 협조하고 실질적으로 주민들을 위해 반영될 수 있는 방향으로 논의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열린 토론과 회의가 필요합니다. 평가지표를 개발할 필요도 있습니다. 마을만들기 분과의 경우, 토론을 통해 평가지표를 만들면 이를 바탕으로 주민들이 사업을 제안하고 평가위원들이 검토한다면 훨씬 좋을 것이라 봅니다.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럼, 많은 사람들이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것,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고 어떤 결과가 돌아올 수 있는가에 대한 피드백이 돌아올 때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사회자 • 적절한 홍보도 중요하죠. 사업단위별로, 지역별로 홍보를 해서 참여예산제에서 반영되어 사업이 집행된다는 것을 알려줘야만 다른 주민들의 참여를 이끌 수 있으리라 봅니다.

• 참여예산홍보팀장 • 걱정을 처음에는 많이 했습니다. 제대로 참여예산제를 시행할 수 있을까 실무자로서 고민이 많았습니다. 여러 전문가 위원이나 참여예산위원들이 적극적으로 함께해 주셔서 가능했습니다. 헌신적인 참여와 봉사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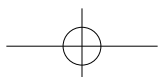
• 기획경영과장 • 오늘 많은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시행된 지 6개월 정도밖에 안되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평가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도 제도상의 문제와 운영상의 문제에 대해서는 몇 가지로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제도상의 문제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예산이 단년도 예산이고 다년간에 걸쳐 집행되는 예산에 대해서는 예산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큰 사업의 경우, 대부분 다년도 투자사업인데 예산은 단년도 예산이므로 제도상의 문제가 나타납니다. 이런 경우, 구청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있는데 2012년 투자계획을 5년 후까지 고려하게 되는데 앞으로 이런 논의에 예산위원회도 참여하고 단년도 사업 심의 시에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고려



해서 우선순위 사업을 선정하면 이 문제는 해결될 것으로 봅니다.

다음으로 자치구의 가용 재원이 부족합니다. 주민들의 의견을 들으러 가면 실제 반영되지 않은 형식적 의견 수렴이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운영하다 보면 올해 3,671억 예산 중에서 가용 예산은 150~200억이고 어린이 친화도시 조성 등 우리 구의 역점 사업을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운용되는 예산은 30억 내외에서 권한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게 되는데, 국시비 보조사업도 할 수 있다고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어렵습니다. 저희 구만 관여를 하지 않으면 보조사업을 안 줘 버립니다. 대부분의 국시비 보조사업이 사회복지사업, 보건사업인데 저희 구만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거기에 약간의 과다편성이 들어갈 수는 있지만 매칭 사업 전체를 검토해서 저희가 빼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결국 가용 예산의 부족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도 세입 확충 방안을 같이 이야기해 보자고 하셨으니 향후 논의하면 되겠습니다. 혹시라도 예산이 과다편성 됐거나 불용액이 많이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이 집행되는 과정에서도 수시로 봐가면서 감시하는 역할을 하면 좀 더 나아질 것이라 봅니다.

다음으로 운영상의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네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우선, 주민참여에 대한 문제입니다. 기존의 구청이 주도해서 만든 조직들이 동사무소에 많이 있습니다. 실제 주민참여를 시키려고 보면 일반 주민보다는 이런 분들이 많이 참여하다 보니까 늘상 건의된 사항이 반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 주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 가령 연수구 사례처럼 5명 이상이 모이면 찾아가서 의견수렴을 하거나 설명을 하는 등의 방식을 통해서 주민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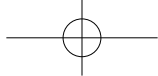
여를 이끌 방법을 연구했으면 합니다. 박준복 소장님 말씀처럼 어느 정도 예산을 가지고 어떤 방식으로 주민을 이끌어 낼 것인가가 항상 숙제입니다. 전체 예산을 가지고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거든요, 그렇다면 어떤 예산 규모로 할 것인지, 가령 경상경비+신규사업+복지사업 방식으로 한다든지 등의 안에 대해 향후 위원회와 논의하면서 정했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예산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결정된 사업에 대해 구의원님들과의 인식 차이로 인해 문제가 있어서 그 부분을 조정하느라 약간 애를 먹었습니다. 향후에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더욱 합리적으로 예산을 처리해 넘기고, 운영과정에서 의원님들과 참여해 협의한다든지 등의 방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대부분의 이런 논의가 관 주도인데 민간 주도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중심이 되고 시민단체 역할도 강화해서 특히 감시기능까지 강화되면 민간 주도로 정착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구의 경우에도 <예산감시네트워크> 같은 것이 설립되면 좋다고 봅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의 활동가들도 많이 활동하셨으면 합니다.

•서정례 위원• 저는 이런 회의를 더 자주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회의가 뜸하다 보니 참여 예산에 집중을 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반상회를 주민참여 예산 활성화의 시작점으로 검토해 보면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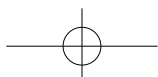
•윤성희 위원• 저는 처음 주민참여예산위원으로 교육도 받고, 활동도 직접 해 보았습니다. 지금 공통적으로 느끼시는 것은 이 제도를 촉박하게 시행했고 운영했다는 의견인 것으로 보이는데, 저는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칠삭둥이 아이에 비유하고 싶습니다. 칠삭둥이가 잘 자라도록 우리가 잘 보살펴야 하고, 많은 정성과 의지가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가 소신을 가지고 내가 아니면 안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일했으면 합니다. 주민 모으기도 참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몇 명만 모이는 곳이라도 직접 예산위원들이 가서 무엇이 필요한지를 들어보셨으면 합니다.

저는 직접 가 보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구의원님들과의 대립 문제도 언급했는데, 동장님이 어떻게 하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차츰차츰 나아질 거라 생각합니다. 교육이 중요하고 홍보가 중요하다는 것을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사회자• 위원님들이 들고 다니며 홍보할 별도 자료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성북구 참여예산네트워크가 언급했는데,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중심이 돼서 참여예산네트워크를 만들었으면 하네요. 또 하나, 여기 이호 소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서울시 참여예산네트워크나 성북구 참여예산네트워크를 만들어서 자료를 공유하면 참 좋겠는데 이호 소장님께서 만드시면 어떨까 하는데요?

•이호 소장• 저는 일단 서울시 보다는 성북구에서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성북구는 없는데 서울시만 만들면 어차피 전문가들만 모



여서 감론을박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저는 서대문구 사례가 모범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민분 중에 리더급을 만들고, 이분들이 다른 주민들에게 교육하고 다니는 것 등은 좋은 사례입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만들고 교육도 기획하면서 도움이 필요하면 제안하는 방식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 사회자 • 몇몇 자치단체라도 만들어져서 움직이다 보면 바로 이것이 서울시 네트워크가 될 거라 봅니다. 저희가 과제만 드린 것 같네요.

• 이요세 위원 • 홍보는 신년도 인사말씀도 있는데, 이런 공식적인 절차에서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부분을 홍보하시면 더 효과적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각 동의 동장님, 지역의 직능단체를 통해서 홍보했으면 합니다. 그 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홈페이지나 카페를 만들어서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우리가 지속적으로 전문성이 있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40명 예산위원들이 전문성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이 중요합니다. 또한 기준을 세워야 합니다. 범위가 어디까지인가도 논의를 통한 결정이 필요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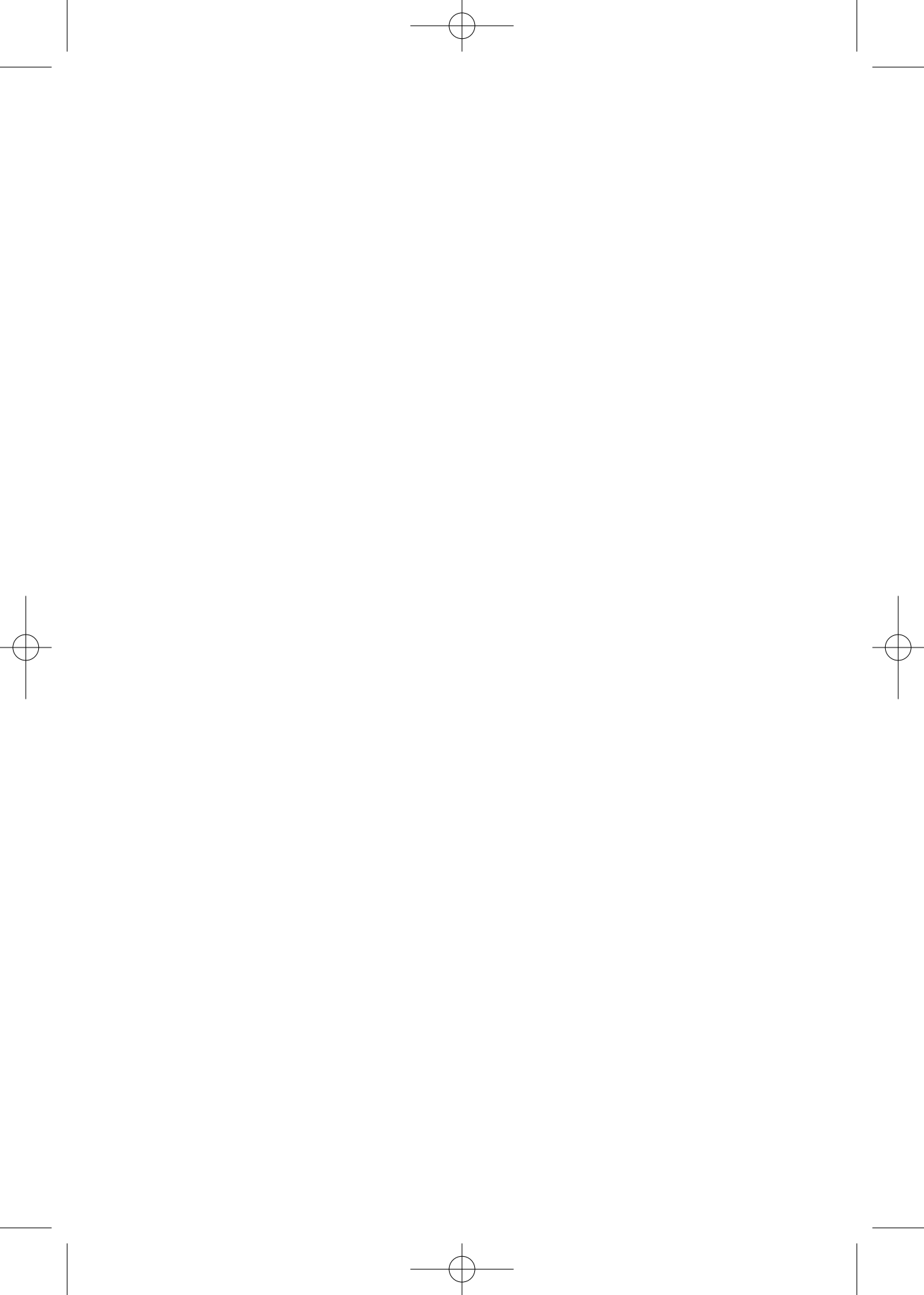
• 박준복 소장 • 주민참여위원이 참석하는 회의 때는 항상 제안서를 가지고 다니셨으면 합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 중에 예산은 단년도 사업인데 중장기 사업을 검토하는 것이 가능하겠느냐라고 하셨는데, 그래서 이 사업을 반영할 것인지 말 것인지 논의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전문가 집단이 아니란 말이죠. 따라서 연수구는 내년도 각종 제

안을 할 때 검토가 필요하고 용역이 필요한 사업을 조사하는 예산으로 2,000 만원을 반영했거든요, 1년 동안 집중적으로 논의해 보자는 취지였습니다. 이 점을 참고해 주십시오. 그리고 가용예산을 말씀하셨는데요, 인천 부평구의 경우 경직성 경비가 98.2%입니다. 주민들로부터 나오는 세수확충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기존의 공무원이 생각해 내지도 못했던 아이디어들이 나옵니다.

•심정곤 위원• 2012년에는 교육이 더욱 필요하다고 봅니다. 일주일 동안 2시간씩 집중교육을 받든지, 1개월 프로그램이든 교육이 필요합니다. 다른 나라, 다른 지역 또는 관련 법에 대한 학습이 필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또한 회의도 정례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한 달에 1~2회의 정례회의가 필요합니다. 매뉴얼 혹은 백서도 계속 발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여예산홍보팀장• 3월경에 주민참여예산위원을 대상으로 업그레이드 교육이 계획되어 있고, 주민참여예산학교도 소규모 예산밖에 배정이 안됐지만 3~4월경에 운영할 예정입니다.

•사회자• 2012 예산서가 인쇄가 될 때 주민참여예산위원들께도 꼭 드려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견출지 가지고 체크도 해가면서 주민참여예산 반영실적을 확인하는 게 필요합니다. 2012년 성북구의 주민참여예산제가 활성화되는데 꼭 필요했던 좌담회였다고 생각합니다.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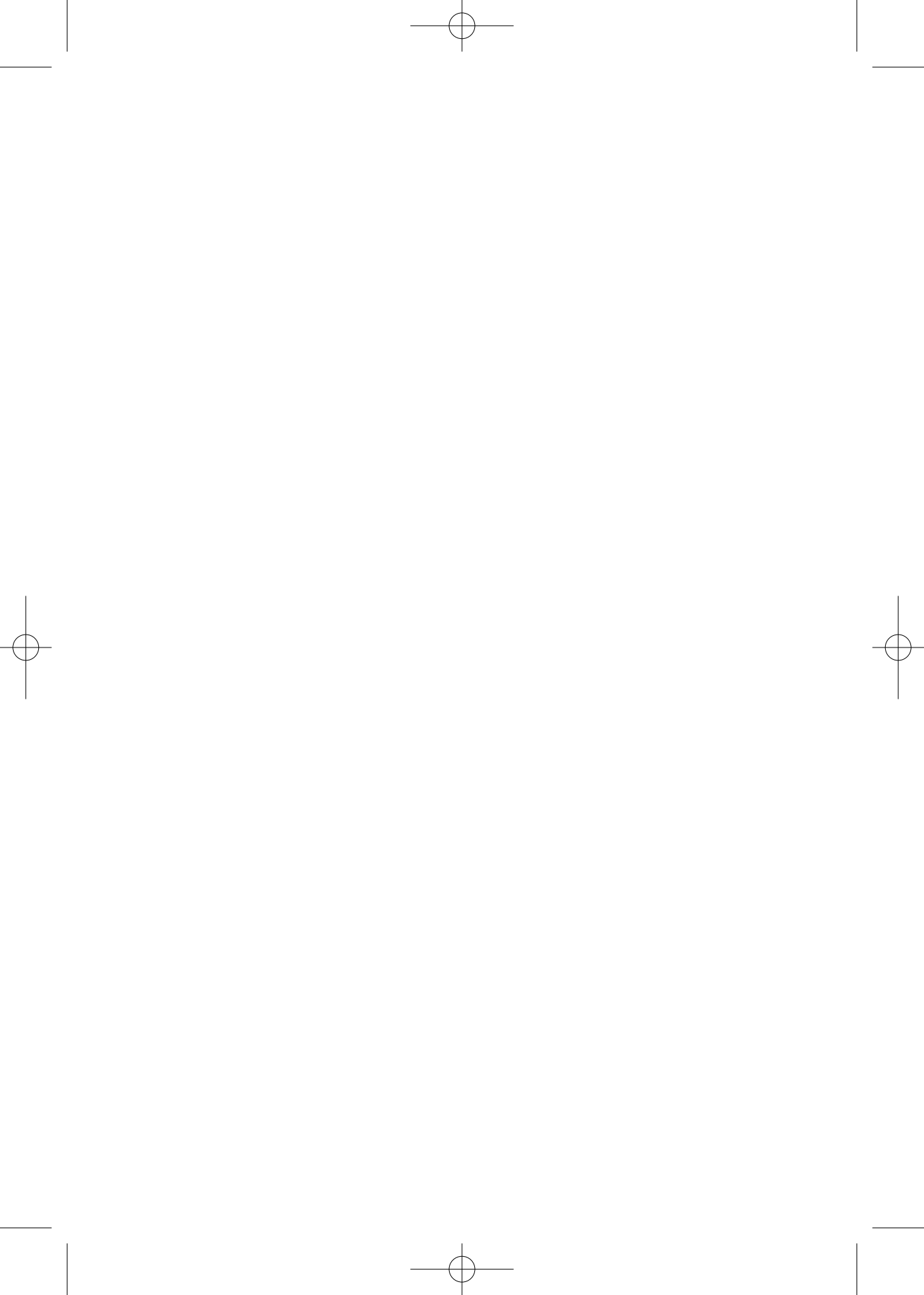
2장

성북구 주민참여예산제 A부터 Z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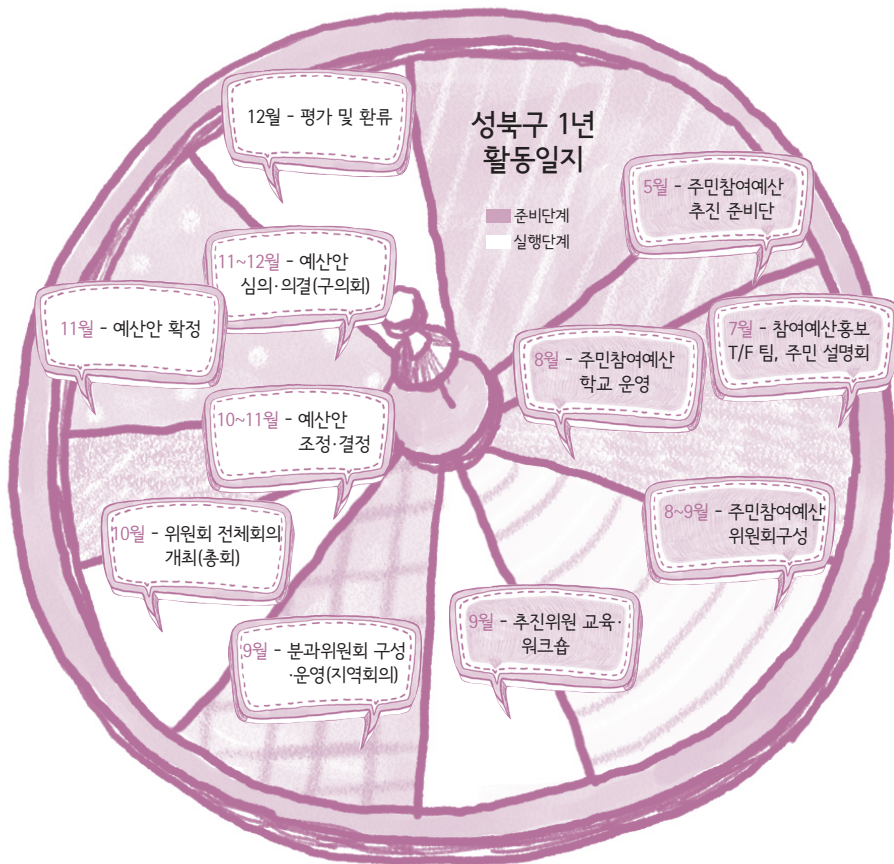


- ▶ ① 2011 주민참여예산 한눈에 그리기
- ▶ ② 주민참여예산제 추진준비단
- ▶ ③ 주민참여예산제 주민설명회
- ▶ ④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를 위한 설문조사
- ▶ ⑤ 주민참여예산학교
- ▶ ⑥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활동





2011 주민참여예산 한눈에 그리기



준비단계

5월 - 주민참여예산 추진 준비단

7월 - 참여예산 홍보 T/F팀 구성

7월 - 주민설명회

8월 - 주민참여예산 학교 운영

8~9월 - 주민참여예산 위원회 구성

9월 - 예산위원 교육·워크숍

성북구 1년 활동일지(2011년)

1) 주민참여예산 추진 준비단

- 일자 : 2011년 5월 3일 / 6회
- 내용 : 주민참여예산제 시행 사전 준비(조례검토), 교육과정 및 토론회, 공청회 기획·운영 등

2) 참여예산 홍보 T/F팀 구성

- 일자 : 2011년 7월 1일
- 내용 : 주민참여 활성화 및 주민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홍보, 온라인 주민참여 방안강구 및 온/오프라인 주민의견 수렴

3) 주민설명회

① 권역별 설명회 / 권역별 1회(총4회)

- 운영기간 : 2011년 7월 14일 ~ 7월 22일
- 참가대상 : 주민자치위원, 통반장 등 1회 100여명

② 직능별 설명회 / 직능별 1회(총9회)

- 운영기간 : 2011년 8월 17일 ~ 8월 31일
- 직능구분 : 사회단체, 공동주택, 사회복지, 장애인·노인복지, 여성·아동, 문화예술체육, 교육, 부동산관련, 보건위생 분야

4) 주민참여예산학교 운영 / 주간·야간

- 운영기간 : 2011년 8월 16일 ~ 9월 1일 (매주화목)
- 참가대상 : 성북구주민 100여 명
- 교육내용 : 참여예산제도에 대한 이해와 성북구 사업 및 예산에 대한 교육

5)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운영

- 모집공고 : 2011년 8월 22일 ~ 9월 2일
- 공개추첨 및 절차이행 : 9월 5일 ~ 9월 9일
- 위원위촉 : 9월 20일 / 40명 (참여희망 주민)
- 위원선정방법 : 공개모집

6) 예산위원 교육·워크숍

- 일자 : 2011년 9월 23일/ 9월 29-30일
- 장소 : 성북구아트홀 / 수안보연수원
- 참가인원 : 주민참여예산 위원 전원
- 내용 : 주민참여예산의 개념과 필요성, 예산의 운용구조 이해, 활동방향 · 운영방향 모색

7) 분과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일자 : 2011년 10월 11일-11월 4일
- 구성현황 : 성북형복지, 교육지원, 마을만들기, 동 소규모 편익사업분과
- 지역회의 : 동 소규모 편익사업분과에서 진행

8) 참여예산위원회 전체회의 개최(총회)

- 일자 : 2011년 11월 4일
- 참석대상 : 참여예산위원 전원
- 회의내용 : 지역회의에서 결정된 사업 우선순위 확정

9) 예산안 조정·결정

- 일자 : 2011년 10월 말 ~ 11월 초
- 내용 : 위원회 결정결과 반영

10) 예산안 확정(의회제출)

- 일자 : 2011년 11월 20일 (법정기한)
- 내용 : 2012회계연도 개시 40일 전

11) 예산안 심의·의결(구의회)

- 일자 : 2011년 11월 25일 ~ 12월 13일
- 내용 : 구의회 상임위 및 예결위 활동

12) <주민참여예산연구회> 구성·운영

- 일자 : 2011년 11월 10일 ~ 현재
- 내용 : 2011년 운영평가 및 2012년 준비

실행단계

9월 - 분과위원회 구성·운영(지역회의)

10월 - 위원회 전체 회의개최(총회)

10~11월 - 예산안 조정·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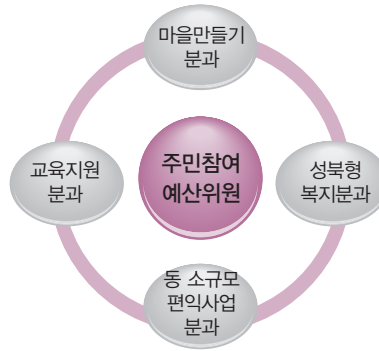
11월 - 예산안 확정

11~12월 - 예산안 심의·의결

12월 - 평가 및 환류

:: 주민참여예산위원 명단 및 조직구성

2011년 9월 20일 주민참여예산위원 40명이 확정되었다. 위원구성과정을 살펴보면 공개추첨을 통해 20명, 예산학교 수료자 9명, 대학교수 및 전문가 5명, 국장급 당연직 6명으로 이루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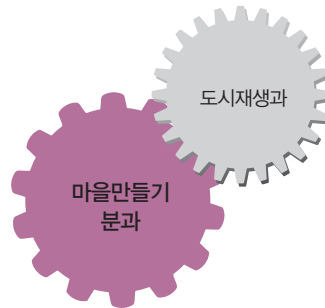


<주민참여예산위원 조직도>

1) 마을만들기 분과위원

• 분과소개

- 마을 만들기 :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노력을 바탕으로 주민 스스로 삶을 꾸미고 가꾸는 물리적인 환경개선 뿐만 아니라 주민상호간의 관계와 활동을 창조하는 것
- 역할 : 마을만들기사업에 대한 심사와 지역에 꼭 필요한 사업을 발굴함



<소관부서와의 관계도>

분과위원 명단 (8명)

성명	성낙경(위)*	박학용	박현규	김중대	심정곤	신민호	이미영	정규현
소속지역	길음1동	삼성동5가	돈암1동	돈암2동	안암동	종암동	장위1동	석관동

*(위) : 분과위원장

2) 성북형 복지 분과위원

• 분과소개

- 복지사업 핵심 추진방향 : 사
각지대 없이 누구나 행복한
성북형 복지공동체 조성, 취
약계층에 대한 수요자 중심의
복지서비스 제공, 아동·청소년
복지증진 및 여성의 사회
참여 확대



〈소관부서와의 관계도〉

- 역할 : 복지정책과, 노령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복지 관련 사업에 대한 예산심의 및 주민들의 의견수렴

분과위원 명단 (8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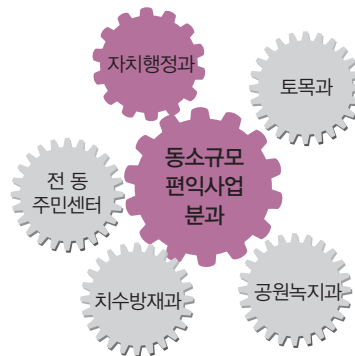
성명	안영신(위)*	김남영	배정학	박종태	이요세	최영심	박우형	서정례
소속지역	월곡1동	성북동	안암동	정릉1동	정릉2동	길음1동	상월곡동	월곡2동

* (위) : 분과위원장

3) 동 소규모 편익사업 분과위원

• 분과소개

- 동소규모 편익사업 : 계단정
비, 난간설치, 콘크리트 포장,
벚꽃식재와 같은 사업
- 역할 : 동에서 요구하는 사업
에 대해 통·반장, 직능단체원
및 일반주민들의 의견 수렴 및



〈소관부서와의 관계도〉

그 외 필요한 1천만원 이내의 소규모 사업에 관한 검토 및 우선 순위 선정

분과위원 명단 (8명)

성명	윤진호(위)*	윤성희	최광무	정성훈	전택기	이인숙	최동진	고선화
소속지역	길음1동	삼선동	동소문동	보문동	안암동	정릉3동	정릉4동	장위3동

*(위) : 분과위원장

4) 교육지원 분과위원

• 분과소개

— 성북구 교육지원사업 :

자기주도학습강화 및 멘토링 제도 활성화, 예·체능 교육 및 인성교육, 진로적성교육 강화, 평생교육기관 간 네트워크 구성 및 다양한 프로그램 편성, 친환경 무상급식 단계적 확대 등

— 역할 :

- 구청 직접 시행사업 확대 분야와 교육관련 건의사항에 대한 토의
- 학교에 직접 지원하는 교육경비보조금의 적정규모 심의
- 교육경비 보조금 분야별 지원 비율 조정



〈소관부서와의 관계도〉

분과위원 명단 (8명)

성명	서철모(위)*	김준용	이유경	지남섭	김종숙	이종희	유귀상	김기순
소속지역	하월곡동	삼선동	정릉2동	정릉4동	길음2동	월곡1동	장위2동	장위3동

*(위) : 분과위원장

주민참여예산제 도입과 시행

주민참여예산 추진 준비단 구성 및 운영



- 2011. 5 구성, 5월 ~ 8월에 걸쳐 8회 회의
- 희망제작소 등 관련 전문가와 성북구 관내 시민활동가 등 8명으로 구성
- 조례 제정단계부터 참여예산제 운영 전 과정에 자문 등 제공

주민참여예산제 도입과 시행



권역별 주민설명회 개최



성북동 주민센터 전문가 강의(박원순 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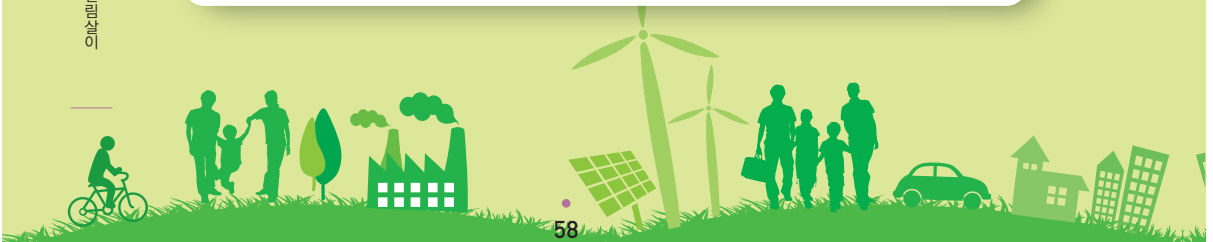


길음1동 주민센터 주민과의 대화
(김영배 성북구청장)



종암동 주민센터 구정현황 등 설명
(김영배 성북구청장)

- 참여대상 - 각 권역별 주민자치위원, 통·반장 및 예산에 관심 있는 주민
총 4회, 약 550여 명
- 개최일정 - 2011.7.14(목)~7.22(금)



주민참여예산제 도입과 시행



직능별 주민설명회 개최



교육지원 분야-학부모 단체, 학교 및 교육청 관계자



여성·아동 분야-어린이집 관계자,
청소년·여성단체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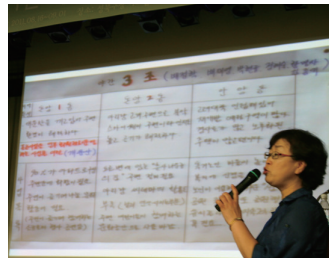
사회복지 분야-지역사회복지협의체,
사회복지시설 관계자

- 참여대상 : 학부모 단체, 아파트 입주자 대표, 사회복지시설 관계자 등
각 분야별 대표 및 단체원 (총 9회, 약 930여 명)
- 개최일정 : 2011. 8. 17(수) ~ 8. 31(수), 직능별 1회(총 9회)

주민참여예산제 도입과 시행



주민참여예산학교 운영



- 2011. 8월 2개반 총 12회 수업, 87명 수료
- 예산학교 수료생 중 예산위원 9명 위촉, 그 외 수료생은 서포터즈 등으로 활동
- 지역 활동 시민단체 등과 연계하여 참여 계층 다양화



주민참여예산제 도입과 시행

주민참여예산위원 공개모집 및 추천



- 2011.9.1 ~ 9.9 공개모집, 137명 접수, 9.16 추천
- 총 40명 중 20명(각 동별 1명) 공개추첨으로 위원 위촉

주민참여예산제 도입과 시행



주민참여예산위원 교육 실시(3일, 20시간)



▮ 특별교육

- 2011. 9. 23(금)
- 주민참여예산제 개요 및 이해
- 위원회 활동 방법 등 강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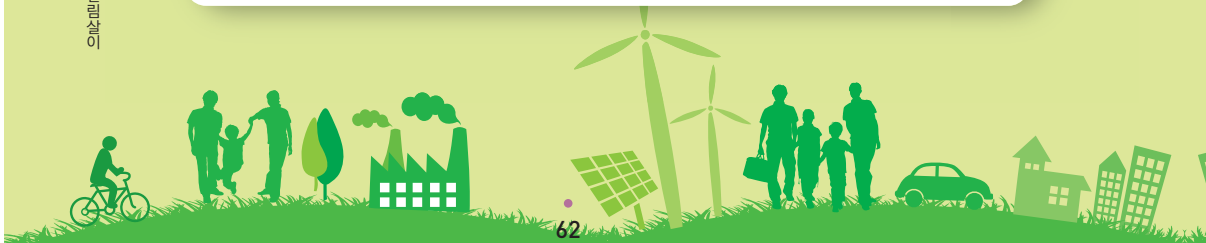
▮ 워크숍(서울시 수안보 연수원)

- 9.29(목)~9.30(금)
- (1일차)
- 위원회 활동방향 모색
- 회의기법과 의견도출방법설명·실습



(2일차)

- 위원회 활성화 방안 강구
- 가상분과회의 구성 및 사전 운영을 통한 참여예산제 실습



주민참여예산제 도입과 시행



성북구 주민참여예산제의 특징 6가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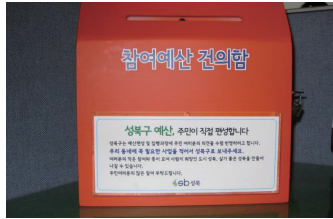
준비단을 통한 사전준비



4개 분과 시범 운영



지역·직능별 설명회 개최



참여예산건의함 설치



반회보를 이용 의견엽서 배부



예산위원 공개모집 추천

주민참여예산제 도입과 시행

언론보도 실적

경향신문

2011년 09월 19일 월요일
014면 사회

성북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신청 물려 공개 추첨

"성북동은 1번, 1번입니다."
지난 16일 오후 2시 서울 성북구청 다목적실에서 주민참여예산위원을 선정하는 공개추첨이 진행됐다. 시민 신청한 137명 가운데 추첨을 통해 동별 1명씩 20명의 주민참여예산위원을 선정했다.

추첨 현장을 찾은 신청자 중 유영하 씨(원로)를 포함한 150-40국(2등)은 "성북구에 오래 살았지만 생일에 전담하는 구 주민으로서 구정의 거리를 느끼는데 이번 활동에 열심히 참여해 그 거리를 좁혀가고 싶다"며 "많은 분들과 만나면서 이야기를 듣고 어떤 예산을 할지 함께 고민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주민참여예산학교를 수료했지만 위원으로 선정되지 못한 이영선 씨

(83-성선동)는 "주민으로서 예산 작업에 참여해 보는 게 의미 있다"고 생각해 예산학교도 다녔다"며 "이번에는 안 했지만 내년, 내후년에도 될 때까지 계속 신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성북구는 공개추첨을 통해 선정된 20명의 주민들과 더불어 분야별 직능 대표자 20명을 위촉해 총 40명으로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꾸렸다. 성북구 주민참여예산위원들은 오는 23일 특별교육을 받고 29-30일 워크숍을 한 뒤 본격적으로 활동한다.

김영배 성북구청장(44)은 "교육과 비 보조나 마을만들기 사업, 여성이 행 복한 성북 구현, 등 단위 소규모 편이 사업 등에 대한 예산안은 위원회의 의견을 그대로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이사회 기자 linc@kyunghyang.com

서울신문

2011년 07월 15일 금요일 014면 공공경제

성북구, 주민참여예산제 설명회

예산학교 참가자 50명 모집

성북구가 예산 지출의 범위와 우선순위를 주민들이 결정하는 '주민참여예산제'를 통해 말 예산편성부터 반영하기 위해 주민참여예산학교를 개최하는 한편 주민참여예산학교 교육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14일 밝혔다. 구는 내년 주민참여예산 규모를 전체 가용 재원의 약 50%(2011년 기준 약 100억원)로 계획하고 있다.

구체적인 분야는 ▲교육문화 비보급 ▲농 소규모 편익사업 ▲여성이 행복한 성북 구현 ▲마을만들기 사업 ▲노년 성 과정에 주민 참여가 보장되면 지방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우선 구는 지역적인 지역발전 전략을 연구하는 민간 연구소인 '희망제작소'와 함께 4개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한다. 14일 오후 4시 성북동 주민센터를 시작으로 15일 오후 2시 중앙동 주민센터, 21일 오후 2시 중앙동 주민센터, 22일 오전 10시 장위1동 주민센터 등 순회한다.

설명회에는 희망제작소 상임이사인 박원순(55) 변호사 등이 강사로 나서 주민참여예산제도의 기본 내용과 이 제도를 세계 최초로 도입한 브라질 포르투 알레그레시의 사례 등을 소개한다. 구는 구정 현상과 현안사업, 예산 제도를 주민참여예산제 관련 계획 등을 설명하고 건의사항을 청취할 예정이다.

다들아 주민참여예산학교 참가자 50명 20명 5명까지 구 홈페이지(www.seongbuk.go.kr)에서 모집한다. 기획재정부와 서울연구하는 민간 연구소인 '희망제작소'와 함께 4개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한다. 14일 오후 4시 성북동 주민센터를 시작으로 15일 오후 2시 중앙동 주민센터, 21일 오후 2시 중앙동 주민센터, 22일 오전 10시 장위1동 주민센터 등 순회한다.

우리일보

2011년 07월 12일 화요일 010면 지역종합

성북구, 주민참여예산제 준비 박차

주민참여예산 설명회·참가자 모집

성북구는 민영화예산제를 위해 구는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위한 예산학교와 교육대상자를 모집한다.

구는 내년 주민참여예산 규모를 전체 가용 재원의 약 50%를 계획하고 있다. 구체적인 분야는 ▲교육문화 비보급 ▲농 소규모 편익사업, 여성이 행복한 성북구현, 마을만들기 사업 등으로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 참여가 보장되면 지방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 성북구는 지역적인 지역발전 전략을 연구하는 민간 연구소인 '희망제작소'의 주관으로 4개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한다.

14일 오후 4시 성북동 주민센터를 시작으로, 15일 오후 2시 중앙동 주민센터, 21일 오후 2시 중앙동 주민센터, 22일 오전 10시 장위1동 주민센터 등 순회한다.

설명회에는 희망제작소 상임이사인 박원순 변호사 등이 강사로 나서 주민참여예산제도의 기본 내용과 이 제도를 세계 최초로 도입한 브라질 포르투 알레그레(Porto Alegre) 시의 사례 등을 소개한다. 또 성북구는 구정현상과 현안사업, 예산 제도를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 등을 설명하고 건의사항을 청취할 예정이다.

아울러 중점 예산상장사업 및 우선 재정지원 사업 등에 관한 설명회도 실시한다. 예산에 관심 있는 주민이면 언제라도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다. /송준호 기자

서울경제

2011년 07월 12일 화요일
A29면 사회

성북구, 14일 주민참여 예산제 설명회

서울 성북구는 주민참여 예산제 시행을 준비하기 위해 자립적인 지역 발전 전략을 연구하는 희망제작소 주관으로 4개 권역별 주민참여예산 설명회를 연다고 11일 밝혔다.

설명회는 14일 오후 4시 성북동 주민센터부터 시작으로 길음1동 주민센터(18일 오후 2시), 중앙동 주민센터(21일 오후 2시), 장위1동 주민센터(22일 오전 10시) 등에서 잇따라 열린다.

설명회에서는 주민참여 예산제도의 기본 내용과 이 제도를 세계 최초로 도입한 브라질 포르투 알레그레시의 사례 등이 소개된다.



주민참여예산제 추진준비단

● 추진준비단 개요

성북구 주민참여예산제는 2011년 5월에 추진준비단을 구성하며 시작되었다. 추진준비단은 총 10명으로 구성되었고, 8월까지 8차에 걸쳐 회의를 진행하였다. 추진준비단은 주로 주민참여운영조례안 초안 마련, 주민참여예산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구성과 역할, 가용 예산의 범위, 주민참여활성화 방안으로서 권역별 설명회 및 의견수렴방법 등을 협의하였다. 성북구는 기획단계에서부터 추진준비단이라는 이름으로 지역단체활동가 및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조정함으로써, 주민참여예산제를 특성에 맞게 잘 운영하였을 뿐만 아니라 민관거버넌스의 전형을 만들었다는 평가다.

■ 추진준비단 구성 및 역할

- 구성 : 관련분야 전문가, 생활구정기획단장 등
 - 단장(1) : 희망제작소 부소장 송창석
 - 위원(9) : 관련분야 전문가, 생활구정기획단장 등
- 역할
 - 주민참여예산제 시행 사전준비(조례안 검토 등)
 - 주민참여예산 시행 대상 및 범위 등 조정

[주민참여예산 추진준비단(연구회) 주요회의내용]

- 2011.5.3-11.10 - 주민참여예산 추진준비단 구성과 운영**
- 1차 회의(5.3) - 성북구 조례안 초안 협의
- 2차 회의(5.16) - 성북구 조례안 협의 계속, 타 지역 주민참여예산학
교 프로그램 검토
- 3차 회의(5.25) - 주민참여활성화 방안으로서 설명회 협의 참여예산
홍보 T/F 구성
- 4차 회의(6.15) - 주민설명회, 공청회 운영 방안 협의
- 5차 회의(7.4) - 분과위원회 운영방안 협의
- 6차 회의(7.11) - 권역별 주민설명회 추진계획 협의
각 분과위원회에서의 활동내용 및 가용예산 협의
주민의견수렴방식 협의(온라인투표, 오프라인총회
형태 등 협의)
- 7차 회의(8.8) - 주민참여예산학교 커리큘럼 및 운영방법 협의
- 8차 회의(8.31) -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방안, 분과위원회 구성
방안, 주민역량 강화방안, 지역회의 운영방안 협의
-
- 2011.11.10-12.20 - 추진준비단을 참여예산연구회로 전환**
- 1차 회의(11.10) - 2011년 주민참여예산 운영과정에 대한 전반 평가1
- 2차 회의(11.24) - 2011년 주민참여예산 운영과정에 대한 전반 평가2
- 3차 회의(12.20) - 2012년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 수립

❧ 추진준비단 회의에서의 쟁점사항과 논의결과

1) 조례안 검토 및 수정안 논의

[협의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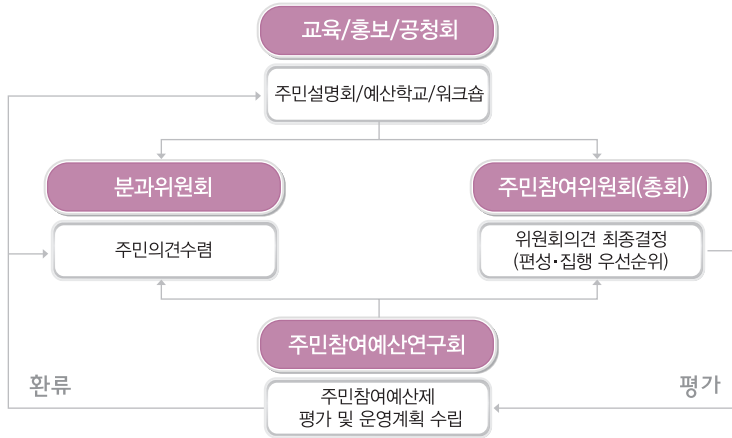
- 주민들의 협의기관인 '지역회의' 구성 근거가 필요하다고 생각함
→ 제도 시행의 성패여부는 구청장의 의지가 관건임. 의지가 강하면 포괄적 규정이 오히려 탄력적 시행의 원천이 될 수 있음
- 조례안 제9조 관련, 위원회 위원수(30명) 조정이 필요하고, 위원수에 당역직 위원이 포함된 것은 문제가 있음
→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민간위원으로만 구성 검토
→ '추진준비단'을 위원수에 포함시키지 않고 별도 전문가그룹(자문기구)을 둘 수 있도록 별도 조항 검토
- 조례안 제9조 제4항 관련, 위촉직 위원 중 '동장이 추천한 사람'은 관변단체 관련인사가 위촉될 우려가 있음
→ 관련 조항을 삭제하거나 '공개된 절차에 따라 추천된 사람' 등으로 수정검토
- 조례안 제14조 제2항 관련, 위원회는 '구 업무분야별로 6개분과로 구성'할 경우 틀에 얽매인 형식적 업무구분이 될 수 있고, 위원 선정(배분)도 문제가 될 우려가 있음
→ 제1항의 규정으로도 분과위원회를 탄력적으로 구성할 수 있어 해당조항 삭제검토
- 조례안 제9조 위원회 구성시 일반주민을 과반수 이상 공개모집하는 조항 추가 제안
→ 보다 포괄적으로 조례안을 구성하였고, 앞으로 필요시 언제든지 조례개정가능
- 조례안 제10조 위원 참여의 폭을 넓히는 의미로 연임제한 규정을 추가 제안
→ 그다지 오래 참여하고 싶어하지는 않을 듯하며, 의회심의시 수정안이 나올수도 있으므로, 현안유지

[협의결과]

조 항	조 례 안	수 정 안	비 고
제9조 (위원회 구성)	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 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 여 <u>30명 내외의</u> 위원으 로 구성한다.	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 함하여 <u>40명 이내의</u>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수 증원 및 용어 명확 화
	④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 청장이 위촉한다. 1. 참여를 희망하는 주 민으로서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선정된 사람 2. 동장이 추천한 사람 3. 그밖에 재정, 예산 등에 전문적인 지식 이 있는 사람	2. ‘동장이 추천한 사 람’ 삭제	동장이 추천 할 경우 자칫 관변단체나 기존 주민자 치위원 등 인 사가 위촉될 우려가 있음
제14조 (분과 위원회 설치)	②분과위원회 구성은 위 원회의 전 위원을 대상 으로 하며, 구의 업무분 야별로 6개 분과로 구성 한다	②항 삭제	구 업무(국) 별분과로 구 성할 경우 틀 에 얽매인 형 식적 업무구 분의 우려 있 음
기 타	‘주민참여예산연구회’ 구 성 및 운영관련 조항 없 음	조항신설(제21조) 주민참여예산제의 원 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 요한 경우 전문가·관 련분야 종사자·시민 단체 관계자 등 10인 이내로 주민참여예산 연구회를 구성·운영 할 수 있다.	위원회에 참 여하는 주민 위원 수 비중 을 높이고 자 문기구 성격 의 전문가 그 룹 구성 근거 마련

2)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상 및 역할 관련

〈성북구 주민참여예산제 추진 체계도(2011)〉



[협의내용]

-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기능을 명확히 규정하자.
 - 위원회의 기능과 운영원칙을 명시하여야 운영결과에 대한 평가가 가능
 - 위원회 기능 중 핵심은 주민 제안 중 우선순위를 정하여 개념 정리 후 구청장에 제안하는 역할이며, 두 번째는 주민교육과 홍보임. “주민참여예산제 평가 및 개선 방안 마련”은 연구회의 역할임
-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운영원칙을 명시하자.
 - 위원회 운영원칙의 첫번째는 최대다수가 최대참여 보장, 두번째는 분과위원회별 논의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논의사항을 최대한 존중하되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을 책임 있게 논의하는 것임
 - 위원회 첫 회의에서 위원회 운영원칙에 의견충돌 등의 경우에 대비한 의사결정방식을 명확히 하고, 운영원칙을 어디서 어떻게 정할지 규정

- 구청장이 전체회의에 참석하는 사항 명시
- 위원회 요구사항으로 중기재정계획 반영 또는 특정액수 이상 사업비는 결정 전에 위원회 전체회의의 논의를 한번 더 거치도록 한다든지, 거부된 사업에 대한 구청장의 설명을 요구한다든지 하는 사항을 명시

• 주민참여 범위를 명시하자

- 후속조치 방안은 어느 정도 효력이 있는 사항인지 중기재정계획에 까지 반영가능한지, 예산 참여 범위도 논의가 필요함
- 일단 모든 제안을 접수하되 분야는 관에서 구분하고, 올해 중점분야가 아닌 나머지 가능한 제안은 장기추진과제로 실행하겠다는 의지를 명시
- 리더의 역할과 목표의식 명시하고, 2012년도 필수경비, 가용자원, 경직성 경비 등을 어느정도 예측하여 실제 가용자원 범위에서 논의

3) 주민참여예산 시행분야 관련

• [주민 참여예산 시행분야 검토안]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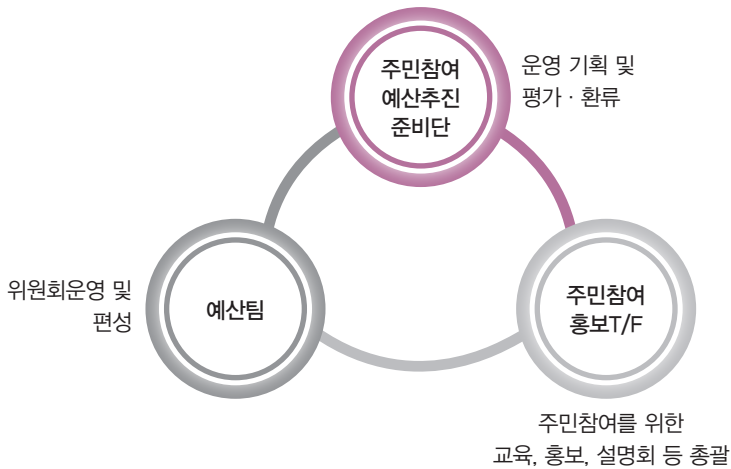
- 편성단계 : 복지분야중 1~2개(청소년복지, 장애인복지, 보육지원, 노인복지 등), 도시재생사업(마을만들기) 등
- 집행단계 : 포괄비성격의 사업중 1~2개 분야 선정
- 시범 시행분야 선정 : 교육경비보조금, 동소규모편익사업, 여성복지 증진
 - 자유롭게 제안을 받되, 중점분야를 정하고 제안 수준별로 처리 방침을 설정
 - 좋은 제안이 예산에 반영되는 시범사례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

〈최초 분과 구성방안〉

시범 시행분야	2011 예산 편성액	운영계획
교육경비 보조금	5,000백만원 (예산액의 20%)	· 예산액의 80%(40억)는 기 지원절차에 따라 각 급학교에 지원 · 예산액의 20%(10억)는 지역주민, 학부모 의견 및 주민참여예산 추진절차에 따라 사업우선순위 선정
동 소규모편의 사업	900백만원 (토목550, 하수250, 공원100)	· 온/오프라인 등 주민참여를 통한 동별 수요조사 · 소관 분과위원회 검토 및 우선순위 선정 · 전체위원회에서 사업 우선순위 및 예산액 결정 ※ 동별 반영 한도액 설정 : 50백만원
여성 및 복지 예산 사업	135백만원 (여성교실 78, 여성관련 행사 등 57)	· 여성단체 등 참여를 통한 사업제안 접수 · 소관 분과위원회 검토 및 우선순위 선정 · 전체위원회에서 사업 우선순위 및 예산액 결정

4) 주민참여 활성화 방안 관련

〈성북구 주민참여홍보 T/F 팀 구성 · 운영(2011)〉



• 주민참여 방안을 마련

- ①참여예산위원으로 참여, ②의견서제출, ③온라인 제안, ④예산학교 교육참여, ⑤구의원 또는 지역활동가 입장에서 의견을 수렴하는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위원들에게 의견 수렴할 수 있는 면담표와 양식을 마련하여 제공
- 일반주민이 선택 가능하고 답변 가능한 수준의 설문을 준비
- 참여방법을 온라인/오프라인으로 나누고, 의견수렴 방법을 준비하고, 적극참여자와 일반주민 등 행위주체별 주민참여자의 구체적인 양태와 참여방안, 의사결정방식을 구체적으로 명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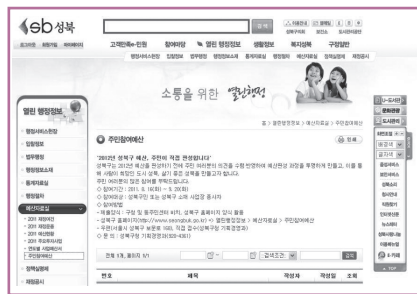
• 권역별 설명회시 일반주민 참여확대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 제도의 성공을 위해서는 참석자의 20~30%는 새로운 주민이 참여토록 해야 함
- 토론을 통해 지역의 예산과 정책을 결정할 수 있다는 학습 효과를 얻기 위하여 규모를 줄이고, 지역활동가의 참여를 유도
- 주민문의에 응대하려면 직원교육이 선행

[주민의견 수렴안]

(1) 온라인(ON-LINE) : SNS(소셜네트워크)를 통한 주민참여

- 트위터, 페이스북, 구청홈페이지 등 인터넷이 친숙한 구민을 위한 온라인 참여 활성화
- 성북구 홈페이지내 「우리동네 참여예산」(가칭) 별도 메뉴 구축 후 성북구 관내 업체, 학교 등 각종 사이트 링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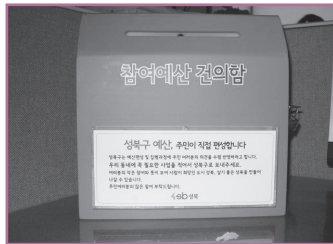
◀ 성북구청 홈페이지의「주민참여예산 코너」의 의견접수란

(2) 오프라인(OFF-LIN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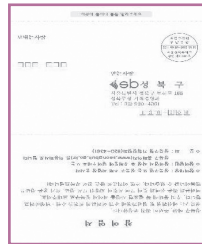
① 주민 참여예산 건의함 설치·운영

- 명칭 : ‘참여우체통’, ‘갯간지기우체통’, ‘성북갯간지기’ 등 (가칭)
- 설치장소 : 구청 · 보건소 · 주민센터 출입문, 종합복지관, 아파트 관리사무소, 구민체육관, 도서관 등
- 운영목적 : 인터넷 등 온라인 참여에 익숙하지 않는 주민들의 의견 수렴
- 운영방법
 - 건의함에 건의내용이 포함된 설문지 비치
 - 내용 : 분야별 투자순위와 예산반영 건의 사업 등 의견을 수시로 써낼 수 있도록 건의함을 곳곳에 설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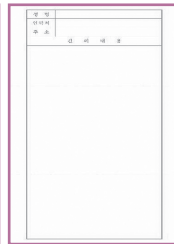
- 제안된 주민의견에 대해서는 수시로 분석하여 해당 분과위원회별로 검토·반영



▲ 성북구가 주민센터 및 공공기관, 복지관 등 36개소에 설치한 「참여예산건의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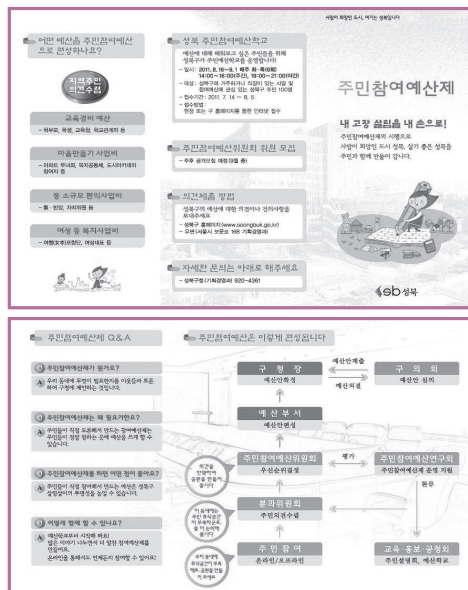


▲ '성북소리'에 동봉한 의견접수 엽서로, 참여예산건의함보다 이 엽서를 통해 많은 의견이 제출되었 다.



② 구의원 · 지역 활동을 통한 의견수렴

- 일반주민의 의견수렴이 가능한 면담표와 양식을 마련하여 제공
- 처리절차 : 제안된 주민의견을 해당 분과위원회별로 검토·반영



▲ 성북구가 작성한 주민참여예산 홍보 리플렛

5)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분과위원회 구성 관련

[협의내용]

-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 · 운영
 - 인원 : 40명(위촉직 34명, 당연직 6명)
 - 조직 : 위원장 ·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간사는 기획경영과장
 - 위촉직 선정
 - 동별 1명씩 공개모집 : 20명 (복수인원 경합 시 공개추첨)
 - 전문가 위촉 : 14명 (예산학교출신(9), 대학교수 등 관계전문가(5))
 - 구성 추진일정
 - 동별 공개모집 : 2011.9. 1(목) ~ 9. 9(금)
 - 추첨 및 발표 : 2011.9.16(금)
 - 위촉장 수여 : 2011.9.13(수) 14:00 (위원 사전교육시)
 - 기능 : 2012 주민참여예산 시범분야홍보 및 주민의견수렴, 분야별 주민의견에 대한 반영 우선순위 결정
- 분과위원회 설치 · 운영
 - 인원 : 위원장 포함 10명 내외
 - 조직 :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 호선, 간사는 분과위원회 소관 업무 선임부서 주무(실무)팀장
 - 구성 : 공개모집 위원은 희망분야로 위촉하고 분야별 전문가등 분산 위촉
 - 구성시기 : 참여예산위원 워크숍 (9.23, 9.29 ~ 9.30) 개최 후
 - 설치분야 : 복지보건(여성 · 청소년복지 증진), 도시관리(마을만들기 사업), 교육문화(교육지원 및 평생학습), 주민불편해소 (동 소규모편익사업 시행)
 - 기능 : 2012 시범운영분야에 대한 주민의견 및 제안 등 수렴(지역회의 역할), 소관 시범운영분야 예산안 우선순위 결정



주민참여예산제 주민설명회

주민참여예산제의 핵심은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참여를 통한 변화이다. 성북구는 2011년 주민참여예산제를 시작하며 성북구 주민들에게 새로운 제도를 홍보하고 알리기 위해 많은 공을 기울였는데, 그 대표적인 사업이 주민설명회이다. 성북구의 주민설명회는 7월 14일부터 8월 31일까지 성북구 곳곳에서 진행되었고, 1,480명의 주민들이 참석해 1,000여건의 주민의견을 제출했다. 그 과정에 권역별, 직능별로 참석자가 중복되거나 단체와 개인의 민원을 제기한 한계를 보이기도 했지만, 주민설명회에 참석한 주민들 다수가 주민참여예산학교에 참여하는 연결통로가 되었고 주민참여예산위원으로 활동하는 첫 단계가 되었다는 점에서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참여예산제 운용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

특히 13회에 걸친 주민설명회에 구청장이 직접 참여해 주민참여예산제를 홍보하고 주민들이 현장에서 제안하는 다양한 의견과 정책제안을 수렴한 것은 다른 자치단체에 소개할 만하다. 구청장의 적극적인 의지는 주민참여예산제 성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선결 조건이다. 이에 성북구 주민설명회의 개최 결과와 평가를 정리하는 것은 의미있는 작업이라고 본다.

:: 주민참여예산제 권역별 설명회 개최 결과

1) 권역별 설명회 개요

- 설명회명** : “성북구 예산, 주민이 직접 편성합니다”
- 주최/주관** : 성북구 / 희망제작소
- 참여대상** : 각 권역별 주민자치위원, 통·반장 및 예산에 관심 있는 주민(총 4회, 약 550여 명)
- 개최일정**

구분	대상동	일시	장소	참석인원	비고
1회 (1권역)	성북동, 삼선동, 동선동, 돈암2동, 안암동, 보문동	7.14(목) 16:00	성북동주민센터 (5층)	100명	
2회 (2권역)	정릉1동, 정릉2동, 정릉3동, 정릉4동, 길음1동	7.18(월) 14:00	길음1동주민센터 (4층)	150명	
3회 (3권역)	돈암1동, 길음2동, 종암동, 월곡1동, 월곡2동	7.21(목) 14:00	종암동주민센터 (3층)	140명	
4회 (4권역)	장위1동, 장위2동, 장위3동, 석관동	7.22(금) 10:00	장위1동주민센터 (3층)	160명	

■ 주요 진행내용

- 브라질 사례 등 동영상 상영과 구정현실, 예산상황 설명
- 정책·예산의 기본내용, 참여예산제 운영계획, 성북구 예산개요와 주요 현안 설명 등
- 설문조사 실시 : 예산편성 시 중점 사업분야 선정 및 우선 재정지원 필요 사업 등
- 성북구 주민참여예산제 추진일정 소개

■ 진행순서

- 영상물 상영(13'), 개회 및 국민의례(3') ————— 사회자
- 참여예산제 개요 및 이해 강의(20') ————— 강사
- 구청장 인사 및 2012년 예산편성방향 설명(5') — 구청장
- 건의사항 청취 및 질의응답(30') ————— 구청장
- 폐회 및 설문조사(5') ————— 사회자



박원순 변호사의 강의 모습
(제1권역_성북동주민센터)



주민들의 질의에 응답을 하고 있는 구청장
(제1권역_성북동주민센터)



행사 시작의 환영사를 하고 있는 구청장
(제1권역_성북동주민센터)



성북구의 참여예산제를 설명하는 모습
(제1권역_성북동주민센터)

2) 행사결과 및 추진성과

■ 권역별 주민설명회 총 4회 개최, 550여명 참석

- 박원순, 송창석 강사 등 참여예산제에 대한 내용 총 4회 강의

- 질의응답 및 설문조사를 통해 약 300건의 주민 의견수렴
- 주민참여예산학교 참여 희망자 40여명 신청서 접수

■ 주요 질의응답 내용

- ① 주민들이 참여예산제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1회차)
 -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과 예산학교 수료자를 주축으로 설명회와 같은 방식으로 지역회의를 진행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설문·제안·토론회 등을 통해 주민 참여 활성화
- ② 각 동별로 차별성이 큰 의견에 대해 어떻게 예산을 배분할 것인지?(1회차)
 - 제한된 예산을 각 동의 요구에 따라 분배하는 것은 주민이 중심이 되어 충분한 토의를 통해서 합의도출이 가능하며, 주민들이야말로 더 옳은 결정을 내릴 수 있음.
- ③ 기초생활수급권의 경직성으로 필요한 사람이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있는데 해결방법이 있는지? 또 봄마다 각 동에서 꽃심기를 하는데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음.(1회차)
 - 기초생활수급권 문제는 수차례 법 개정을 요구했으나 쉽지 않음. 우리 구에서는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동별 사회복지협의회를 운영하고, 성과가 일부 있음. 꽃심기와 같은 사례는 참여예산제를 통해 주민이 함께 해결할 수 있으며, 이러한 토론, 의견개진을 통해 일상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시정되는 과정이 중요함
- ④ 정릉3동 주민센터 청사개선 요청(2회차)
 - 이러한 문제는 이후 지역회의 등에서 적극적으로 논의하여 반

영토록 하고, 주민참여예산 우체통, 참여예산학교와 온라인 등을 통해서도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⑤ 주민 의견이 반영되지 않을 경우 회의를 통해 견제할 수 있는지?

(3회차)

- 예산편성은 구청장의 권리로 의견을 반영하지 않았다고 법적으로 처벌받지는 않으나, 주민들의 의견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반영할 것임

⑥ 송곡초등학교의 등·하교 길이 위험하니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다자녀 가구의 경우 소득에 따라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서비스도 축소되고 있음(3회차)

- 어린이 통학안전은 내년 최우선 과제로 어린이, 노인, 부녀자 등 사회적 약자들이 살기 좋은 성북을 만들려고 하고 있음. 다자녀 서비스 건은 확인해보겠음

⑦ 공동주택, 마을가꾸기 사업 예산 지원 요청(3회차)

- 공동주택 입주자회의, 부녀회 등과 의논하여 사업을 시행할 예정임. 올해 1억 원 가량을 책 읽어주기 프로그램, 작은 도서관 사업 등에 지원하고 있음

■ 추진성과

- 참여예산제 홍보 및 예산에 대한 주민 이해도 향상
- 해외사례에 대한 설명과 전문가 강의를 통해 예산제도에 대한 주민인식제고
- 우리구 예산 현황, 편성 과정 및 행정 프로세스 전반에 대해 주민에게 알리는 기회 마련

- 각 동 리더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여 타 주민에게 전파 · 확산 가능성 확보
- 참여예산제의 본격적인 실행에 대비한 주민역량 강화
 - 예산과 구정 전반에 대한 주민 의견수렴
- 설문조사 실시로 중점 사업분야 등 2012년 예산편성 방향에 기준 제시
- 건의사항 청취, 질의응답 등을 통해 주민의 목소리를 현장에서 직접 청취
 - 참여예산제 실행에 대한 구청장 의지 표명으로 추진력 확보

■ 미흡 및 개선사항

- 설명회장 안내 및 장비 부족으로 행사 준비에 어려움
- 설명회 개최 장소 내 승강기 등 주민동선에 따른 설명회장 안내 미비
- 마이크, 음향선 등 동 주민센터의 장비 부족현상 발생
 - 구청장과 의 질의응답 시간이 주민들의 민원 제언의 장으로 바뀜
- 설명회 전반적으로 예산 관련 질의 · 건의보다 민원성 발언이 다수를 차지
- 기타사항
 - 진행된 강의가 주민의 눈높이에 다소 맞지 않아 강의 시 주민들의 주의력이 분산되는 경우 발생
 - 설명회 시작 전 상영된 동영상의 경우 그 시간동안 주민들이 인사를 하거나, 아예 늦게 도착하여 시청하기에 산만한 분위기가 나타남

■ 향후 발전방향

- 직능별 주민설명회, 참여예산학교 등을 통해 예산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 진행
 -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학부모단체 등 직능별 관계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진행하여 분야별 중점사항에 대한 논의 기회 마련
 - 현재는 민원성 의견들이 주를 이루나 향후 지역에 꼭 필요한 사업을 개발 할 수 있도록 예산학교 등 주민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
- 향후 지역회의 등에서 활발한 의견개진이 가능하도록 토론문화 배양
 - 주민 주도의 토론회 형식으로 지역회의 진행
 - 지역 현안사항에 대해 수시로 토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주민 스스로 문제를 찾고, 해결책을 모색토록 유도
- 진행장비 및 강의자료 보강
 - 동 주민센터 등 설명회장 장비 확충
 - 주민 눈높이에 맞는 자료 및 강의준비로 집중력과 내용 전달력 제고



성북구 참여예산제도를 경청하고 있는 종암동 주민들 (제3권역_종암동주민센터)



해외 주민참여예산제 사례를 소개하고 있는 송창석 강사(제4권역_장위1동주민센터)

3) 주민설명회 홍보 및 성과

- 온라인홍보 : 구 홈페이지, 네이버 카페 등 게시
- 오프라인 홍보 : 보도자료 제공, 안내문 부착

주민참여예산 설명회 개최 안내 "성북구 예산, 주민이 직접 편성합니다"			
구분	대상/동	일시	장소
1회 (1반역)	성북, 성신, 동선 문암2, 안암, 보문동	7.14(목) 16:00	성북동 주민센터(5층)
2회 (2반역)	성북1, 성북2, 성북3 성북4, 길음1동	7.18(목) 14:00	길음1동 주민센터(4층)
3회 (3반역)	문암1, 길음2, 종암 일제1, 일제2동	7.21(목) 14:00	종암동 주민센터(3층)
4회 (4반역)	장위1, 장위2 장위3, 역삼동	7.22(금) 10:00	장위1동 주민센터(3층)

성북구청 홈페이지에서 홍보했던 주민설명회 화면

언론보도 실적(7.12)

■ 지면

- 7월 12일 : 서울경제, 아시아경제, 전국매일, 시민일보
시대일보, 신아일보, 아시아투데이, 우리일보
- 7월 14일 : 시정신문
- 7월 15일 : 서울신문

■ 인터넷 뉴스

- 7월 15일 : 뉴시스

■ 방송사

- 7월 15일 C&M(지역케이블방송)

서울신문

2011년 07월 15일 금요일 014면 공공정책

성북구, 주민참여예산제 설명회

예산학교 참가자 50명 모집

성북구가 예산 지출의 범위와 우선순위 등을 주민들이 결정하는 '주민참여예산제'를 올해 말 예산편성부터 반영하기 위해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는 한편 주민참여예산학교 교육 대상자를 모집한다 14일 밝혔다. 구는 내년 주민참여예산 규모를 전체 가용 재원의 약 50% (2011년 기준 약 100억원)로 계획하고 있다.

구체적인 분야는 ▲교육경비 보조금 ▲동 소규모 편익사업비 ▲여성기 행복한 성북구원 ▲마을만들기 사업 등으로 예산편성 과정에서 주민 참여가 보장되면 지방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우선 구는 자립적인 지역발전 전략을 연구하는 민간 연구소인 '희망제작소'와 함께 4개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한다. 14일 오후 4시 성북동 주민센터를 시작으로 18일 오후 2시 갑곶1동 주민센터, 21일 오후 2시 종암동 주민센터, 22일 오전 10시 장외1동 주민센터 등을 차례로 돈다.

설명회에는 희망제작소 상임이사인 박원순(55) 변호사 등이 강사로 나서 주민참여예산제도의 기본 내용과 이 제도를 세계 최초로 도입한 브라질 포르투 알레그시의 사례 등을 소개한다. 구는 구정 현실과 현안사항, 예산 개요,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계획 등을 설명하고 건의사항을 청취할 예정이다.

다이어 주민참여예산학교 참가자 50명도 8월 5일까지 구 홈페이지(www.seongbuk.go.kr)에서 모집한다. 기획경영과 920-4361, 문승기씨 symun@seoul.co.kr

서울경제

2011년 07월 12일 화요일 A29면 사회

성북구, 14일 주민참여 예산제 설명회

서울 성북구는 주민참여 예산제 시행을 준비하기 위해 자립적인 지역 발전 전략을 연구하는 희망제작소 주관으로 4개 권역별 주민설명회를 연다고 11일 밝혔다.

설명회는 14일 오후 4시 성북동 주민센터를 시작으로 길음1동 주민센터(18일 오후 2시), 종암동 주민센터(21일 오후 2시), 장외1동 주민센터(22일 오전 10시) 등에서 잇따라 열린다.

설명회에서는 주민참여 예산제도의 기본 내용과 이 제도를 세계 최초로 도입한 브라질 포르투 알레그시의 사례 등이 소개된다.

아시아경제

2011년 07월 12일 화요일 027면 사회

성북구, 주민참여예산제 속도 낸다

성북구(구청장 김영배)가 예산지출 범위와 우선순위 등을 주민들이 결정하는 '주민참여예산제'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나섰다.

민선 5기 중점과제이기도 한 주민참여예산제를 위해 구는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주민참여예산학교 교육대상자를 모집한다.

성북구는 내년 주민참여예산 규모를 전체 가용 재원의 약 50% (2011년 기준 약 100억 원)로 계획하고 있다.

구체적인 분야는 ▲교육경비 보

조금 ▲동 소규모 편익사업비 ▲여성기 행복한 성북구원 ▲마을만들기 사업 등으로 예산편성 과정에서 주민참여가 보장되면 지방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김영배 성북구청장은 "예산편성권이 주민에게 부여되면 지방재정운영의 공정성이 높아지고 민관협치가 활성화됨은 물론 지역에 대한 주민의 관심이 높아져 공동체성도 증대될 것"이라고 밝혔다.

우리일보

2011년 07월 12일 화요일 010면 지역종합

성북구, 주민참여예산제 준비 박차

주민참여예산 설명회 · 참가자 모집

성북구는 민관협력예산제를 위해 구는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주민참여예산학교 교육대상자를 모집한다.

구는 내년 주민참여예산 규모를 전체 가용 재원의 약 50% (2011년 기준 약 100억 원)로 계획하고 있다. 구체적인 분야는 교육경비 보조금, 동 소규모 편익사업비, 여성기 행복한 성북구원, 마을만들기 사업 등으로 예산편성 과정에서 주민참여가 보장되면 지방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 성북구는 자립적인 지역발전 전략을 연구하는 민간 연구소인 희망제작소의 주관으로 4개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한다.

14일 오후 4시 성북동 주민센터를 시작으로, 길음1동 주민센터(18일 오후 2시), 종암동 주민센터(21일 오후 2시), 장외1동 주민센터(22일 오전 10시) 등 4곳에서 잇따라 주민참여예산제 시행을 위한 설명회가 열린다.

설명회에는 희망제작소 상임이사인 박원순 변호사 등이 강사로 나서 주민참여예산제도의 기본 내용과 이 제도를 세계 최초로 도입한 브라질 포르투 알레그시(Porto Alegre) 시의 사례 등을 소개한다. 또 성북구는 구정현실과 현안사항, 예산개요,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 등을 설명하고 건의사항을 청취한다.

아울러 중점 예산편성사업 및 우선 지원대상 사업 등에 관한 설문조사도 실시한다. 예산에 관심 있는 주민이면 예약 없이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다. /송준필 기자

新日報

2011년 07월 12일 화요일 005면 메트로 / 서울

‘주민참여예산제’ 준비 ‘박차’

성북, 설명회 개최·참여예산학교 참가자 모집

성북구는 예산지출의 범위와 우선순위를 주민들이 결정하는 '주민참여예산제'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민선 5기 중점과제이기도 한 주민참여예산제를 위해 구는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주민참여예산학교 교육대상자를 모집한다.

구는 내년 주민참여예산 규모를 전체 가용 재원의 약 50% (2011년 기준 약 100억 원)로 계획하고 있다.

구체적인 분야는 교육경비 보조금, 동 소규모 편익사업비, 여성기 행복한 성북구원, 마을만들기 사업 등으로 예산편성 과정에서 주민참여가 보장되면 지방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구는 자립적인 지역발전 전략을 연구하는 민간 연구소인 희망제작소의 주관으로 4개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한다.

14일 성북동 주민센터를 시작으로, 길음1동 주민센터(18일), 종암

동 주민센터(21일), 장외1동 주민센터(22일) 등 4곳에서 개최한다.

또한 성북구 주민참여예산학교는 8월 16일에서 9월 1일까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총 12회에 걸쳐 구청 내 성북아트홀에서 연다.

구는 주민참여예산에 관심 있는 성북구민 50명을 14일부터 8월 5일까지 구청 홈페이지(www.seongbuk.go.kr) 구청안내란을 통해 모집한다.

김영배 구청장은 "지금까지는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지역주민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하기에 미흡했고 전심성 및 민기위주 예산편성의 개선안이 있어 왔지만, 예산편성권이 주민에게 부여되면 지방재정운영의 공정성이 높아지고 민·관협치가 활성화됨은 물론, 지역에 대한 주민의 관심이 높아져 공동체성도 증대될 것"이라고 밝혔다.

연재홍기자
jwyoung@shinilbo.co.kr

전국매일

2011년 07월 12일 화요일 002면 행정

‘주민참여예산제’ 도입준비 박차

서울시 성북구(구청장 김영배)가 예산 지출의 범위와 우선순위 등을 주민들이 결정하는 '주민참여예산제' 도입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민선5기 중점과제이기도 한 주민참여예산제를 위해 구는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주민참여예산학교 교육대상자를 모집한다.

성북구는 내년 주민참여예산 규모를 전체 가용 재원의 약 50% (2011년 기준 약 100억 원)로 계획하고 있다.

구체적인 분야는 ▲교육경비 보조금 ▲동 소규모 편익사업비 ▲여성기 행복한 성북구원 ▲마을만들기 사업 등으로 예산 편성과정에서 주민참여가 보장되면 지방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대해 김영배 성북구청장은 "예산편성권이 주민에게 부여됨으로써 지방재정 운영의 공정성이 높아지고 민·관 협치가 활성화됨은 물론 지역에 대한 주민의 관심이 높아져 공동체성도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박창복기자 <parkch@jeonmae.co.kr>

市政新聞

2011년 07월 14일 목요일 004면 자치구

주민참여예산제 준비 박차

성북구, 주민설명회

성북구(구청장 김영배)가 '주민참여예산제'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구는 민선 5기 중점과제이기도 한 주민참여예산제를 위해 주민설명회를 열고, 교육대상자도 모집한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예산지출 범위와 우선순위를 주민들이 직접 결정하는 제도로, 구는 내년 주민참여예산 규모를 전체 가용 재원의 약 50% (2011년 기준 약 100억 원)로 계획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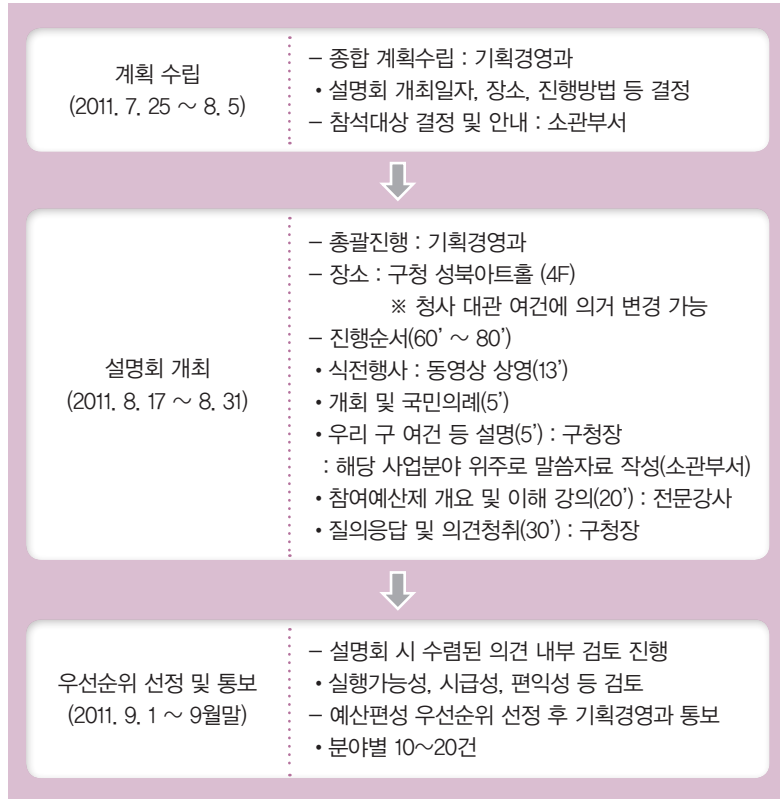
구체적 참여분야는 교육경비 보조금, 동 소규모 편익사업비, 여성기 행복한 성북구원, 마을만들기 사업 등으로 구성된다.

주민참여예산제 시행을 위한 설명회는 △14일 오후 4시 성북동 주민센터 △18일 오후 2시 길음1동 주민센터 △21일 오후 2시 종암동 주민센터 △22일 오전 10시 장외1동 주민센터 등 4곳에서 열린다.

또 주민참여예산학교는 8월 16일부터 9월 1일까지 구청내 성북아트홀에서 매주 화·목요일 열린다.

:: 주민참여예산제 직능별 설명회 개최 결과

■ 직능별 설명회 흐름도



1) 직능별 설명회 개요

- **설명회명** : “성북구 예산, 주민이 직접 편성합니다” 주민참여 예산제 설명회

■ **주최/주관** : 성북구 / 희망제작소

■ **참여대상** : 학부모 단체, 아파트 입주자 대표, 사회복지시설 관
계자 등 각 분야별 대표 및 단체원 (총 9회, 약 930
여 명)

■ **개최일정** : 2011. 8. 17(수) ~ 8. 31(수), 직능별 1회(총 9회)

■ **장소** : 성북아트홀 (구청 4층)

■ **진행순서**

- 영상물 상영(13'), 개회 및 국민의례(3') ————— 사회자
- 참여예산제 개요 및 이해 강의(20') ————— 강사
- 구청장 인사 및 2012년 예산편성방향 설명(5') ————— 구청장
- 건의사항 청취 및 질의응답(30') ————— 구청장
- 폐회 및 설문조사(5') ————— 사회자

■ **주요 진행내용**

- 브라질 사례 등 동영상 상영과 구정현실, 예산상황 설명
- 정책 · 예산의 기본내용, 참여예산제 운영계획, 성북구 예산개
요와 주요 현안 설명 등
- 설문조사 실시 : 예산편성 시 중점 사업분야 선정 및 우선 재
정지원 필요 사업 등

■ 분야별 단체 및 주관 부서

분야(일시)	참여단체	소관부서	참석인원
사회단체 분야 8.17(수) 10:00	사회단체 회원 (새마을협의회, 바르게살기운동 등)	자치행정과	80명
공동주택 분야 8.17(수) 15:00	아파트 입주자대표 등	주택관리과	100명
사회복지 분야 8.18(목) 10:00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사회복지시설 관계자 등	복지정책과	100명
장애인·노인복지 분야 8.19(금) 16:00	장애인 단체, 노인복지시설 관계자 등	노령사회 복지과	100명
여성·아동 분야 8.22(월) 14:00	구립·민간 어린이집 관계자, 여성단체, 청소년 단체 등	가정복지과	100명
문화예술체육 분야 8.23(화) 14:00	종교단체, 예술단체, 생활체육단체	문화체육과	70명
교육 분야 8.26(금) 14:00	학교 관계자 및 학부모단체	교육지원 담당관	140명
부동산 관련 분야 8.29(월) 14:00	부동산중개업협회	지적과	100명
보건위생 분야 8.31(수) 10:00	식품접객업소, 이·미용업, 목욕장업 등 의사, 약사협회 관계자 등	보건위생과	140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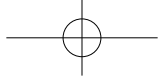
2) 행사결과 및 추진성과

■ 직능별 주민설명회 총 9회 개최, 930여명 참석

- 전문가(송창석, 최인욱 등)의 참여예산제에 대한 내용 총 9회 강의
- 질의응답 및 설문조사를 통해 약 800건의 주민 의견수렴

■ 주요 질의응답 내용

- ① 공동주택의 정화조, 음식물쓰레기 처리업체는 공개경쟁 입찰로 선정하지 말고,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가 구에서 추천한 2~3개 업체 중 최선택 · 계약 할 수 있도록 개선 요망 (공동주택 분야)
 - 청소체계는 구청장협의회를 통해 구 직영에서 대행체제로 전환하는 청소행정 체계개선 용역이 서울시에서 진행되고 있어 결과를 기다리는 중임. 음식물 쓰레기는 국제협약에 따라 2013년부터 침출수 해양투기가 금지되어 우리 구에서도 현재 시범사업이 진행 중에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논의가 필요함.
- ② 토목 공사 등을 자제하더라도 도로정비 등 필요한 공사는 진행해야 함 (장애인 · 노인복지 분야)
 - 앞으로 장애인 · 어린이와 같은 약자를 위한 도로, 공원, 지하철 등 공공시설은 우선적으로 개선할 예정이며,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도로 건설도 계획 중임.
- ③ 길음 뉴타운 내 어린이 시설 확충 (여성 · 아동복지 분야)
 - 어린이 및 주민편의 시설 확충을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 중에 있음. 길음1동 주민센터 분소는 도서관 시설로 사용할 예정이고, 길음중학교 공사가 완료되면 학교와 협의하여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음. 뉴타운 내 학교는 뉴타운 기본계획 변경을 통해 빠른 시일 내에 유치토록 하겠음.
- ④ 현재 체육관 등 생활체육인이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이 매우 부족하니, 예산에 반영해주기 바람 (문화예술체육 분야)
 - 주민참여예산제의 본질이 바로 이러한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예산에 적극 반영하는데 있음. 이같은 요구사항들을 구청홈페이지 및 해당부서에 자유로이 의견개진 바람.

⑤ 월곡잔디구장은 클럽축구 이용자가 많아 일반인이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니, 일반인도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 요청 (교육 분야)

－ 이용에 어려움이 있다는 건 알고 있으나 이미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의 반대로 운동장을 줄일 수는 없고, 일반인들 운동공간을 넓히는 것도 어려움이 있음. 또한 도시관리공단에서 위탁 운영을 하다보니 수익을 따질 수 밖에 없는 실정임. 다시 한번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 그 외 다른 장소에 운동공간을 넓히도록 노력 하겠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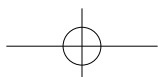
⑥ 송곡초교 앞 대로변 통학로에 빼대만 남은 건물이 있는데 아이들 등하 교길에 위험하니 안전조치 요망 (교육 분야)

－ 도로확장을 하면서 건물이 잘려나간 후 건물주가 다시 신축하는 과정에서 불법증축 등 분쟁이 있었음. 일반 사유지라 구청에서 강제로 집행할 수 없고, 구에서 매입하는 것도 건물주가 거부하고 있음.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처리토록 노력하겠음

⑦ 성북구 무상급식은 어떻게 시행되고 있는지? (부동산 관련 분야)

－ 현재 초등학교 4개 학년이 진행되고 있고 1개 학년은 구청, 3개 학년은 교육청에서 지원하고 있음. 2개 학년은 서울시에 편성되어 있어, 보궐선거가 끝나야 최종결정이 가능하지만 공약사항은 지켜야 한다고 생각함. 주민참여예산제를 통해 합리적으로 실시하겠음.

⑧ 불법 광고지(벽보)는 단속을 해도 벌금을 내고 계속 붙이므로, 지역에 광고지 게재 공간을 마련해주고, 그 외 다른 곳에 붙일 경우 단호한 처



별 요망 (보건위생 분야)

- 전단지를 통한 광고는 확실한 효과가 있어 단속에도 불구하고 근절되지 않고 있음. 지역 주민들과 의논해서 광고지를 붙일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다른 곳에 붙이면 제거하는 방식으로 추진토록 하겠음
- ⑨ 일반 의약품을 슈퍼에서도 판매하도록 한다는데 위험한 발상임.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보건소에서 약국을 개설하여 의약 공백시간인 밤 10시~아침 6시까지 운영하면 약사회에서도 무료로 봉사할 준비가 되어 있음 (보건위생 분야)
- 계속해서 근무할 약사선생님을 찾아 보기 힘들어 생각보다 쉽지 않음. 서로 뜻이 맞아야 할 수 있는 일이나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음.

3) 행사 종합 평가

■ 추진성과

- 참여예산제의 본격적인 실행에 대비한 주민역량 강화
- 해외 사례(브라질 포르투 알레그레 市)에 대한 동영상 상영과 전문가 강의를 통해 예산제도에 대한 주민 이해도 향상
- 직능별 예산 현황, 구 예산 편성 과정 및 행정 프로세스 전반에 대한 설명으로 예산편성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초 마련
- 각 직능별 사업 예산과 당면 현안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 진행
-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학부모단체 등 직능별 관계자를 대

상으로 설명회를 진행하여 분야별 중점사항에 대한 논의 기회 마련

- 각 직능별 대표자 및 활동가 등의 설명회 참석을 통해 타 단체 원에 전파·확산 가능성 확보
- 예산과 구정 전반에 대한 주민 의견수렴
- 설문조사를 통해 중점 사업분야 등 2012년 예산편성 기준 제시
- 질의응답 및 건의사항 청취 등 주민의 목소리를 듣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하여 활발한 의견 개진 가능

■ 미흡 및 개선사항

- 권역별 설명회를 비롯하여 설명회가 장기간 동안 여러 차례 진행되어 참석 대상자가 중복되는 경우 발생
- 참석 대상임에도 아예 참석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 권역별 설명회에 비해 참석율 저조
- 설명회 전반적으로 구청장과의 질의응답 시 직능별 예산 관련 건의보다 민원성 질의가 대다수를 차지
- 기타사항
- 설명회가 낮에 진행되어 음식업, 이·미용업 종사자 등의 경우 생업으로 인해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음
- 집단민원으로 인해 구청장님이 설명회 장소에 참가하지 못하는 사례 발생
- 강의 중 예산 낭비사례를 들면서 특정 지역의 실명을 거론하여 민원 발생

■ 향후 발전방향

-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를 통해 실질적인 참여예산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 개발
- 낮 시간뿐 아니라 저녁 또는 주말 시간대에 지역회의 등을 개최하여 더 많은 주민들에게 참여 기회 확대
- 2012년 예산편성 방향 설정을 위한 설문조사 실시와 그 결과를 활용하여 주민의 뜻이 반영된 규정 운영

참여예산제 직능별 설명회 주요사진



주민참여예산제를 설명하는 송창석 강사
(공동주택 분야)



지역 어르신과 장애인 구민들을 대상으로
설명하고 있는 구청장
(장애인·노인복지 분야)



예산에 관해 질의하고 있는 주민의 모습
(여성·아동 분야)



지역 학부모들과 함께 한 설명회 모습
(교육 분야)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를 위한 설문조사

성북구는 7월 14일부터 8월 31일까지 진행된 권역별·직능별 주민설명회를 진행하며 동시에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의 구체적 목표는 구정 방향에 대한 주민 의견을 조사하여 2012년 예산편성 방향을 결정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것이었다. 성북구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업의 내용도 설문조사에 포함됐는데, 주민들이 평소 생각하던 의견이 자유롭게 개진되었다. 설문조사에는 각 권역별 주민자치위원, 통·반장, 학부모, 공동주택 대표, 이·미용업 종사자 등 총 1,031명이 참여했다. 설문조사 결과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 참여예산제 활성화를 위한 설문조사 결과

I 조사목적

- 구정 방향에 대한 주민 의견을 조사하여 2012년 예산편성 방향을 결정하는데 기초자료로 사용
- 성북구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업·시책 등에 대한 의견 수렴 및 건의사항 파악

II 조사개요

- 대상 : 참여예산제 권역별 · 직능별 설명회 참가자 등
 - 권역별 설명회 : 각 권역별 주민자치위원, 통 · 반장 등(264명, 26%)
 - 직능별 설명회 : 학부모단체, 이 · 미용업 종사자, 공동주택 대표 등 각 직능별 대표 및 단체원(767명, 74%)
- 방법 :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개별조사
- 표본 수 : 1,031명 (일부 항목 미응답자 포함)
- 실시기간 : 2011. 7. 14 ~ 8. 31(총 13회)

III 주요 조사내용

구분	조사항목
투자분야 및 분야별 사업	• 집중투자 분야 • 사회복지예산 증가에 대한 의견 • 교육분야의 중요 사업 • 사회복지분야의 중요 사업 • 여성복지분야의 중요 사업 • 문화체육분야의 중요 사업 • 청소환경분야의 중요 사업 • 보건위생분야의 중요 사업 • 지역경제분야의 중요 사업 • 도로 · 교통분야의 중요 사업 • 도시개발 및 주택분야의 중요 사업
구정에 대한 의견	• 필요사업 및 시책 • 세수증대 방안 • 예산절감 방안

IV 전체 응답자 특성

■ 성별

구 분	사례 수
남성	401명(39%)
여성	628명(61%)

■ 연령

(단위 : 명)

구 분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사례 수	-	28(3%)	82(8%)	245(23%)	367(36%)	306(30%)

■ 거주지

(단위 : 명)

구 분	성북동	삼선동	동선동	돈암1동	돈암2동	안암동	보문동
사례 수	45(4%)	59(6%)	36(4%)	47(5%)	50(5%)	23(2%)	35(3%)

구 분	정릉1동	정릉2동	정릉3동	정릉4동	길음1동	길음2동	종암동
사례 수	34(3%)	60(6%)	42(4%)	63(6%)	100(10%)	46(4%)	84(8%)

구 분	월곡1동	월곡2동	장위1동	장위2동	장위3동	석관동	기타
사례 수	79(8%)	52(5%)	30(3%)	31(3%)	28(3%)	41(4%)	40(4%)

■ 근무처

(단위 :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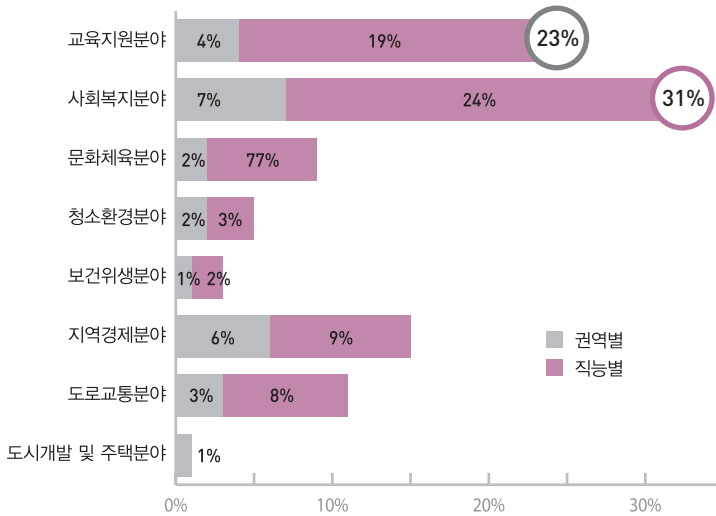
구 분	성북구 지역	성북구 이외 지역	기타(무직 등)
사례 수	626(61%)	116(11%)	21(2%)

V 조사결과 요약

■ 투자분야 및 분야별 사업에 대한 의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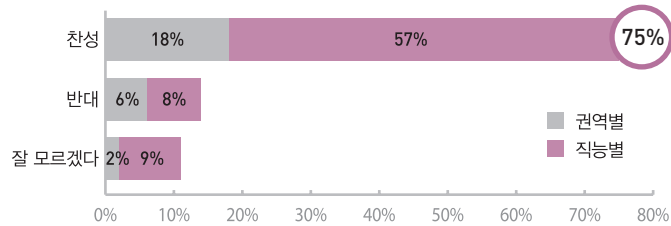
문1. 우리 구가 가장 관심을 두고 투자해야 할 분야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우리 구가 가장 관심을 가지고 투자해야 할 분야는 사회복지분야(31%, 327명)가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이 교육지원분야(23%, 238명), 지역경제분야(15%, 115명)순으로 나타남
- 권역별 설명회 참가자는 사회복지분야와 지역경제분야에 투자해야 한다는 응답이 많았던 반면 직능별 설명회 참가자는 사회복지분야와 교육지원분야에 투자해야 한다는 응답이 많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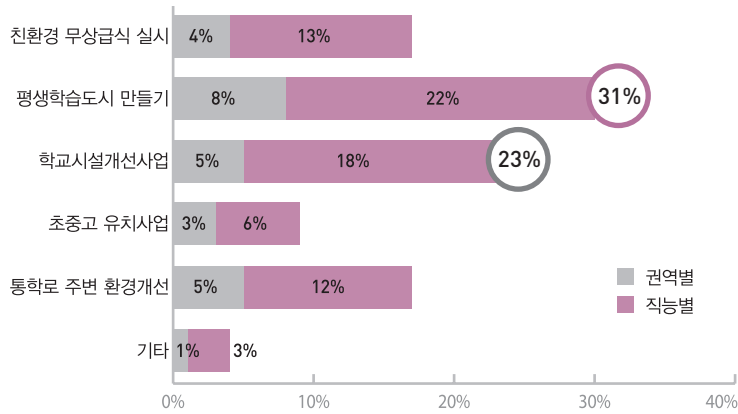
문2. 우리 구에서 금년도에 건설, 교통, 토목 예산을 30%줄이고, 저소득 지원 및 일자리 사업 등 복지예산을 크게 늘린 것에 대하여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우리 구에서 건설·토목 예산을 줄이고 복지예산을 늘린 것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주민(75%, 770명)이 다수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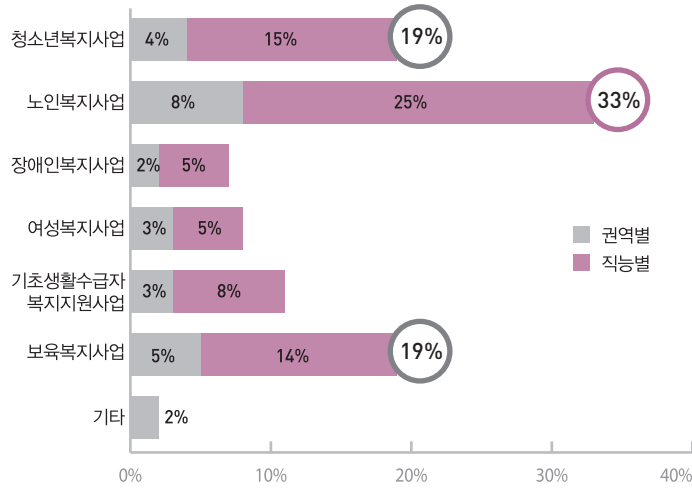
문3. 교육분야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투자해야 할 분야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교육분야에서 우선적으로 투자해야 할 사업으로 평생학습도시 만들기(31%, 312명)를 꼽은 주민이 가장 많았고, 다음은 학교 시설개선사업(23%, 231명)과 친환경 무상급식 실시(17%, 171명), 통학로 주변 환경개선(17%, 175명)으로 나타남
- 권역별 설명회 참가자는 평생학습도시 만들기, 학교시설개선사업, 통학로 주변 환경개선에 투자해야 한다고 응답한 주민이 많았고, 직능별 설명회 참가자는 평생학습도시 만들기과 학교시설개선사업, 친환경 무상급식 실시라고 응답한 주민이 많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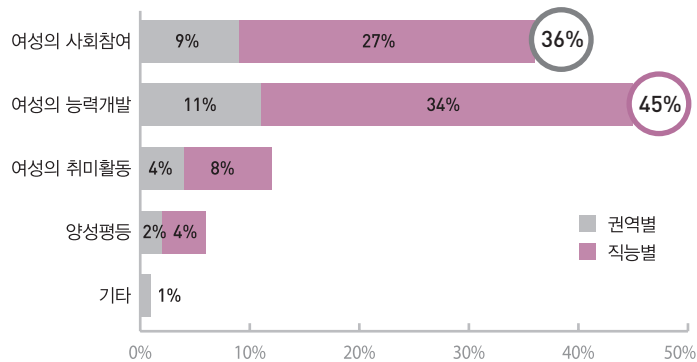
문4. 사회복지분야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투자해야 할 분야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사회복지분야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투자해야 할 사업으로는 노인복지사업(33%, 341명)이라고 응답한 주민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청소년복지사업(19%, 198명), 보육복지사업(19%, 196명) 순으로 나타남
- 권역별 설명회 참가 주민은 노인복지사업과 보육복지사업에 우선순위를 두었고, 직능별 설명회 참가 주민은 노인복지사업과 청소년복지사업에 우선순위를 두는 것으로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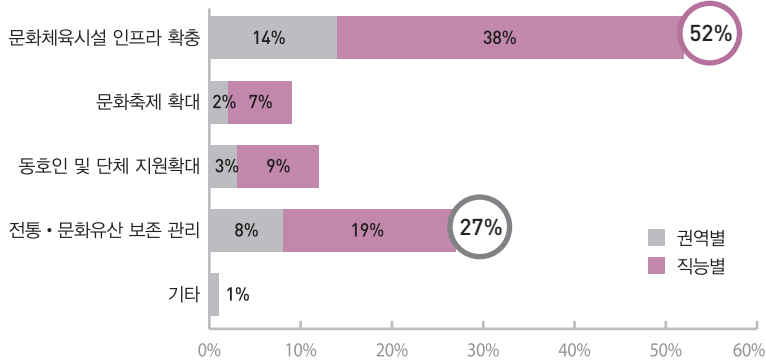
문5. 여성복지분야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투자해야 할 분야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여성복지분야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투자해야 할 사업으로는 여성 능력개발(45%, 462명)이라고 응답한 주민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여성 사회참여(36%, 369명), 여성 취미활동(12%, 127명), 양성평등(6%, 59명) 순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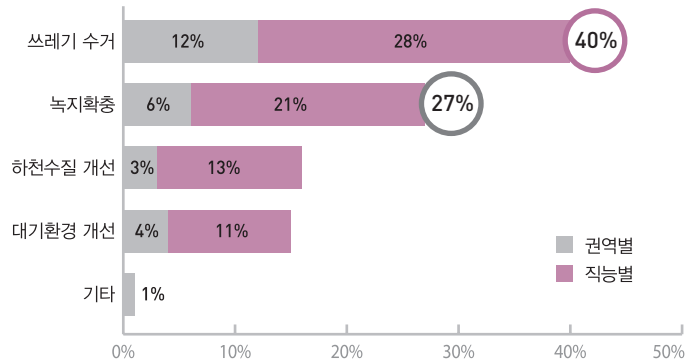
문6. 문화체육분야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투자해야 할 분야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문화체육분야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투자해야 할 사업은 문화체육시설 인프라 확충(52%, 537명)이라고 대답한 주민이 가장 많았고, 전통 문화유산 보존 관리(27%, 273명)와 동호인 및 단체 지원확대(12%, 118명)가 뒤를 이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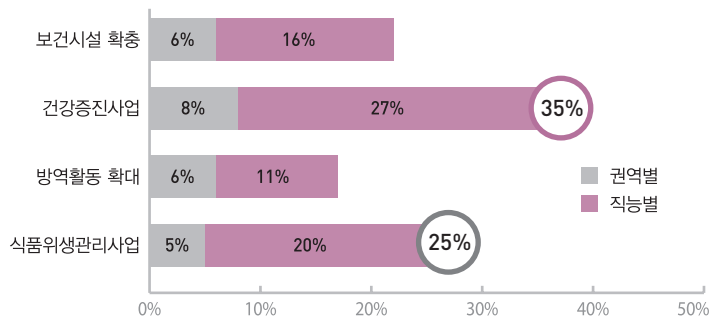
문7. 청소환경분야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투자해야 할 분야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청소환경분야에서 주민들이 가장 중시하는 사업은 쓰레기 수거(40%, 416명)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녹지확충(27%, 280명), 하천수질 개선(16%, 168명), 대기환경 개선(15%, 153)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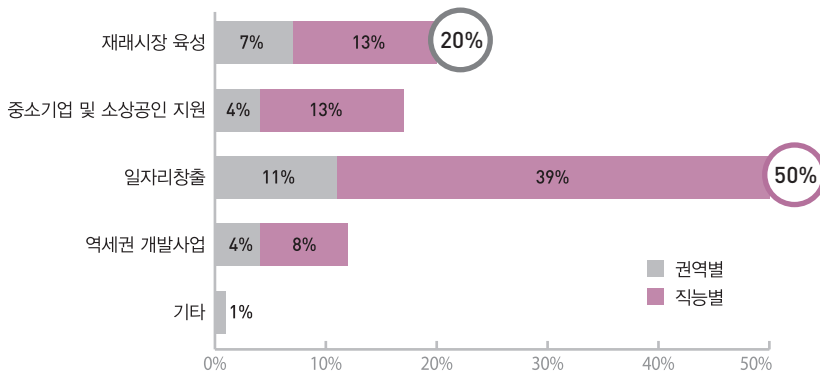
문8. 보건위생분야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투자해야 할 분야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보건위생분야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투자해야 할 사업은 건강증진사업(35%, 359명)이라는 대답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식품위생관리사업(25%, 265명)과 보건시설 확충(22%, 234명)이라는 응답이 많이 나타남
- 권역별 설명회 참가자는 건강증진사업과 보건시설 확충, 방역활동 확대에 투자해야 한다는 응답이 많았고, 직능별 설명회 참가자는 건강증진사업과 식품위생관리사업, 보건시설 확충에 투자해야 한다는 응답이 많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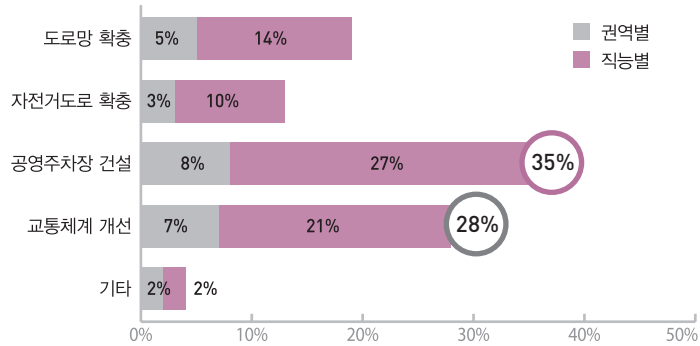
문9. 지역경제분야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투자해야 할 분야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지역경제분야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투자해야 할 사업은 일자리 창출(50%, 508명)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음
- 권역별 설명회 참가자는 직능별 설명회 참가자에 비해 재래시장 육성을 중요시하는 것으로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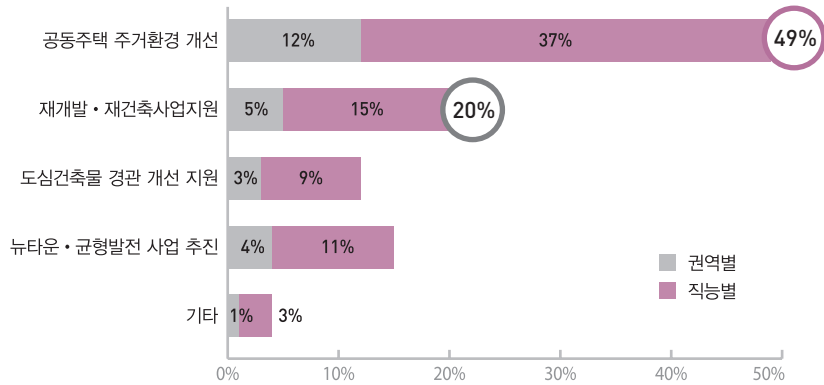
문10. 도로·교통분야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투자해야 할 분야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도로·교통분야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투자해야 할 사업은 공영주차장 건설(35%, 358명)이라는 대답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교통체계 개선(28%, 293명), 도로망 확충(19%, 196명) 등의 순으로 나타남



문11. 도시개발 및 주택분야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투자해야 할 분야는 무엇이라고 생각 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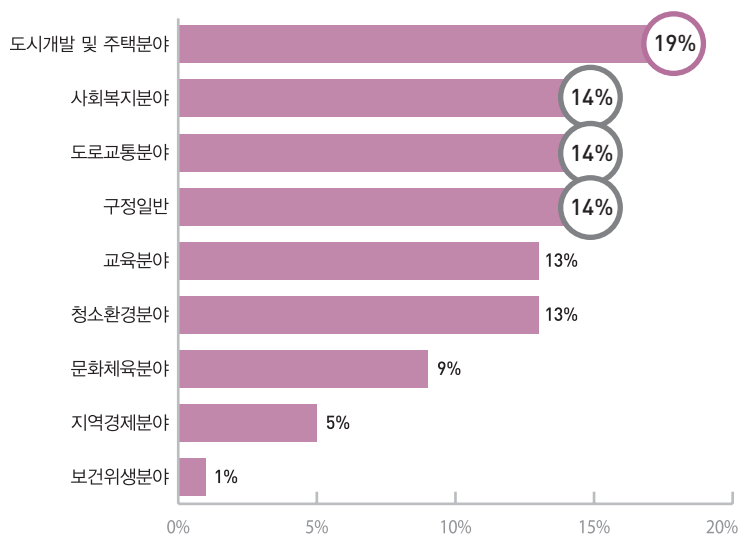
— 도시개발 및 주택분야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투자해야 할 사업은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49%, 502명)이 가장 많았고, 재개발·재건축사업 지원(20%, 206명)과 뉴타운·균형발전 사업 추진(15%, 160명)이라는 대답이 뒤를 이음



■ 구정에 대한 의견(자유기술)

문12. 성북구의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시책 및 세수증대 방안, 예산 절감 방안 등이 있으면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 성북구정에 대한 자유기술 의견은 전체 373건 중 도시개발 및 주택분야(19%, 65건)에 대한 의견이 가장 많았고, 사회복지분야(14% 52건), 도로교통분야(14%, 53건)와 함께 구정 일반(14%, 52건)에 대한 내용이 그 다음으로 많이 나옴



VI 향후 계획

- 2012년 예산 편성 및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의 사업 우선순위 결정에 있어 기초자료로 사용
- 우리구에 맞는 차별화된 지역발전 전략 수립의 참고자료로 활용

우리가 살고 있는 성북구! 내년에는 이렇게 바뀌주세요~~~

인정하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성북구를 서울에서 가장 살기 좋은 마을! 가장 매력적인 마을로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을이 가장 살기 좋은 마을이 될 수 있도록 내년도 구 예산편성에 적극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을에 살면서 꼭 필요했던 사업! 우리 동네는 꼭 이랬을 좋겠다는 의견! 이 종이 한 장에 보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참여와 뜻을 모아, 사람이 살기 좋은 성북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① 선생님께서 우리구가 가장 관심을 두고 투자해야 할 분야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교육지원분야 ② 사회복지분야 ③ 문화체육분야
④ 청소년복지분야 ⑤ 보건위생분야 ⑥ 지역경제분야
⑦ 도로교통분야 ⑧ 도시개발 및 주택분야
⑨ 기타 ()

② 우리구에서 금년도에 건설, 교통, 토목 예산을 30% 줄이고, 저소득 지원 및 일자리 사업 등 복지예산을 크게 늘린 것에 대하여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찬성 ② 반대 ③ 잘 모르겠다

⑦ 청소년경쟁분야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투자해야 할 분야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쓰레기 수거 ② 녹지확충 ③ 하천수질개선
④ 대기환경개선 ⑤ 기타 ()

⑧ 보건위생분야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투자해야 할 분야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보건시설확충 ② 건강증진사업 ③ 방역활동확대
④ 식품위생관리사업 ⑤ 기타 ()

⑨ 지역경제분야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투자해야 할 분야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재래시장육성 ②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③ 일자리창출
④ 역사권 개발사업 ⑤ 기타 ()

⑩ 도로, 교통분야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투자해야 할 분야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도로망 확충 ② 자전거도로 확충 ③ 공영주차장 건설
④ 교통체계 개선 ⑤ 기타 ()

⑪ 도시개발 및 주택분야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투자해야 할 분야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 ② 재개발·재건축사업 지원
③ 도심건축물 경관 개선 지원 ④ 뉴타운·균형발전 사업 추진
⑤ 기타 ()

③ 교육분야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투자해야 할 분야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친환경 무상급식 실시 ② 평생학습도시 만들기
③ 학교시설개선사업 ④ 초·중고 유치사업
⑤ 통학로 주변 환경개선 ⑥ 기타 ()

④ 사회복지분야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투자해야 할 분야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청소년복지사업 ② 노인 복지사업 ③ 장애인 복지사업
④ 여성복지사업 ⑤ 기초생활 수급자 복지지원사업
⑥ 보육 복지사업 ⑦ 기타 ()

⑤ 여성복지분야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투자해야 할 분야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여성의 사회참여 ② 여성의 능력개발
③ 여성의 취미활동 ④ 양성평등
⑤ 기타 ()

⑥ 문화체육분야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투자해야 할 분야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문화체육시설 인프라 확충 ② 문화축제 확대
③ 동호인 및 단체 지원 확대 ④ 전통 문화유산 보존 관리
⑤ 기타 ()

⑫ 성북구의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시책 및 세수증대 방안, 예산절감 방안 등이 있으면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자유기술 항목)

◆귀하의 성별은?	☐ 남	☐ 여
◆귀하의 연령대는?	☐ 10대 ☐ 20대 ☐ 30대 ☐ 40대 ☐ 50대 ☐ 60대 이상	
◆귀하의 거주지는?	☐ 성북동 ☐ 삼전동 ☐ 동선동 ☐ 돈암제1동 ☐ 돈암제2동 ☐ 안암동 ☐ 보문동 ☐ 정릉제1동 ☐ 정릉제2동 ☐ 정릉제3동 ☐ 정릉제4동 ☐ 김음제1동 ☐ 김음제2동 ☐ 종암동 ☐ 월곡제1동 ☐ 월곡제2동 ☐ 장위제1동 ☐ 장위제2동 ☐ 장위제3동 ☐ 석관동 ☐ 기타	
◆귀하의 직장은?	☐ 성북구지역	☐ 성북구 이외 지역 ☐ 기타

감사합니다

5

주민참여예산학교

성북구는 7월 31일까지 주민설명회를 완료하고 8월 16일부터 9월 1일까지 3주간 참여예산에 관심이 있는 성북구 주민을 대상으로 주민참여예산학교를 운영했다. 매주 화·목요일에 주·야간 2개 반을 운영해 직장인을 비롯한 성북구 주민들의 참여가 다른 지자체에 비해 높았다. 총 120여명이 신청해 6회 중 5회 이상 수업에 참석해 수료증을 받은 주민이 120명 중 87명(주간 44명, 야간 43명)으로 높은 교육참여율을 보였다. 매주 2회씩 3주간 총 12회 프로그램을 수료했고, 주민참여예산학교를 마친 수료생 중 9명이 2011년 주민참여예산위원으로 활동했다.

성북구 주민참여예산학교는 기초 교육과정으로 참여예산을 전반적으로 이해하고 운영 과정을 사전 학습할 수 있도록 준비되었다. 구체적으로 주민참여예산제의 의의와 가치, 국내외 우수사례 탐색을 통해 제도 전반을 이해했고 성북구 재정현황과 자원을 분석하면서 성북구 지역의 특성도 확인하였다. 전체 6회 강연의 마무리는 성북구 주민참여운영조례를 각 조문 별로 분석하는 것이었는데, 어려운 법률용어를 진지하게 학습하는 열의가 돋보였었다. 성북구 주민참여예산학교 수료생들은 현재도 동문회를 조직해 활동하는데, 성북구는 이렇게 자발적으로 생성된 지역 주체들이 다시 주민참여예산제를 홍보하고 주민참여를 독려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1. 주민참여예산학교 개요

1) 사업명 - 「2011 성북구 주민참여예산학교」

2) 운영계획

- 교육명 : 2011 성북구 참여예산학교
- 기간 : 2011. 08. 16~9. 1[매주 화·목 주(야)간]
주간반: 14:00~16:00, 야간반: 19:00~2100
- 장소 : 성북구청 아트홀(4층)
- 대상자 : 참여예산에 관심 있는 성북구 거주 주민 120여명
- 내용 :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이해와 참여활성화 워크숍
- 방법 : 전문가 강의 및 워크숍

3) 목적 - 참여예산에 대한 이해와 실질적인 참여예산제 운영을 위한 실천능력 배양

4) 주요내용

- 지방자치 및 참여예산제의 개요와 필요성 이해
- 주민참여예산제의 국내외 우수사례 학습
- 성북구 예산현황 분석 및 활용
- 지역현안(성북구내 마을대상)발굴 및 주민참여 사업제안
- 성북구 주민참여예산사업 우선순위 협의 및 조정
- 가상분과회의를 통한 참여예산제 실습

5) 주관 - 희망제작소

2. 주민참여예산학교 세부 교육과정

회차	교육명	세부 교육과정	비고
1회차	[Orientation] 반갑습니다! 성북구 주민참여예산학교 입니다.	• 입학식	(10분)
		• 성북구 주민참여예산학교 프로그램 소개	
		• 청장님 격려인사	(10분)
		• ICE BREAKING - 교육생들간 짝공소개하기 - 조편성하기(마을별 및 직능별)	(100분) -10개조 편성
		• [강좌]좋은 예산이란 무엇인가?	(40분)
2회차	[입문강좌] 참여 예산제의 모든 것	• 예산의 개념, 국가 및 지방정부의 예산구조 이해 • 예산 편성 및 집행 과정과 주민참여 방법 • 예산분석기법 및 원칙, 좋은 예산vs나쁜예산	(120분) 최인욱
3회차	[사례학습] 국내 · 외 참여예산제 Case Study	• 주민참여예산 기본개념 및 운영구조 • 시민(위원)의 역할과 참여방법 • 국내 · 외 참여예산제도 우수 운영사례 및 시사점 • 성북구 참여예산 조례와 효율적 운영방안	(120분) 이창림
4회차	[이론강좌] 성북구 예산 알아보기	• 성북구 재정현황 • 성북구 역점사업 및 추진현황	(60분) 손정수
	[참여예산 워크숍(Ⅰ)]	• 지역현안 및 자원 발굴 - 성북구만의 지역현안(문제점) 및 활용 가능한 자원을 발굴하기	(60분) 송창석
5회차	[참여예산 워크숍(Ⅱ)]	• 참여예산사업 요구서 작성 - 발굴한 지역현안 및 자원을 바탕으로 - 성북구 예산(안)을 바탕으로 참여예산사업 서 작성	조별활동 (120분) 송창석
6회차	[가상분과회의]	• [실습과정]우선순위 협의 및 조정, 실습	조별활동 (90분)
	[수료식]	• 성북구 주민참여예산학교 수료 - 수강생 교육수료소감 발표(1분 Speech)	(30분) 수료식

3. 수업 내용과 수강생들의 발표내용

[제1강 오리엔테이션, 8/16]

반갑습니다. 성북구 주민참여 예산학교입니다.

송창석(희망제작소 부소장)

교육목표: 교육일정과 내용을 소개하고, 각 지역별 참가자들의 상호 이해를 통해 교육과정 및 교육수로 후 지속적 관계망을 형성한다.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기본개념을 습득한다.

교육내용



구청장님 인사



송창석 강사



모둠활동

■ 강의내용 : 성북구 “희망마을 만들기” 우리는 팀입니다

- 앞으로 6회 참여예산학교 과정에서는 실제 성북구에 제안할 예산안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시뮬레이션으로 모의 예산책정을 하게 된다.
- 우선 주민참여예산제는 각 지자체가 서로 많은 예산을 따오기 위해 사용하는 하나의 수단으로 전략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지탱하고 지속시킬 지역 공동체는 쇠퇴하고, 관주도의 형식적 제도로 전략할 우려가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오늘 참여한 주민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이다.

■ 모듬활동 : 참가자 자기소개 및 참여동기 발표

[주간반]

• 2조 (뿌리들)

- 함○○ : 산책을 좋아한다. 사족들과 나들이 하며 살기 좋은 성북을 만
들고 싶다.
- 이○○ : 산책을 좋아하고, 부동산에 관심이 많다. 성북천 주변을 깨
끗하게 관리하고 다리에도 그림 등으로 예쁘게 꾸몄으면 좋겠다.
- 홍○○ : 새로운 친구 사귀기를 좋아하며, 관 주도 말고 주민 주도의 마
을 변환을 꿈꾼다. 평범한 것은 싫으며 성북구 마을기업에 관심이 많
고, 성북구의 관광문화자원을 널리 알리고 싶다.
- 박○○ : 청소년 활동에 관심이 많고 주민의 자발적 사회참여를 돕고
싶다.
- 박○○ : 달동네 장수마을에서 마을만들기, 집수리 마을기업활동을 하
고 있다. 노인이나 장애인이 살기 좋은 마을이 진짜 좋은 마을이라고
생각한다.

[야간반]

• 5조(북한산)

- 참 좋은 참여예산/ 여기에 와서/ 예산 때문에 난상, 산고를 깨고/ 우
리가/ 리듬을 깨고/ 완성해 나가야 할/ 한마음 한뜻으로/ 다같이 춤
추자
- 윤○○ : 우연히 구에서 나온 신문을 화장실에서 보다가 신청을 하게
되었다. 서울에서 떠돌이로 사는데, 나이들면서 고향같은 지역에 관
심을 가져보고자 참여하였다.
- 홍○○ : 우리지역 자동차 주차문제가 심각해서 그것을 좀 해결하고
싶어서 왔다.
- 이○○ : 예산이 어떻게 편성되는지 알고 싶어서 왔다.
- 윤○○ : 환경운동을 하며 스포츠댄스를 잘한다. 정릉 4동을 사랑하
면서 지역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 전○○ : 업무상 일본을 자주 가게 되는데, 일본은 지방자치가 활발해
서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제2강 입문강좌, 8/18]

참여예산의 모든 것

최인옥(좋은예산센터 사무국장)

교육목표: 지방자치의 핵심인 예산의 기본개념, 국가 및 지방정부의 예산구조, 예산의 편성 및 집행과정을 이해한다.

교육내용



최인옥 강사



예산개념을 설명하는 모습



서로 질문하는 수강생



귀 기울여 듣고



쉬는 시간에도 질문을!!

■ 강의내용

- 예산의 이해에 앞서
- 예산 회계연도와 속성
- 예산의 기본구조
- 지방재정분석 진단
- 좋은예산, 나쁜예산
- 예산평가 분석
- 예산이란?
- 예산의 결정
-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세출구조
-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 예산의 편성
- 예산의 집행과정

■ 질의응답

[주간반]

- 질의1: 구청의 각 부서들이 예산을 짤 때 참여예산위원회가 의견을 주는 것인가?
- 답변: 지역별로 운영형태가 다양하다. 현재까지 새롭게 추진하는 지자체는 의견수렴과정에 주민제안사업들을 반영하는 형태로 한다.

- 질의2: 성북구 연간예산이 3,400억원 정도라고 하였다. 중앙정부에서 지원받는 예산을 제외하고 자체 편성예산은 미미하다고 했는데,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범위는 얼마인가?
- 주민참여 위촉위원 20명을 사전에 선정하고, 20명을 뽑는 것은 적정한가?
- 예산이 없다고 하고, 성북구는 무상급식을 하고 있는데, 다른 분야 예산이 부족한 것이 아닌지?
- 답변: 위원회 구성원 절반 이상은 선출한다. 나머지 분야는 성북구청에서 답변할 사항이다.

- 질의3: 예산 중 자치재량권이 없는 분야는 어떻게 해야 하나?
- 답변: 경상비 등 고정비는 어쩔 수 없지만, 지역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여지는 있다고 본다.

[야간반]

- 질의1: 성북구 의원입니다. 참가자들에게 아까 보여 주신 예산안 보는 법을 복습해 줄 수 있을지?
- 답변: 시간상의 문제로 오늘을 어려울 것 같다. 추후에 심화적으로 살펴 볼 기회가 있으니 그 때 살펴보시는 것이 좋을 듯하다.

[제3강 사례학습, 8/23]

국내외 참여예산 모델과 성북구 참여예산조례

이창림(풀뿌리자치연구소 이음 운영위원장)

교육목표: 주민참여예산의 기본개념 및 운영구조를 이해한다. 국내외 참여예산제도의 우수사례를 통해 성북구 참여예산제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모색해 본다.

교육내용

[주간반]



이창림 강사



질의에 호응하는 수강생



제 생각에는요!

[야간반]



계속되는 강의!



저녁밥 대신 강의!



밑줄 착~!!

■ 강의내용

- 왜 참여예산인가?
- 주민참여예산제의 의의
- 주민참여예산제도 3가지 원칙
- 국내 사례로 본 참여예산의 운영현황과 문제점
- 성북구 주민참여예산 관련 제안

■ 질의응답

- 질문: 세가지 사례를 보여 주었는데 주민위원들에게 의결권이 있나?
- 답변: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권리는 있지만 집행차원의 의결권은 없다. 베를린 같은 경우에는 의회에서 한번 거릅니다만, 일반적으로는 우선순위를 결정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결정권한이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 질문이 아닌 소감이다. 주민참여를 통해 시민들이 스스로 버스정류장의 위치를 결정하는 등 지역사회내의 안건을 개인적 이해가 아닌 공공의 이해를 바탕으로 예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 이야기를 들으니 앞으로의 수업도 열심히 들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 의견: 풀뿌리자치연구소 이음의 한 연구원분이 부천시의 행사에 강연차 가셨는데 그 날 일정 상 10분 만에 주민위원회의 장을 뿔게 되어 있었다고 한다. 그런데 그 일정을 짠 공무원들의 예상과 달리 그 날 모이신 주민분들은 리더를 아무렇게나 뽑지 않고 회의와 회의를 거쳐 (숙의 민주주의) 선출하는 분들이었던 것 같다. 결국 10분이 아니라 1시간 반 만에 리더를 선출했는데 끝까지 지켜보시던 부천 시장님이 아주 좋은 결과였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동의한다. 무엇이든 진정한 의미의 합의와 민주주의는 이러한 토의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듯하다.
- 질문: 성북구 주민참여예산제가 활성화되기 위해 무엇을 하면 좋을지 조언해달라.
- 답변: 주민이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주민참여예산위원을 뽑는 기준은 개방성이다. 또한 예산위원들에게 예산심의 권한이 주어져야 한다. 참여보장과 권한 부여가 확실하면 점점 더 많은 주민이 참여할 것이다.
- 마지막으로 요즘 말로 집단 지성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 더 많은 분들의 참여와 아이디어를 통해 더 좋은 결과를 내실 수 있기를 바란다.

성북 구정현황과 참여예산제 추진 필요성

손정수(성북구청 기획경영과장)

교육목표: 성북구 재정현황과 민선5기 성북구 역점사업 및 추진현황을 이해한다.

교육내용



손정수 과장



성북구청 소개



야간반 강의 모습

- 민선5기 성북구 구정성과 소개
- 성북구 재정현황 및 주민참여예산 추진현황

■ 질의응답

[주간반]

- 질의1: 참여예산학교를 수료하면 어떤 자격을 주는가?
- 답변: 현재, 성북구 주민참여위원회는 40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중 과반인 20명은 동별 추천으로 정해지며, 20명은 위촉으로 선임된다. 20명 위촉직 중 6명은 당연직 실국장이며, 14명은 지역별, 성별 등을 감안하여 위촉할 예정이다. 주민참여예산학교 이수자는 주간반 2명, 야간반 2명을 선출할 예정이다. 아울러 주민참여예산학교 졸업 후 동 기회를 만들고 활동을 한다면, 구청에서 적극 지원해 드릴 예정이다.

- 질의2: 참여위원회 위원을 100여명 정도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 답변: 참여위원회 인원은 의회에서 조례로 40명으로 의결하였으며, 차후 조례개정을 통한 위원확대가 가능하다. 다만, 위원수 확대에 대해서는 재정문제 등의 이유로 의원들의 반대 의견이 있다.

[야간반]

- 질의1: 복지 예산이 구 전체예산의 40%라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 어떤 내용인가?
- 답변: 법정 필수 경비라 하여 기초노령연금이나 장애인연금 등 법적으로 정해진 1329명의 인건비가 829억원이다.
- 질의2: 성북동 김남수이다. 서초구와 우리구의 예산차이가 왜 나는가? 정치적인 문제가 있나?
- 답변: 타구에 비해 조정교부금을 많이 받아온다. 그래서 우리구의 재정자립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 질의3: 예산학교 참여 인원이 120여명인데, 이중 4명만 뽑는 것은 적지 않은지? 위원은 어떤 기준으로 뽑는가?
- 답변: 행정에서는 당초 60명 정도 고민했으나, 의회에서 최종 의결된 것은 40명이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참여예산제를 운영하면서 인원을 늘리거나, 300명의 연서로 주민청원으로 조례제개정을 할 수 있다. 대안은 아니지만 여러분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에는 서포터즈 활동이 있다. 예산학교 졸업생중 위촉 위원으로 선출하는 문제는 참여예산추진준비단에서 추가 논의할 예정이다.
- 질의4: 예산관련 설명 중 기금관련 설명이 없는데, 기금은 논의 대상이 아닌가?
- 답변: 설명자료에는 없지만 기금관련 내용도 모두 공개할 것이며, 사업제안도 어떤 분야든지 논의가능하다.

[제4_2강 강의, 8/25]

지역현안 및 자원발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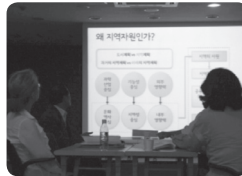
김준호(희망제작소 선임연구원)

교육목표: 지역현안이나 자원을 어떻게 발굴하고 사업화하는지 사례를 통해 이해한다.

교육내용



김준호 강사



주간반 강의모습



야간반 강의모습

■ 강의내용

• 지역자원조사란 무엇인가?

지역조사 사업의 절차

- 신문기사나 통계자료, 시군구 발행보고서 등 문헌조사 → 문헌자료를 토대로 현장조사

조사 자원의 유형화: 사업주체나 특성에 따라 세분화

- 성북구 현안/과제 발굴
- 지역자원 및 특성(동별/구전체)발굴
- 사업목록(동별/구전체)발굴

[제5강 워크숍, 8/30]

성북구 참여예산 사업 제안

교육목표: 지역자원 및 현안발굴을 바탕으로 성북구 참여예산사업을 제안하며, 참여자간 의견수렴 및 조정과정을 익힌다.

교육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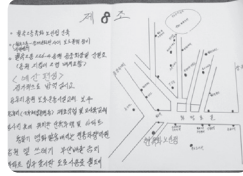
[주간반 모둠활동]



김준호 강사



주간반 1조 발표



8조 모둠활동 결과

[야간반 모둠활동]



모둠활동



모둠활동



야간반 발표

- **워크숍과제:** 우리동네 지역특성과 자원을 찾아보고 현안과제를 정리하여 참여예산에서 고려할만한 사업을 구상하라

■ 모둠발표

[주간반]

- ★ 1조 발표(돈암동,보문동)
- 지역사업



- 1) 돈암1동은 주거환경은 괜찮은데, 동 주민센터가 낡고 초라하다. 확장 신축했으면 한다.
- 2) 돈암2동은 아리랑 고개를 이야기가 있는 문화의 거리로 업그레이드 되었으면 한다.
- 3) 보문동은 보문역에 엘리베이트 설치가 시급하다.

• 성북구 사업

- 4) 정릉천 오페수 냄새를 줄이면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것이다.
- 5) 월곡동-홈플러스 맞은편까지 인보도 시설을 개선했으나, 식당문턱, 점자블록 등 시설마감이 아쉽다. 추가 보수를 했으면 한다.
- 6) 내부순환로 주변은 소음방지를 확실하게 해 주었으면 한다.

• 참여예산제

- 7) 어린이 놀 수 있는 생태공간을 많이 조성해 주었으면 한다.
- 8) 노인정 할머니 할아버지를 위한 프로그램(강사지도)을 확대했으면 한다.
- 9) 주부들이 즐겁게 놀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지원되었으면 좋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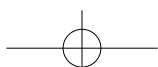
★8조 발표(월곡동)

• 지역사업

- 1) 월곡2동 노인정이 개발사업을 할 때마다 이사를 다니고 있다. 현재 1억2천만원 세를 살고 있는데, 건물을 신축하여 노인들의 생활공간을 마련해 주었으면 좋겠다.
- 2) 월곡2동 226-4번지 공원에는 공중화장실이 없어서 노상방뇨를 한다. 공중화장실을 조속히 지었으면 한다.

• 성북구사업

- 3) 정기적으로 방역을 실시했으면 한다.
- 4) 공유지공원 노후 운동시설은 보수 및 교체했으면 한다.
- 5) 공유지의 제초작업 및 고사목을 제거했으면 한다.
- 6) 경사진 곳의 아파트, 주택단지는 동절기에 염화칼슘을 지원해줬으면 한다.
- 7) 아파트 입구표지판의 도로사용료를 폐지했으면 한다.



[야간반]

★7조 발표(길음2동, 종암동)

• 지역사업

- 1) 길음2동 초등학교를 신설했으면 한다.
- 2) 길음역 근처 유해업소를 줄이고 가로등을 설치했으면 한다.
- 3) 종암동 마을버스 21번 확충 및 정류장 가림막을 설치했으면 한다.

• 성북구사업

- 4) 인도를 확장해줬으면 한다.
- 5) 성북도서관에 다문화 교육지원을 확충하고 더 많은 도서를 배치했으면 한다.

• 참여예산제

- 6) 주민예산위원이 확충되었으면 한다.

[제6강 워크숍, 9/1]

지역별 참여예산사업 평가 및 우선순위 협의 및 조정

송창석

교육목표: 각 동별 제안된 사업들을 공유하고 평가하여 우선순위를 조정한다. 구성원 간의 상호 이해를 통해 개인적 요구를 자제하고 집단적 상호이익을 추구할 줄 안다.

교육내용

■ 모둠토론

- 모둠별/지역별 예산 5천만원 이내의 사업을 제안하라.

[주간반 발표]



*총 10개조의 발표 중 일부 만을 소개합니다.

★1조 행복한 사람들

- 발표자: 배○○
- 사업명: 어린이놀이터 개선
- 사업내용: 어린이 놀이터 시설물을 부모와 어린이가 함께 만들어갈 것
- 기대효과: 1)욕구조사를 통해 정확한 욕구 파악
2)아이들이 직접 놀이기구 제안, 창의력을 높일 수 있다.
3)이 과정에서 부모와의 의사소통
- 소요예산: 욕구조사 또는 공청회 ; 패넬토론 4백만원, 홍보비 25만원
- 놀이기구 설계: 3백만원

★2조 뿌리들

- 발표자: 박○○
- 사업명: 삼선공원 내 어르신쉼터 마련
- 사업내용: 위치 - 정문쪽 공터
목적 - 어르신 이용이 높는데 중고생에게 쉴 자리를 빼앗김, 어린이 안전, 치안 불안함
계획- 50평 규모의 부지확보, 그늘막 및 안내판 설치
- 기대효과: 공원사용주민의 다 계층화, 청소년 범죄 예방
- 소요예산: 50평, 5천만원

■ 조별 발표결과물에 스티커 붙이기 (1인 4표 진행)

1조	15개	어린이놀이터
2조	21개	삼선공원 어르신쉼터
3-4조	26개	정릉천보행로
8조	29개	목화노인정 신축
10조	29개	버스정류장 차양막 설치(장위1,2,3동)
잔돌이와 잔순이	20개	어린이집

→ 결과: 1인4표는 좀 많다. 평가의 신뢰성이 떨어진다.

[야간반 발표]



*총 10개조의 발표 중 일부 만을 소개합니다.

★4조

- 사업명: 조부모 전통육아교실 운영
- 사업목표: 1)관내 은퇴 전문인력 활용
2)사회문제예방
- 기대효과: 1)조부모 일자리 창출
2)저출산 문제의 대안
3)전통문화계승
4)자원봉사자육성, 영유아 보호시설 등
5)핵가족의 단점 보완: 건전가정
- 사업내용: 1)20개 동단위 순회교육
2)인원-30명 내외
- 운영예산: 150만원*20=3천만원

★10조 장위동

- 사업명: 동방고개 과속 방지턱 설치공사
- 사업내용: 동방고개는 주거지역으로서, 인근 경사도 30도 정도의 2차 선 도로 의 규정속도를 줄이도록 함.
- 기대효과: 소음방지 및 교통사고 예방
- 소요예산: 총1km 5개 방지턱, 350*5=1750만원

■ 결과물 관람 후 1인 1투표 실시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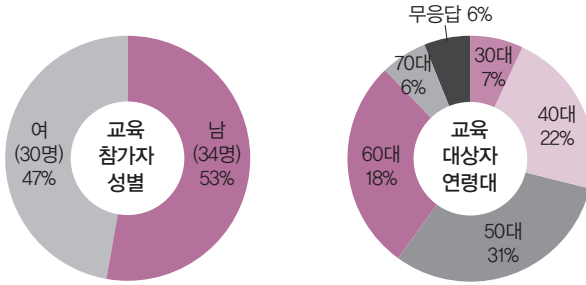
1조	2조	3조	4조	5조	6조	7,8조	9조	10조	
3표	6	6	3	6	5	4	3	4	40

- 1조(새싹팀) 사업명-텃밭조성사업
 2조(삼선동) 사업명-아름다운 성북권 가꾸기
 3조(안암,돈암1,2동) 사업명-안암다방
 4조 사업명-조부모 전통육아교실 운영
 5조(북한산) 사업내용-청수천 둘레길 조성사업
 6조(길음동) 사업명-하늘공원 화장실 설치건
 7조(길음2동),8조(종암동) 사업명-안전한 우리동네
 9조(돌다리) 사업명-학교내 독서토론 활동지원
 10조(장위동) 사업명-동방고개 과속 방지턱 설치공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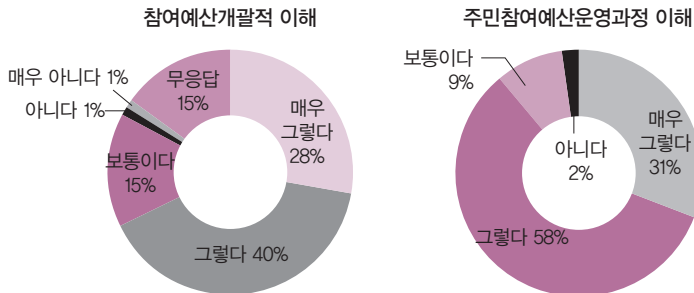
■ 주민참여예산학교 교육 설문조사 결과

Part1. 참가자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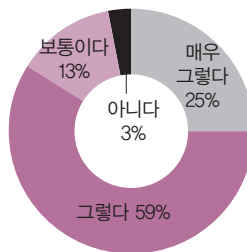
교육참가자 : 120명 중
설문응답자 64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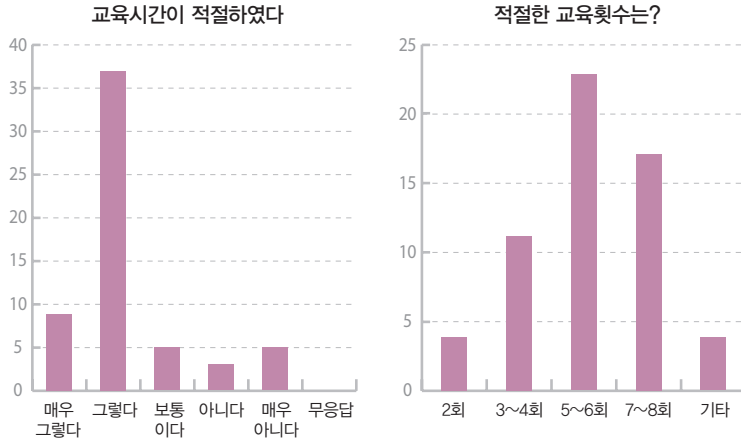
Part2. 교육총괄평가



성북구청 및 재정현황 파악



Part3. 교육운영평가



Part4. 제안사항조사

참여예산학교 관련의견

- 참여예산학교출신 위원 배정수가 너무 적어 처음 취지에 의구심이 들었다.
- 보편적으로 노력한 점이 보인다.
- 교육기회를 준 성북구청에 감사하며 지속적인 운영을 성원한다.
- 좀 더 실질적인 내용을 가지고 교육을 받았으면 좋겠다.
- 위원선출시 무작위 추첨보다는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추천되어야 한다.
- 예산학교를 동별 소모임 구성과정으로 기획했으면 좋았겠다.
- 예산학교에서 제안된 내용을 구청장이 심도있게 검토해달라.
- 좀 더 구체적인 예산편성과 성북구의 현안사업의 설명 등이 부족하다.
- 지역건의사항만 도출시키는 느낌, 재무재표라도 주면서 교육했으면 좋겠다.
- 참여예산위원은 어느정도 전문지식과 행정력이 있는 참여자가 선발되어야 한다.
- 자주 이런 교육이 있기를 바란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활동

성북구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정원은 40명이고, 당연직 6명, 참여 예산학교 수료자 중 추천으로 9명, 동별 신청자중 추천으로 20명, 대학교수 및 관계전문가 5명으로 구성하였다. 운영은 분과위원회 별 주민의견수렴 및 사업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총회에서 최종결정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분과위원회는 복지분야, 교육지원분야, 마을만들기 분야, 동소규모 편익사업분야로 나누어 운영하였으며, 동소규모 편익사업분야는 각 동별 주민제안 사업을 평가하고 우선 순위 선정을 위하여 지역회의를 개최하였다.

1. 주민참여예산위원회 활동 개요

1)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

- 인원 :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40명 이내
- 임기 : 2년(1회에 한하여 연임 가능)
- 주요기능
 - 2012. 주민참여예산 시범 운영분야 홍보 및 주민의견 수렴
 - 분야별 주민의견에 대한 반영 우선순위 결정

2) 참여예산위원 워크숍 개최

- 일시 : 2011. 9. 23(금), 9. 29(목)~9. 30(금)
- 참가 : 구청장,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전원 및 관계 직원 등 60여 명
- 주요내용 : 주민참여예산제의 효율적 운영방안 논의
 - 위원회 활동방향 모색과 운영방법 및 권한 논의
 - 위원회 사업계획 및 방향 설정, 2012년 시범 운영사업 논의 등

3) 주민참여예산 분과위원회 운영 현황

분과명	위원 수	소관 부서
성북형 복지 분과	9명	복지정책과, 노령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교육지원 분과	8명	교육지원담당관
마을만들기 분과	8명	도시재생과
동 소규모 편익사업 분과	8명	공원녹지과, 토목과, 치수방재과 자치행정과 전 동 주민센터

* 위원장(1명)은 분과위원회에 소속되지 않음.

2. 주민참여예산위원 워크숍 활동

주민참여예산위원 40명이 위촉된 후 성북구는 예산위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의 목표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효율적 운영방안을 논의하고, 4개 분과위원회의 활동을 모의실습하는 것이었다. 워크숍은 9월 23일 특별교육에 이어 2011년 9월 29일

부터 1박 2일간 서울시 수안보 수련원에서 실시됐으며, 당연직 6명 예산위원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예산위원과 성북구청 관계직원 총 60여 명이 참여해 10월~11월의 주민참여예산제 활동을 준비했다.



워크숍에 참석해 예산위원들을 격려하는
성북구청장



예산위원들 단체사진

1) 세부 프로그램 내용

【특별교육】

일정	세부 프로그램
14:00~17:30	-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의견 수렴 방법을 학습 - 효율적인 회의 진행 및 의결도출 방안 학습 - 회의진행 및 의견도출 실습

【수안보연수원 - 1일차 프로그램】

일정	세부 프로그램
09:00~12:00	[이동] 성북구청 집결 후 버스로 이동
12:00~13:30	점심식사 및 접수
13:30~14:30	[워크숍1] 1박 2일, 무엇을 할까? 송창석(희망제작소) -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위상과 역할 및 운영관련 논의과제를 설정 하고 무엇을 도출할 것인지 참가자들끼리 논의하고 정리한다.

일정	세부 프로그램
14:30~15:30	[강의] 주민참여 필요성과 성북구 주민참여예산위원회 활성화 방안 최인욱(좋은예산센터) - 국내외 주민참여의 과거와 현재를 통해 주민참여의 필요성과 의의를 이해하며, 앞으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운영방향을 모색해 본다. - 기존 국내외 주민참여 활동사례를 통해, 성북구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효율적 운영방안을 알아본다.
15:30~16:00	[강의] 성북구 참여예산위원회 추진일정 손정수(성북구청) - 성북구 참여예산 시범운영분야 및 향후 추진계획 설명
16:00~18:00	[워크숍2]성북구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 및 세부운영전략 송창석(희망제작소) - 성북구 주민참여예산 추진위원회의 총회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과 운영방안을 협의하여 마련한다. - 총회 및 분과위원회의 주민의견수렴 방안, 의견도출 방법, 연간 운영계획 등 세부 실행방안을 마련한다.
18:00~19:00	[워크숍3] 구청장과의 대화 - 2012년 성북구 재정운영방향 및 역점사업에 대한 상을 공유하며, 주민참여예산제 추진분야 및 시범사업 분야를 정리한다.
19:00~20:00	저녁식사
20:00~	자유토론

【수안보연수원 - 2일차 프로그램】

일정	세부 프로그램
07:30~09:00	아침식사
09:00~11:00	[워크숍4]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실전운영 송창석(희망제작소) - 전일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분과위원회별로 지역현안과제를 도출하고, 자원발굴을 통해 새로운 사업들을 제안한다. - 지역/부문별 주민의견수렴 방안 등 향후 실행전략을 마련한다.
11:00~12:00	[발표 및 마무리] - 1박 2일 간의 활동을 종합하여 성북 주민참여예산 위원회 구성 및 운영방안, 실행전략 등에 대한 의견을 교류한다.
12:00~13:00	점심식사 후 마무리

3.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분과위원회 활동

1) 동 소규모 편익사업 분과위원회

① 분과위원회 소개

• 동 소규모 사업 분과위원회 소개

- 동소규모 편익사업 : 계단정비, 난간설치, 콘크리트 포장, 벚꽃식재와 같은 사업
- 역할 : 동에서 요구하는 사업에 대해 통·반장, 직능단체원 및 일반주민들의 의견 수렴 및 그 외 필요한 1천만원 이내의 소규모 사업에 관한 검토 및 우선순위 선정

• 분과위원 명단 (8명)

성명	소속지역	성명	소속지역
윤진호(위)*	길음1동	전택기	안암동
윤성희	삼선동	이인숙	정릉3동
최광무	동소문동	최동진	정릉4동
정성훈	보문동	고선화	장위3동

*(위) : 분과위원장

• 회의진행

분과명	1차 회의	2차 회의	3차 회의
동 소규모 편익사업	2011.10.11(화) 19:00 〈미래기획실〉	1차: 10.13(목)~10.17(월) 2차: 10.18(화)~10.21(금)	2011.10.31(월) 19:00 〈미래기획실〉

② 동 소규모 편익사업 분과 검토결과

• 동 소규모 편익사업 검토 건수 : 총 131건

(금액단위: 백만원)

분야별 분류	건수	합계
토목분야	119건	6,438
치수분야	8건	142
공원녹지분야	4건	46

규모별 분류	건수	합계
단일사업 대상	5건	4,590
구 소규모 사업 대상	16건	786
동 소규모 사업	110건	1,250

• 추진경과

동 소규모 편익사업 조사를 위한 현장조사 활동

- 동 소규모 편익사업은 분과 위원회 회의 이전에 10월중 각 동에서 1,2차 지역회의를 진행하였고, 1차 지역회의는 각동의 구의원 및 일반 주민들이 모여서 주민제안 사업 및 동 요구사업에 대해서 의견수렴을 하였음
 - ▷ 1차회의 : 10.13(목)~10.17(월)
 - ▷ 2차회의 : 10.18(화)~10.21(금)
- 2차 회의에서는 1차 지역회의에서 제안된 사업에 대한 우선순위를 결정한 이후에 토목, 치수방재과, 공원녹지과 등 사업부서에서 직접 현장을 조사하고 타당성 및 사업비 검토가 이뤄졌음
 - ▷ 조사기간 : 10.24(월)~10.31(월)

동 소규모 사업 선정 기준

- 주민 건의사업 중에는 구에서 내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도 있었고, 일부는 예산이 많이 들어서 동 소규모 사업으로 추진하기엔 부담스러운 사업도 있었음.

▷ 총 131건 6,626백만원 요청

- 3천만원 이내 사업은 동 소규모 사업으로 검토하고, 건당 3천만원이 넘는 사업은 구에서 직접 시행하여야 하는 관계로 사업부서(토목과 등)에 별도로 요청기로 함.

우선순위 선정의 현실적 한계점

- 원래는 동에서 건의된 전체 131건의 현장을 분과위원들 모두가 다같이 현장을 다니며 어느 동이 가장 취약한지 확인하고 우선순위를 정해야 하지만, 금년에는 시간관계상 분과위원들이 2~3개동씩 나누어 동 지역회의에 참가한 관계로 구 전체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데 한계가 있었음

분과위원회 결정내용

- 총 131건의 주민요청 사업중, 공사비가 3,000만원이상 소요되어 구 소규모 사업으로 하여야 하는 사업 등을 제외하고 총 63건 (753백만원)을 지원기로 결정함

▷ 제외현황 : 68건 5,873백만원

- 단일사업(1억원이상) : 5건 4,590백만원

- 구 소규모 지원사업 대상(3천만원~1억미만) : 16건 786백만원

- 구에서 예정중인 사업 : 4건 69백만원

- 우선순위에 따라 제외된 사업 : 15건 267백만원
- 기타 사유지 등으로 공사가 불가한 사업 : 11건 161백만원
- 상태가 비교적 양호하여 시급하게 공사할 필요가 없는 사업 : 17건

③ 분과위원회 주요 회의내용

- 주민참여예산위원의 권한범위 및 순위결정 과정의 투표방식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의견 (윤진호,전택기)
- 결정사항에 대해 전문가 판단이 보완되어야 한다는 의견(윤진호)
- 주민 건의사업 중에 내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우선순위에서 제외하고 예산이 많이 들어서 동 소규모 사업으로 추진하기엔 부담스러운 사업은 단일사업 및 구 소규모 편익사업으로 포함기로 의견 모음.
- 우선 3천만원 미만 사업은 동 소규모 사업으로 검토
- 다만 3천이상 1억미만의 사업은 구 소규모 지원사업으로, 1억 이상 건에 대해서는 단일사업으로 진행기로 결정.
- 한계점으로는 올해는 시간상 위원들 모두 현장확인을 못하고 2~3개 동씩 나누어 진행한 관계로 구 전체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데 한계를 느낌(윤진호,윤성희,정성훈)
- 우선순위를 결정하기 위한 기준이 보다 명확하게 세워져야 한다는 의견
- 최대한 이해관계자를 참여토록 하는 것, 토론과 결정의 과정을 통해 상호신뢰를 키우는 방향으로 가는 것,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어 보다 현실에 부합하는 결정을 하도록 노력하는 과정이 필요함.

동 소규모 편입사업 분과위원회 평가

1. 주민들의 참여 폭을 넓히고 수준을 깊게 할 필요가 있다.

올해 처음으로 주민참여예산제가 시행되어 충분히 정착되지 못한 관계로 기존에 지역사회에서 의견을 주도하던 주민자치위원 및 통·반장 외에 다른 다양한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부족하였다. 일반 주민들의 참여공간이 동소규모 편입사업과 관련된 동단위 모임 이외에는 거의 만들어지지 않았다. 동 단위 모임마저도 새로운 주민이 참여하는 경우는 소수에 불과하였고, 대부분은 통장과 주민자치위원이었다. 인수위원회 시절 구성한 시민 인수위원회의 참여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주민참여예산학교를 수료했으나 주민참여예산위원으로 선정되지 않은 분들의 경우 다른 주민들에 비해 참여 의지가 높았을 텐데도, 참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민주적 거버넌스를 구축하기 위한 제도설계에서 중요한 변수는 참여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다. 지역공동체의 모든 구성원들을 포함시키는 동시에 그들의 다양한 요구를 인정해야 한다. 교육, 복지 관련된 분과도 마찬가지이다. 교육분과의 경우도, 각 학교의 학부모회, 운영위원들이 폭넓게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비공식적 제안들에 기회가 개방되려면, 충분한 논의 시간을 가져야 하고, 누구나 말할 수 있는 토론스타일이 만들어져야 한다. 동 단위 모임에서 모임을 주도하는 분들이 주민들이 스스로 이야기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 주민들이 스스로 결정한다는 것을 확고한 원칙으로 보여줘서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끌어낼 필요가 있다. 현재의 제한된 참여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후에 일반 불특정 다수의 시민이 참가할 수 있도록 주민총회 형태의 “동 지역회의”를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민주적 의사결정과 그 과정에서 주민간의 상호작용을 확대해야 한다.

동소규모 편입사업 분과위원회 및 동별 지역회의 과정에서 깊은 토론보다는 위원 및 참석자 간 합의로 진행이 이루어져, 내용이 풍부하지 못한 상태에서 결정이 이루어 졌다. 의사결정에서 고려되어야 하는 것은 각자의 이해관계를 넘어서 지역차원의 새로운 가치와 원칙을 창조해 나가는 것이다. 협력은 타협과 다르다. 협력은 보다 나은 대안을 창조해 내는 것이다. 진행되는 과정을 살펴보면 일부는 자신의 주장을 적극적으로 나타내지 않고 있고, 위원으로 위촉된 일부 이익단체 대표자들은 우선순위 등 결정 시 소속 단체의 이익만 주장하여 위원간 의견 불일치를 발생시키고 있다. 즉 일부는 자기의 이야기를 잘 꺼내지 못하고, 일부는 자기의 이야기를 과도하게 주장하는 상황이 공존하고 있다.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간부의 경우 공동주택 관리사업 지원경비 중 일부를 아파트 커뮤니티 공모사업 비용으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여 위원 간 불일치가 발생하였다. 아직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면서 새로운 대안이 창조되는 단계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다만 동소규모 편입사업의 경우 참가한 주민들이 투표로 우선순위를 결정함으로써 주민이 스스로 결정한다는 원칙을 공유하게 되어 향후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고 있는 수준이다. 이전 결정이 동장과 의원들의 합의에 의해 진행되던 것에 비추어 볼 때 주민이 참여하여 스스로 결정한다는 원칙을 세운다는 것은 거버넌스의 구축에서 매우 중요한 전진이라고 볼 수 있다. 여기에서 더 나아가 관계가 구축되면서 상호간의 신뢰가 굳건해져야 양질의 합의를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다.

3. 의사결정의 타당성을 높이자.

또 하나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전문적인 정보나 경험을 가지고 주민제안

을 평가하여 우선순위의 결정이 보다 합리적으로 결정되도록 하는 일이다. 동소규모 편익사업의 경우 회의 진행 일정상 예산위원 1명이 2~3개 동을 분담하여 지역회의를 진행하다 보니, 동별 우선순위를 결정할 때 직접 현장을 함께 방문하여 토론하지 못함으로, 현장을 방문한 동담당 위원 의견에 의존하여 결정하게 되었다. 이 때 우선순위 결정의 기준이 무엇인가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 직관적으로 결정되는 경우가 많았다. 물론 주민들의 경우 치수방재, 공원녹지 사업과 관련한 전문성이 부족하지만 그러한 상황에서도 좀 더 많은 정보가 공유된다면 보다 현실에 부합되는 결정을 내릴 수 있는 토대가 갖추어 질 수 있다고 본다.

성북구의 2011년 주민참여예산제를 평가해 보면, 지금까지 의원들과 동장들에 의해 결정되던 동소규모 편익사업의 경우, 제한된 범위이지만 주민들이 참여하여 결정한 것이 전환적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물론, 제한된 토론과 짧은 조사를 거쳐 투표로 결정한 것은 상호작용을 통해 새로운 가치와 원칙에 입각한 결정을 내리는 것과는 많은 차이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향후 참여와 협력을 통해 스스로 결정하는 민주적 거버넌스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이해관계자를 참여토록 하는 것, 토론과 결정의 과정이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상호신뢰를 키우는 방향으로 가는 것, 또한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어 보다 현실에 부합되는 결정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주민참여가 이루어지려면 상호관계를 맺는 능력이 필요하듯이, 주민참여예산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참여의지뿐 아니라 스스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자치역량이 증대될 필요성이 있다. 즉 지방정부의 자세 변화 이외에 주민들의 역량이 함께 갖추어져야 민주적 거버넌스를 구축할 수 있고, 주민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결정을 스스로가 참여하여 협력적으로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 본다.

2) 성북형 복지분과 위원회

① 분과위원회 소개

• 성북형 복지분과소개

- 복지사업 핵심 추진방향 : 사각지대 없이 누구나 행복한 성북형 복지공동체 조성, 취약계층에 대한 수요자 중심의 복지서비스 제공, 아동·청소년 복지증진 및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 역할 : 복지정책과, 노령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복지 관련 사업에 대한 예산심의 및 주민들의 의견수렴

• 분과위원 명단(8명)

성명	소속지역	성명	소속지역
안영신(위)	월곡1동	이요세	정릉2동
김남영	성북동	최영심	길음1동
배정학	안암동	박우형	상월곡동
박종태	정릉1동	서정례	월곡2동

*(위) : 분과위원장

• 회의진행

분과명	1차 회의	2차 회의	3차 회의
성북형 복지	2011. 10. 17(월) 19:00 〈미래기획실〉	2011. 10. 24(월) 19:00 〈미래기획실〉	2011. 11. 2(화) 17:00 〈성북아트홀〉

② 성북형 복지분과 검토결과

• 성북형 복지 분과 우선순위 선정 대상 사업

(단위 : 백만원)

연 번	사업명	2011년 예산액	2012년 요구액	비고
총계		3,994	8,408	
저소득복지 등 (6건)		500	550	
1	저소득주민 위문품 지원(5p)	150	150	신규
2	보호회관 차량 구매	0	25	
3	국가보호대상자 지원(14p)	246	246	
4	‘보호의 달’ 행사 보조(14p)	18	23	
5	자원봉사자 워크숍 및 문화체험(16p)	12	28	
6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지원	74	78	
장애인복지 (17건)		364	674	
1	장애인 바깥나들이 행사 추진	7	7	신규 신규 신규 신규 신규 신규 신규 신규 신규 신규 신규 신규 신규 신규 신규 주민제안
2	장애인 걷기대회 개최 8	8		
3	시각장애인 점자안내책자 발간	68	68	
4	저소득중증장애인 신문구독 지원	6	6	
5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운영비 지원(25p)	32	52	
6	점자도서관 운영	76	76	
7	장애인보조기구 수리사업 지원	64	64	
8	저소득장애인 무료급식 지원	24	24	
9	장애아동 학습지원 멘토링사업 지원(31p)	0	20	
10	장애아동 방과후학습 기약교실운영 지원(32p)	0	26	
11	장애인자립생활 체험 홈 지원(34p)	0	32	
12	장애인복지관 주차장 조성(36p)	0	61	
13	장애인단체연합회 차량유지 및 지원(27p)	30	52	
14	장애인컴퓨터교실 운영(28p)	21	75	
15	장애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카페 운영(30p)	0	50	
16	장애인단체 행사 지원 28	33		
17	점자도서관 운영비(사서인건비) 지원	0	20	
노인복지 (6건)		894	1,899	
1	경로당 임차료 및 인상분 지원(37p)	0	610	신규
2	성북시니어클럽 운영 지원(42p)	0	205	신규
3	경로당 난방비 및 운영비 지원	773	794	

(단위 : 백만원)

연 번	사업명	2011년 예산액	2012년 요구액	비고
4	경로당 및 노인의집 시설 개보수(38p)	100	150	
5	경로당 냉방비 지원	21	20	
6	정릉2, 3동 노인복지 시설 확충 ※ 확충대상 시설이 불분명하여 경로당 기준으로 산정	0	120	주민제안
보육 · 여성복지(12건)		2,150	3,765	
1	보육시설 교재교구비 및 복리후생비 지원(51p)	1,021	1,224	
2	보육시설 영아반 간식비 지원(51p)	548	650	
3	월동기 소외계층 사랑나누기 행사(52p)	12	12	
4	여성교실 운영(52p)	78	98	주민제안
5	여성백일장 등 여성정책 행사 지원(52p)	45	57	일부반영
6	출생아기 축하금 지원(53p)	446	1183	
7	시간제보육교사 지원(56p)	0	52	신규
8	육아지원종합상담창구 운영(56p)	0	22	신규
9	학부모참여 평가사업 시행(보육시설)(56p)	0	11	신규
10	다문화아동 멘토링 지원(57p)	0	16	신규
11	결혼이민자가정 모국보내주기 사업(57p)	0	20	신규
12	어린이집 환경개선 지원 사업	0	320	주민제안
13	국공립보육시설 확충	0	100	주민제안
청소년복지 (8건)		86	1,520	
1	청소년어울마당 운영(54p)	12	32	
2	성북청소년문화의집 운영(54p)	61	796	
3	드림스타트 프로그램 운영(54p)	0	20	신규(구비)
4	교복 물려주기 알뜰장터 운영	13	13	
5	아동관(정릉동 가압장) 운영(55p)	0	209	신규
6	돌봄센터 운영(55p)	0	276	신규
7	돌봄교실 운영(주민센터 내)(55p)	0	117	신규
8	임대아파트 내 청소년공부방 신설	0	57	주민제안

• 복지분과 주민참여예산 반영 사업 목록 (16건 931백만원)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예산안	비고
• 보훈회관 차량 구매 복지정책과	25	복지정책과
• '보훈의 달' 행사 보조	18	"
• 자원봉사자 워크숍 및 문화체험	28	"
• 장애아동 학습지원 멘토링사업 지원 노령사회복지과	20	노령사회복지과
• 장애아동 방과후학습 기악교실운영 지원	21	"
• 장애인자립생활 체험 홈 지원	52	"
• 장애인컴퓨터교실 운영	21	"
• 장애인단체 행사 지원	21	"
• 점자도서관 운영비(사서인건비) 지원	20	"
• 여성교실 운영 가정복지과	98	가정복지과
• 여성백일장 등 여성정책 행사 지원	57	"
• 출생아기 축하금 지원	449	"
• 다문화아동 멘토링 지원	29	"
• 다문화가정 공모사업	20	"
• 청소년어울마당 운영	32	"
• 드림스타트 프로그램 운영	20	"

③ 회의 주요내용

• 주요 의견 및 결정사항

행사성 경비 동결

- 내년 재정여건이 어려운 관계로 행사성 경비관련 사업은 예년과 같이 동결(안영신)

성북 시니어클럽 운영 지원

- 시니어 클럽 운영 지원은 서울시에 신청하면 2017년까지 지원 받을 수 있는 사항이라 일단은 타구에서 진행하는 걸 보고 벤

치마킹해서 2013년 이후 시행검토 (안영신, 이요세)

보훈회관 차량 구매

- 보훈단체 측에서 별도의 추가요청(유류, 차량유지비 등)을 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보훈회관 차량구매 비용 지원 (안영신, 박우형, 이요세)
- 자원봉사자 및 기증, 후원하는 사람들이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자랑스러운 성북인상’같은 제도를 만들고 이외에도 다양한 지원 마련 (김남영, 이요세)

출산아기 축하금 지원

- 저출산 상황은 사회적, 경제적 구조의 문제 때문이지, 출산장려금을 많이 지원한다고 해서 출산율이 높아진다는 상관관계 없는 만큼 지원금은 예년과 같이 동결 (배정학, 박우형)

장애인 자립생활 체험홈 지원

- 당초 우리구 소유 월곡동 래미안아파트 공간에 ‘장애인 자립생활 체험 홈’을 설치키로 했으나 주변 민원등을 고려해 지난해 반영되지 못함. 다른 대안으로 장수마을 빈집을 개보수하여 공간을 활용한 장애인 자립생활 체험홈 지원키로 결정. (배정학, 김남영)

다문화 아동 멘토링 지원

- 다문화 아동 멘토링 지원은 당초 20가구 정도 지원하는 것으

로 했으나, 성북구내 약 1,100가구 정도의 다문화 가정을 감안하면 지원액수가 적다고 판단되어 지원가정을 늘리기로 의견 조율해 증액함 (김남영, 서정례)

장애인 컴퓨터 교실 운영

- 포토샵 강의를 내년부터 시행하기 위한 장애인 컴퓨터 교실 운영비 증액은 컴퓨터 프로그램중 난이도가 높은 편으로 현재의 이용자층을 감안할 때 수요가 제한적이라고 판단되고 이는 고용안정센터 등 다른 교육시설에서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어, 어려운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전년규모로 지원코자 함. (박우형, 이요세, 김남영, 최영심)

육아지원 종합상담창구 운영

- 육아지원 종합상담창구 리플릿 제작예산은 출산여성에게 육아 관련 종합정보를 제공한다는 의미로 제작을 추진했으나, 이런 정보는 정보화 시대에 다른 매체로도 얼마든지 육아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만큼 리플릿 제작은 불필요하다고 생각해 제외 (박우형, 이요세, 최영심)

시간제 보육교사 인건비

- 시간제 보육교사 인건비는 어린이집 보육교사 인건비 175억에 포함된 예산이라 중복지원이기 때문에 제외.

성북형 복지분과 위원회 평가

1. 전체적인 평가

주민참여예산제를 통해 다양한 주민들의 참여가 제고되었고, 구정 참여에 대한 주민들의 변화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어 긍정적이다. 또한 주민들의 실질적인 이야기를 현장에서 들을 수 있어 좋았고 그 의견을 예산에 반영할 수 있어 보람 있었다. 아쉬운 점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일정이 급히 추진되다 보니 위원들의 전문성이 떨어지고, 주민 의견 수렴 과정도 간소화 된 점이 있어 주민참여예산제의 본 취지에 미흡했다.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첫 시행의 한계를 넘어서서 내년부터는 위원들의 전문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과 주민참여 활성화 제고를 위한 과제를 위해 주민참여예산 위원들을 비롯한 지자체와 지역사회의 노력이 필요하겠다.

- ① 분과위원들이 성북구 전체 복지예산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구청에서 이미 정해놓은 우선순위만을 심의하는 형태가 되어 아쉬웠다. 특히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의 경우 지역 중증장애인들에게 상당히 중요한 문제(자부담이나 시간의 확대)가 있음에도 분과 위원회에서 논의조차 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
- ② 주민의견 수렴 과정도 각종 복지 단체의 장이나 관련 종사자들만의 의견만을 듣는 자리가 되어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지역 주민들의 의견수렴과정이 미흡한 측면이 있었다.
- ③ 복지예산을 삭감하는 역할도 담당하게 되어 복지분과 위원 스스로가 복지 예산을 줄이는 역할을 한 결과가 되었다는 현실적인 고민이 있었다.

④ 복지정책의 우선순위를 두는 복지 마인드 자체에 문제가 있었다. 예를 들어 노인(경로당 중심이 아닌 노인 일자리 정책), 기초 생활수급자의 정책 지원, 장애인(시설중심이 아닌 탈시설이나 자립생활로 패러다임이 바뀌는 사회적 분위기), 여성(행사 중심이 아닌 사회서비스 일자리의 확대라는 제도적 개선), 보육(저소득층 보육지원 확대, 보육교사 노동권 향상)에 대한 구청의 구정목표가 너무 추상적이어서 협의과정에 애로사항이 있었다.

2. 구의 자원 및 노력

① 위원들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 우선순위 결정과정의 정확성을 위해 분과위원회 교육과 전체 교육을 나누어 효율적으로 진행.
- 위원들의 적극적인 교육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노력.

② 지역 주민들의 주민참여활성화를 위해 주민참여예산교육을 확대 시행

- 모든 지역 주민들이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제대로 이해하여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주민 그룹을 발굴하여 주민참여예산교육 시행.
- 주민참여예산위원 및 주민참여예산학교 수료자들을 중심으로 지역 회의 적극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지원함.

③ 공무원 등 교육 철저

- 공무원들의 인식개선을 위하여 공무원 교육 적극 시행
-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기획경영과에서 총괄하고, 분과위원회별 담당 간사는 소관과와 협력하여 현안에 대한 정보공유가 필요함.

④ 주민참여예산제도 적극 홍보

- 홈페이지 정비
- 다양한 주민 그룹 설명회
- 주민들이 다수 모이는 공간에 홍보대 설치
- 반회보 적극 활용

3. 주민 의견 수렴 과정 평가

- ① 주민참여예산제도 시행원년이어서 주민들의 실질적인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절차 미흡했다. 주민참여예산 검토안 자체가 구책 사업이거나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기관의 신규사업 중심이어서 위원들이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목적을 찾기 어려웠다.
- ② 복지분과의 경우 주민들과 직접 만나거나 현장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더욱 부족하여 아쉬웠다.
- ③ 주민들의 실질적인 의견을 반영하고 다양한 사업 계획서를 공모하는 과정이 있어야 한다.
- ④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좀 더 많은 주민들의 참여와 의견이 반영되어 처리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4. 주민참여 활성화 방안

- ① 주민참여예산학교 등 구의 각종 아카데미 수료 주민들에 대한 주민참여예산제의 이해 및 참여 유도, 지원프로그램 확충.
- ② 각동 복지협의체 등에서 활동하는 주민들이 지역회의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
- ③ 공동주택 내 커뮤니티 활용 홍보 및 참여 유도

5. 기타 개선 사항

- ① 분과위원회가 단순히 우선순위를 정하는 걸 넘어서서 실질적으로 사업이 제대로 시행이 되는지 적극 모니터링.
- ② 현장방문을 통해서 좀 더 개선할 사업 발굴 및 기존예산 모니터링 통해 낭비예산은 철저히 감시하여 예산경로를 바꿀 수 있는 계기 마련.

- ③ 예산위원들이 주민들 입장에서 변화를 줄 수 있는 것을 제도적으로 바꾸는 것도 필요하고, 주변사례 찾아 의견을 모아서 변화를 모색할 수도 있음.
- ④ 복지 분야는 일자리 문제와 무관하지 않음. 그러나 현재 마을만들기 분과나 복지 분과가 서로 중첩되는 측면이 있기에 이를 보완할 필요성이 있음. 마을만들기 예산이 노인이나 여성의 일자리 문제와 깊은 상관이 있기에 내년도에는 복지분과와 마을만들기 분과가 서로 내용을 공유하고 서로의 진행사항을 알 수 있었으면 함.
- ⑤ 성북구에는 수많은 사회서비스(지역혁신, 아이돌모미, 산모도우미, 요양보호사, 활동 보조인 등 40~50대 중고령 여성들이 많은 일을 하고 있음)노동자들이 많음. 그러나 이들에 대한 일자리는 저임금 일자리이고 불안정한 일자리가 주를 이루고 있음. 이들에 대한 제도적 개선을 통해 지나치게 민간시장에 의존하여 많은 부작용을 낳고 있는 사회서비스 노동자들에 대한 공공적 측면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음.

3) 마을만들기 분과 평가위원회

① 분과위원회 소개

• 마을만들기 분과소개

- 마을 만들기 :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노력을 바탕으로 주민 스스로 삶을 꾸미고 가꾸는 물리적인 환경개선 뿐만 아니라 주민상호간의 관계와 활동을 창조하는 것
- 역할 : 마을만들기사업에 대한 심사와 지역에 꼭 필요한 사업을 발굴함

• 분과위원 명단(8명)

성명	소속지역	성명	소속지역
성낙경(위)*	길음1동	심정곤	안암동
박학용	삼성동5가	신민호	종암동
박현규	돈암1동	이미영	장위1동
김종대	돈암2동	정규현	석관동

*(위) : 분과위원장

• 회의진행

분과명	1차 회의	2차 회의
마을 만들기	2011.10.24(월) 17:00 <미래기획실>	2011.11.2(화) 10:00 <성북아트홀> 10:30 현장조사

② 마을만들기 분과 검토결과

마을만들기 사업은 예산규모가 확정되면, 공모를 통해 각각의 주민협의체가 사업을 신청하고 구에서는 이를 심사하여 지원여부 및 규모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전체적인 예산규모 위주로 검토하였음

도시재생과 요구(안)	분과위원회 조정(안)
(장수마을) 시설비 : 200백만원 - 마을 도로정비 100백만원 - 자투리땅 녹화 및 썸지공원 조성 : 60백만원 - 녹화재료 지원 : 40백만원	없음
마을만들기 공모사업 : 300백만원	없음

공동주택 전기료 지원비(1억원)를 공동주택 커뮤니티 지원사업으로 전환

- 현재 관내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공동주택 관리사업 지원경비로 전기료 지원을 실시하고 있으나, 관리비 일부로 단순 충당되어 일반 세대에서는 성북구청에서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지조차 거의 모르고 있는 실정임
- 삼선동 장수마을 사업과 같이 공동주택 커뮤니티 활성화에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 됨.
- 다만 노후하고, 재정 여건이 열악한 소규모 공동주택 단지 등을 감안하여 공동주택 관리사업 지원경비 1억원은 계속 유지코자 함.

주택관리과 요구(안)	분과위원회 조정(안)
공동주택 관리사업 지원경비:200백만원 - 시설보수 : 100백만원 - 전기료 지원 : 100백만원	공동주택 관리사업 지원경비:100백만원 - 시설보수 및 전기료 공동주택 커뮤니티 지원사업 : 100백만원

장수마을 현장견학

- 주택재개발 예정구역인 삼선동 ‘장수마을’은 노후불량 건축물 밀집지역으로 정비가 필요하나, 주변에 문화재인 서울성곽과 인접돼 있고 급경사 지형이라는 불리한 여건으로 인해 사업추

진이 어려워, 이에 대한 대안으로 주민 주도의 ‘마을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고 함.

- 또한 주거환경이 열악한 ‘장수마을’의 홀몸노인, 저소득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우선 대상으로 집수리 사업을 전개해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벽화사업, 상자텃밭 운영 등을 통해 주민주도의 지역공동체를 형성하고 있었음.
- ‘장수마을’은 뉴타운, 재개발, 재건축 등 개발위주의 사업이 아닌 주민주도의 사업시행을 통해 원주민이 안착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모델이 될 것이라는 느낌을 받았음

마을만들기 운영 위원회와 분과위원의 역할

- 마을만들기 지원조례가 제정되기 전에, ‘분과 위원회’가 만들어져서 ‘마을만들기 운영위원회’와 중첩되는 부분이 있음.
- 따라서 역할 분담이 필요한데, 우선 마을만들기 분과위원들은 1차적 심사를 담당하여, 현장 조사 및 권고의견의 순위를 정해서 운영위원회에 올리고, 운영위원회에서는 공모사업의 최종 심사를 담당하는 걸로 의견 개진됨.
- 추가적으로 분과위원들은 단순히 심사의 범위를 넘어서서, 지역에서 정말 필요한 사업이 무엇인지 주민들 다수의 의견을 모아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음.

③ 회의 주요내용

- 주요 의견 및 결정사항

공동주택 지원경비

- 공동주택 지원경비 2억(시설보수 및 전기료 지원)중 1억을 공동주택 커뮤니티 지원사업으로 전환(성낙경, 박학용, 이미영)
- 다만 공동주택 지원 경비 1억은 노후하고 재정여건이 열악한 소규모 공동주택단지에 대한 시설투자비용으로 지원 결정.(성낙경, 박학용, 이미영)

장수마을 시설비

- 장수마을은 재개발, 뉴타운 등 개발위주의 사업이 아닌 주민주도의 새로운 모델로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 (박학용, 성낙경, 박현규)

마을만들기 공모사업

- 마을만들기 사업은 전체적인 예산규모 위주로 결정
- 마을만들기 지원조례가 제정되기 전에 '분과 위원회'가 만들어져 '마을만들기 운영위원회'와 중첩되는 부분이 있어 이에 따른 역할분담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 (성낙경, 심정곤)
- 분과위원들은 1차적 심사를 담당, 현장 조사 및 권고의견순위를 정해서 운영위원회에 올리고 운영위원회에서는 공모사업의 최종심사를 담당하는 걸로 의견 개진. (성낙경, 정규현, 이미영)
- 추가적으로 분과위원들은 단순히 심사의 범위를 넘어 지역사회에 정말 필요한 사업이 무엇인지 주민의견을 모아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음. (박학용, 성낙경, 이미영)

주민참여예산 마을 만들기 분과 평가

주민참여예산을 처음 시작하면서 주민들의 이해와 홍보에 미흡한 점이 있었지만, 짧은 준비기간에 직접참여에 가능성을 보여주어서 앞으로 문제점들을 개선, 보완, 수정을 통해 나아지리라고 기대된다.

1. 홍보에 대한 문제

주민참여예산과 예산학교에 대한 홍보가 구청 위주로 기획되어 새로운 주민들의 참여가 부족했다. 내년에는 일반 주민들에게 홍보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서 많은 주민들이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이해와 생각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2. 분과 위원들에 대한 문제

분과위원들이 분과에 대한 이해 없이 참여하여 분과 예산심의에 문제와 어려움이 발생했다. 분과위원들이 자신의 분과에서의 역할을 정확히 파악하고, 자신이 참여한 분과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예산위원을 위해 예산학교 교육과 별도의 집중 프로그램 운영 등의 전문적인 교육과정이 필요하다.

3. 마을 만들기 분과 활동 시 문제

마을 만들기 분과는 내년에 사업을 공모 받아 진행을 해야 하므로 평가를 하기에는 시기가 조금 빠른 것 같다.

1) <마을 만들기 분과>와 <마을 만들기 위원회>와의 역할분담이 이루어지지 않아 역할의 혼돈이 있었다. 마을 만들기 분과와 마을 만들기 위원간의 역할 분담이 정확히 이루어지도록 조정이 필요하다.

2) 마을 만들기 사업과 동소규모사업의 연관성이 있음에도 의견이 단절된 상태로 진행되었다. 모든 분과가 특성이 있긴 하지만, 마을 만들기 분과와 동소규모사업 분과는 서로 소통함으로써 더 큰 효과가 있을 수 있는 사업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과간의 소통 없이 진행이 이루어 아쉬움이 있었다. 내년에는 분과간의 소통을 통해 서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3) 마을 만들기 분과의 성격상 단기적 예산으로 집행했을 시 계속 유지되지 못하고 일회적 사업으로 끝날 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 마을 만들기 사업은 공동체 복원을 위한 사업들을 위주로 공모하고 시행하는 사업이므로, 단기적 지원으로는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 그러므로 사업 공모 시 장기적 계획을 가지고서 단계적 지원이 필요로 한 사업에 지원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특히 공모된 사업에 대한 평가 지표 또한 더 고민해서 실행할 수 있도록 논의가 필요하다.

4) 마을 만들기 공모를 하기 위해서는 마을 공동체 복원의 의미와 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를 돕고 주민들에게 마을 만들기 공모사업을 알리기 위한 많은 홍보 전략의 마련이 필요하다.

5) 주민참여예산 위원들이 제안한 의견들이 구의회에서 실행되지 못한 점 또한 평가해야 한다. 가령 공동주택의 공동 전기료 지원금 비용이 소모적인 사용이라는 회의적 의견에 따라 공동체 복원을 위한 사업비로 전환했으나 구의회에서 수용되지 못하였다. 내년에는 구의원들이 예산위원 회의에 참석하여 예산의원들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열린 회의를 진행하여야만 구의회와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유기적으로 협력할 수 있을 것이다.

주민참여예산의 운영은 짧은 기간과 무리한 일정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은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 남은 일정에서 더 많은 주민들과 소통하여 올바른 참여예산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다. 또한 마을 만들기 분과 특성상 내년 초에 공모하여서 진행되므로 앞으로 주민간의 많은 소통을 통해서 좋은 사례가 많이 나오도록 노력해야겠다.

4) 교육분과 위원회

① 분과위원회 소개

• 교육지원 분과위원회 소개

- 성북구 교육지원사업 : 자기주도학습강화 및 멘토링제도 활성화, 예·체능 교육 및 인성교육, 진로적성교육 강화, 평생교육 기관 간 네트워크 구성 및 다양한 프로그램 편성, 친환경 무상급식 단계적 확대 등
- 역할 : 구청 직접 시행사업 확대 분야와 교육관련 건의사항에 대한 토의
학교에 직접 지원하는 교육경비보조금의 적정규모 심의
교육경비 보조금 분야별 지원 비율 조정

• 분과위원 명단(8명)

성명	소속지역	성명	소속지역
서철모(위)*	하월곡동	김종숙	길음2동
김준용	삼선동	이종희	월곡1동
이유경	정릉2동	유귀상	장위2동
지남섭	정릉4동	김기순	장위3동

*(위) : 분과위원장

• 회의진행

분과명	1차 회의	2차 회의
교육지원	2011. 10. 19(수) 17:00 <성북아트홀>	2011. 10. 27(목) 18:00 <성북아트홀>

② 교육 분과위원회 검토결과

• 교육지원 분과 우선순위 선정 대상 사업

(단위 : 백만원)

연 번	사업명	2011년 예산액	2012년 요구액	비고
총계		8,469	10,650	
교육환경개선 (3건)		5,000	5,150	
1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5,000	5,000	
2	관내 예술기관과 연계한 예술창작교육	0	100	신규
3	교육복지특별지원사업	0	50	신규
학력신장지원 (7건)		238	807	
1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 프로그램 운영	64	311	
2	방학 학력신장프로그램 학습경비	109	109	
3	영어마을 학습경비	25	40	
4	학기 중 학력신장프로그램 학습경비	31	39	
5	멘토링 지원	0	213	신규
6	전공·진로 탐색교육 운영	0	86	신규
7	저소득층 자녀 인터넷 수능방송 연회비 지원	9	9	
평생학습지원 (4건)		203	481	
1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99	167	
2	평생학습강좌 위탁 운영	20	20	
3	평생학습축제 참가 및 네트워크 강화	19	39	
3	평생학습센터 운영	65	255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3,028	4,212	
1	무상급식 지원	3,028	4,212	

• 교육분과 주민참여예산 반영사업 목록(6건 4,146백만원)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예산안
• 교육경비보조금	3,500
• 관내 예술기관과 연계한 예술창작교육	100
• 교육복지특별지원사업	50
•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 프로그램 운영	287
• 전공·진로 탐색교육 운영	86
• 멘토링 지원	123

③ 회의 주요내용

• 준비회의 : 분과위원장 선출 등

• 1차 회의

– 참석대상 : 해당 분과위원회 위원, 소관 부서 관계자, 관련 이해당사자 등

– 회의내용 : 주요사업 내용 설명, 관련 이해당사자 의견수렴

– 일시/장소 : 2011. 10. 19(수) 17:00(성북아트홀)

• 2차 회의 이후

– 참석대상 : 해당 분과위원회 위원, 소관 부서 관계자 등

– 회의내용 : 제안된 사업내용 검토 및 우선순위 결정

– 일시/장소 : 2011.10.27(목) 18:00(성북아트홀)

• 주요 의견 및 결정사항

교육경비보조금 축소

– 조례상 세수의 7% 이내로 교육경비 보조금을 지원한다는 조례에 근거해 내년도 예상세입 1,120억을 감안했을 때, 보조금 지원과 무상급식 지원 2가지 분야를 77억에 맞춰서 편성해야 함.

– 무상급식의 경우 42억 여원을 편성하였는데 내년부터 2014년에 걸쳐 초·중학교에 대한 전면적인 무상급식 실시가 박원순 시장의 공약사항이며, 2012년 분담형으로 무상급식 비용을 부담해야 할 경우 구 부담비율은 20%로 현재의 부담률보다 높아질 수 있는 상황으로, 무상급식 비용을 삭감할 수는 없어 교육경비보조금을 줄여 20억을 감액한 30억으로 축소키로 결정(서철모, 김기순, 지남섭)

- 추가적으로 교육경비 보조금은 대부분의 학교가 환경시설개선 비용으로 60%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만큼 시설개선보다는 학력신장의 투자비율을 높이도록 권고키로 함(서철모, 이유경, 김준용)
- 기존 교육경비보조금 내에서 진행하던 예술창작 교육사업은 더욱 활성화 시키기 위해 구에서 직접 시행토록 함 (서철모, 김준용)

교육복지특별지원 사업

- 교육복지특별지원 사업은 교육청 예산에 이미 5천만원 편성되어 있어 우리구도 5천만원 편성키로 결정

전공진로 탐색교육 운영

- 전공진로 탐색교육 운영과 멘토링 지원은 교육경비보조금으로 학교에 지원하는 것보다는 예산대비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구에서 직접 사업으로 진행키로 결정. (서철모, 이유경, 지남섭)

멘토링 지원 사업

- 또한 기존 멘토링 사업이 교육쪽 학력신장쪽에 치우쳐 있어 문예,체육쪽 멘토링 사업 쪽에도 적절히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 (서철모, 지남섭, 김준용)
- 틈새계층과 맞벌이부부 가정을 발굴하여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토록 권고 (이유경, 서철모, 김기순)

교육분과 위원회 평가

주민참여예산제는 20년이 되어가는 우리나라 지방자치제도의 역사 속에서 또 하나의 획을 그을 수 있는 발전적인 제도이다. 지방의회 구성과 민선구청장의 탄생으로 우리의 지방자치제도는 정치민주주의의 발전적인 모습을 보여주었으나 일부 주민을 소외시키고 있는 지방자치제도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주민참여제도가 제 역할을 해 나갈 때 우리 사회는 한층 발전될 것이다. 이에 우리 위원들은 이 시작에 동참하게 되는데 자부심을 느낀다.

그러나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인식의 수준이 열악한 상태에서 우리 위원회가 하고 있는 활동이 미약했다는 조급함에 우리 교육위원은 반성의 목소리를 함께했고 우리들이 활동을 통해 각성한 결과가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더욱 분발하기 바란다.

1. 교육위원회의 평가

교육위원회는 다른 위원회와 마찬가지로 위원회 참여 위원들의 의견이 정확히 공유되지 않고 2번의 회의를 통해 갈등이 증폭된 적이 있었다. 교육위원회에서 다루어야 할 예산내용에 대해 정확한 숙지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학교관계자, 학부모와의 첫 간담회 자리를 갖게 되어, 보다 성숙한 논의를 진행하지 못했던 점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이러한 갈등에는 시기적으로 준비가 미숙한 상태에서 2012년 예산을 다루어야 했던 예산위원들의 당혹감이 그대로 표출된 것으로 이러한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 야기될 문제이기도 하다. 또한 성북구청 관계 부서에게 여러 부분을 의지한 점도 평가가 필요한 부분이다.

2. 교육위원회의 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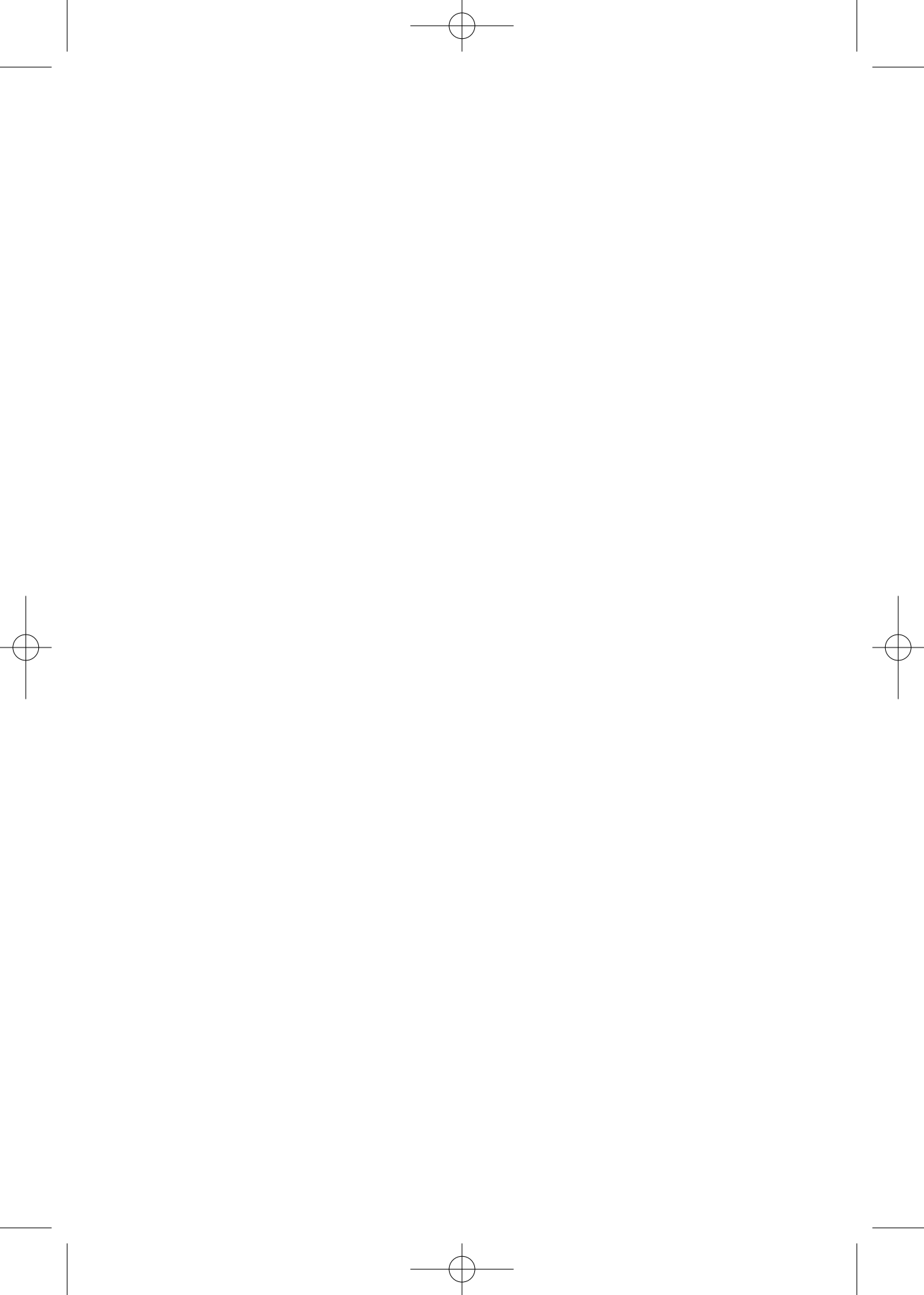
1) 주민참여활성화 방안

위원 중에는 예산학교 수료자들이 참여열기에 비해 주민참여예산위원으로 위촉되지 않아 소외된 측면을 강조하기도 했으나 구에서는 참여예산학교는 구민의 참여와 인식 제고를 위한 과정이었다고 설명하였다. 참여예산위원은 인원수 제한이 있어야 하므로 정확한 위촉과정이 있어야 하고, 의지가 있는 주민들을 어떻게 흡수할 지 더욱 심화된 고민이 필요하다. 또한 동 단위 커뮤니티 구성과 차기 활동인원 충원을 고려해야 한다.

2) 교육위원회 위원들의 자발적 헌신적 활동

현장답사만이 정답은 아니지만 주민들의 필요한 사항을 알고 있고 이를 건의할 수 있기 위해서는 위원들이 자발적인 참여와 회의 소집, 자료수집 과정 등을 거쳐야 한다.

3) 예산위원 교육과 위원회 활동일정을 사전에 공지 및 협의해서 예산위원들이 2012년에 더욱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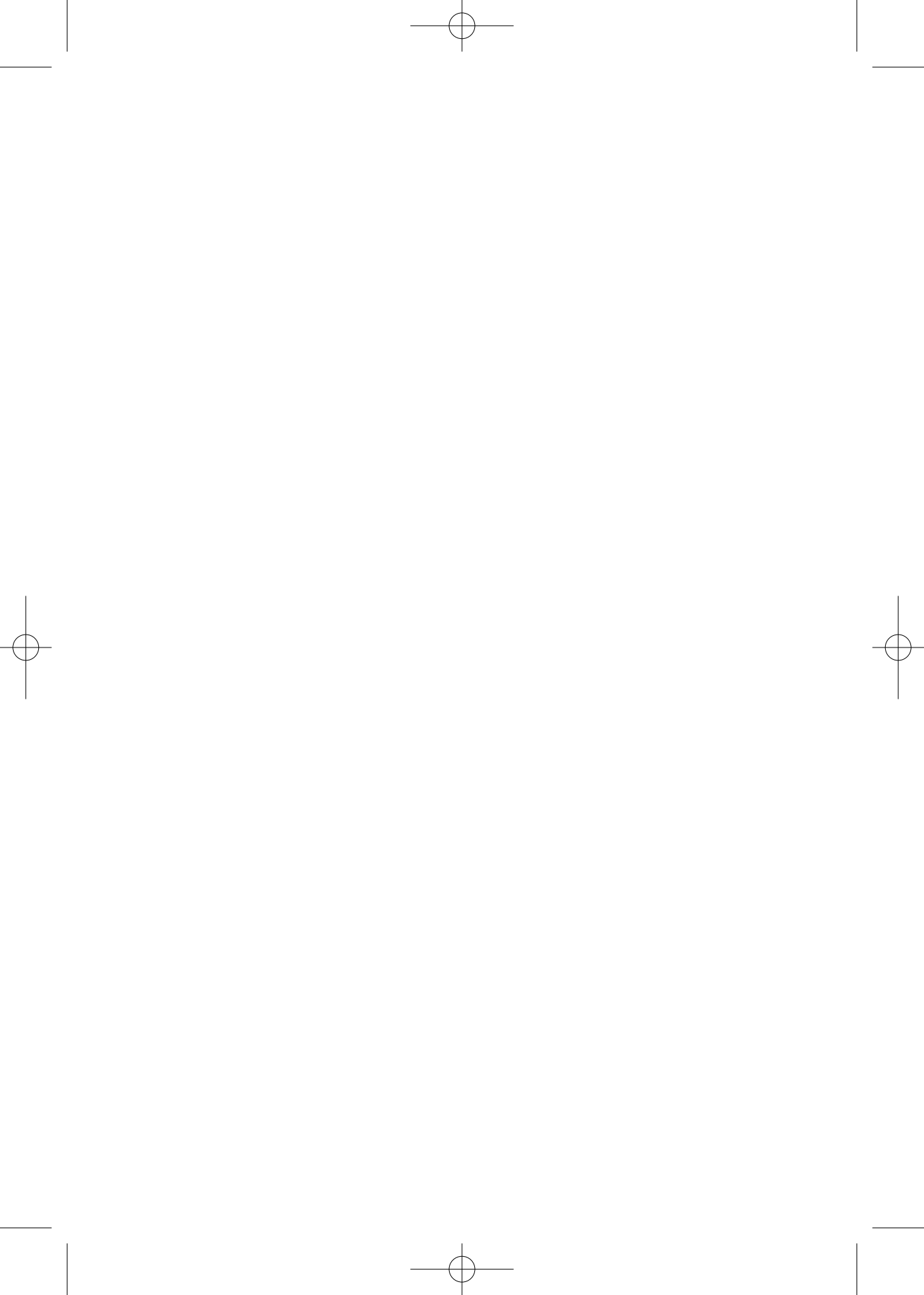
3장

예산위원이 말하는 성북구 참여예산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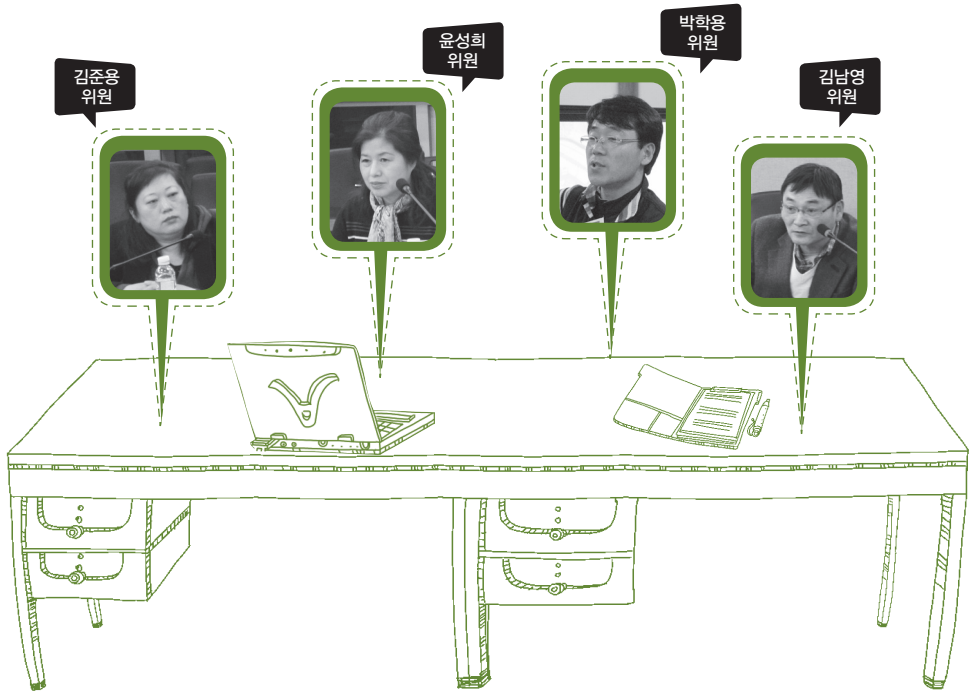
▶ [生生인터뷰] 예산위원이 말하는 성북구 주민참여예산제
“나무를 키우는 마음으로 한 걸음씩”





[초생인터뷰] 예산위원이 말하는 성북구 주민참여예산제

“나무를 키우는 마음으로 한 걸음씩”



2011년 12월 28일, 성북구청 6층 회의실에 주민참여예산위원들의 인터뷰가 진행되었다. 주민참여예산위원이 된 계기부터 각 분과위원회에서 활동하며 느꼈던 보람과 자부심, 애로사항 등을 있는 그대로 기록하였다. 직접 현장을 누볐던 예산위원의 이야기를 듣고 있자니, 성북구 2012년 주민참여예산제가 어떻게 성장해 나갈지 더욱 기대되었다. (편집자 주)

Q 만나서 반갑습니다. 먼저 주민참여예산위원이 되신 계기를 묻는 것으로 시작하겠습니다. 특별한 이유라도 있으신지요.



김준용 위원(교육지원 분과)

관심 있는 사람들만 알고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분과위원들)도 결국 주민으로서 참여한 것이고 이 자리가 우리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을 알리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를 지속적인 민주주의 성장과정으로 보기 위해서는 조직화하는 부분에서 좀 더 홍보하고 교육하는 역할을 구청이 담당해야 합니다.

· 김준용 위원 · 8월에 우연히 주민설명회에 참여해 주민참여예산제를 알게 됐어요. 저는 예산학교에 참여하진 않았어요. 예산학교를 수료해야만 위원이 될 수 있느냐 물었는데 아니라고 해서 예산학교는 참가하지 않고 인터넷 공모에 신청했다. 이 역시 경쟁률이 높아 제비뽑기로 최종 선발을 했고, 그때 운이 좋아 뽑히게 되었습니다. 저같이 생각은 있어도 뽑히지 않으면 할 수 없게 되는 경우도 있고 예산학교를 수료하고도 참가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원하는 사람은 대부분 어떠한 형태로든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한 것 같아요.



윤성희 위원(동 소규모 편익사업 분과)

이제 시작이고 씨앗을 뿌린 단계라 생각합니다. 갑자기 씨앗이 열매를 맺지 않는 것처럼 나무를 가꾸는 마음으로 이 과정에 참여를 해야 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구청장님의 마인드를 땅이라 비유했을 때 성북구는 좋은 땅에 씨를 심은 것 같습니다.

· 윤성희 위원 · 성북구청 홈페이지를 자주 들어갑니다. 평소에 사회운동과 봉사에 대한 관심이 많았는데 인터넷으로 예산학교 신청을 하는

것을 발견하고 참여하게 됐습니다. 무엇보다 주민이 마을에 관심이 있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는 글이 참 마음에 들었습니다. 예산 학교 수료식 때 오전반, 오후반으로 나뉘서 2명씩 예산위원을 공개 추천하는데 뽑히게 됐습니다. 시험을 본다면 잘 볼 자신이 있었는데, 추첨을 한다고 하니 많이 불안했죠. 그래서 그런지 위원에 뽑혔을 때 기분이 무척 좋았습니다. 그리고 예산학교 졸업 후 수료생들 과도 지속적인 만남을 갖고 있습니다.

박학용 위원(마을 만들기 분과)

당분간은 많이 알리고 교육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 주민들이 경험하지 못한 일이니까 자기한테 도움이 되는 건지,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지 모를 겁니다.



• 박학용 위원 • 삼선동에 있는 달동네 장수마을에서 대안개발연구모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마을에서 주민들과 바라보는 구청의 사업은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일이 주민들의 의사와는 전혀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되기도 하고, 주민들이 필요로 하지도 않는 일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주민들이 개입할 여지가 거의 없어요. 일단 계획이 서면 무조건 밀어부치는 거죠.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위원 활동을 통해 성북구의 사업과 예산을 들여다보고 주민들의 의사를 반영할 방법을 찾아보고 싶었습니다.

Q 주민참여예산학교가 두 번 이뤄졌는데요, 예산학교에서 배운 게 도움이 되셨나요?

·윤성희 위원· 예산학교에서 배운 것이 많습니다. 분과를 나누어 토론도 하고 실제로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을 경험하기도 하는 실습과정이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산학교가 끝나고 수안보에서 있었던 워크숍은 예산학교와는 또 다른 공부를 한 것 같습니다. 예산학교를 수강하지 않은 분들을 위한 기본 개념 강의는 같았지만, 전체적 수업 내용이 예산학교와 차이가 있었고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사실 이렇게 빡빡한 일정에서 공부를 해 본 것이 처음이어서 신선했습니다. 그렇게 하루 종일 공부만 한 게 너무 오랜만이라……. 정말 하루 종일 공부만 했어요. 워크숍 이후 위원들과 더욱 돈독해지고 친밀감이 생겨 좋았습니다.



김남영 위원(성북형 복지분과)

결국 주민 중심으로 가기 위해 가장 중요한 건 시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우선 예산위원부터 참여가 잘 돼야 다음을 진행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남영 위원· 포토샵을 배우고 싶어 강의를 듣다 보니 구청 사이트 방문을 하게 됐고, 거기서 주민참여예산 정보를 접하게 되어 참가하게 됐습니다. 주민이 참여해서 예산을 정한다는 것이 참 좋은 생각 같았죠. 하지만 처음 참여예산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정보가 필요해 리서치를 한 후 참여하게 됐습니다. 이제까지는 실제 주인이 국민임에도 힘 있는 사람들의 선심성 행동에 의해 예산이 결정되는 것이

안타까웠습니다. 평소에 이 과정에 참여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고 좋은 기회가 닿아 예산교육이라도 받고 싶은 마음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하반기 동안 운영이 된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 전체적 평가를 한다면?

• 김준용 위원 • 구청장의 굳은 의지에 의해 운영이 잘 됐어요. 구청 담당자 역시 형식적으로 조례에 따라 뿌리는 형태로 제도를 진행한 것이 아니라, 내용을 채우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많이 보였습니다. 같이 참여하는 주민들 역시도 적극적으로 역사의 한 획을 긋는다는 마음으로 삶 속에서 많은 고민을 하고 온 것 같았어요. 기대가 커서 나름대로 많은 평가를 하게 되더라구요. 구의원 분들이 먼저 심각하게 받아들인 것 같아요. 그리고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주민참여예산제’라는 단어의 의미 자체가 ‘주민참여’를 의미하는 것이라 어디까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건지에 대해 많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함께 참여하고 한번 같이 경험했다는 것이 가장 큰 성과라 생각합니다.

조금 더 전체 평가를 하면요, 이렇게 시작은 좋았지만 주민들이 피동적으로 참여한다는 느낌을 받은 것은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자발적으로 회의를 소집하고 우리가 필요한 예산을 편성한 것이 아니라 주어진 예산 범위내에서 참여했었다는 것이 가장 큰 아쉬움입니다. 그래도 시범적으로 시작한 데 큰 의미를 두고 앞으로 그 내용을 채워 가는 것이 큰 과제로 남았다고 생각합니다.

·윤성희 위원· 이제 시작이고 씨앗을 뿌린 단계라 생각합니다. 갑자기 씨앗이 열매를 맺지않는 것처럼 나무를 가꾸는 마음으로 이 과정에 참여를 해야 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구청장님의 마인드를 땅이라 비유했을 때 성북구는 좋은 땅에 씨를 심은 것 같습니다. 튼튼한 나무는 공무원이 만들어 주는 것이 아니고 지역주민들과 합심해서 같이 키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참여예산제를 시행한 지 아직 6개월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업에 대해 평가하는 것은 이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전체적으로 평가를 하자면 저는 성북구가 우리나라의 좋은 사례로 남을 거라 생각합니다. 단지 자치단체장이 바뀌었을 때 어떤 형태로 이어질지가 걱정입니다. 사실 참여한 주민들이 나무를 가꾸는 심정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해 준다면 구청장이 누구냐는 중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운영이 되는 것이 진정한 민주주의라 생각합니다.

·박학용 위원· 시작했다는 데 의의를 둡니다. 시작이 반이잖아요. 솔직히 일부 위원들은 구의 사업 방식이나 주민들과의 소통 시스템에는 관심 없고, 예산 받아 내는 일에만 관심이 있더라고요. 하지만 이것도 관심이고, 참여 동기라고 생각합니다. 이해관계에 따라 사업과 예산을 대하는 태도가 다를 수밖에 없으니까 가능하면 보다 많은 이해관계자들이 협의하고 조정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겠죠.

Q 성북구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4개 분과위원회로 구성되었는데요. 분과위원회 활동이 어떠셨는지요? 다른 자치단체와 다르게 ‘마을만들기 분과’도 있었고, 예산위원회에 결정권을 줬던 ‘동 소규모 편익사업 분과’도 있었잖아요. 많이 궁금합니다.

•윤성희 위원• 저희 동 소규모 편익사업 분과는 위원이 총 8명이고 한 사람당 2~3개의 동을 맡았습니다. 실제 주민들을 모아 놓고 1, 2차 회의를 진행하였습니다. 많으면 150명까지도 참석했는데, 이는 그 지역 동장들의 마인드에 크게 영향을 받는 것 같습니다. 저는 2개 동을 맡았는데 동장님들의 참여로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동장님이 지역회의를 위해 지역에 대한 관심도가 높은 대상리스트를 먼저 선별해 오시고 적극 홍보하는 등 정말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역회의가 이루어졌는데, 여기서 나온 안건들의 공통점이 많아 놀라웠습니다. 공통적으로 발견된 안건을 가지고 동사무소를 돌아다니며 비교해 보는 1차 회의를 가졌습니다. 여기에는 참여 예산학교 출신자, 통·반장, 구의원, 주민자치위원장들이 모두 참석했습니다. 1차 회의 시 안건을 붙이고 2차 회의에서 우선순위 선정하기 전까지 현장견학을 모두 마치고 왔습니다. 당시 동사무소 직원들이 적극 협조해 주어서 효율적으로 견학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사업을 선정함에 있어서는 규칙을 정했습니다. 재개발 지역을 우선 고려하던 방식에 얽매이지 않고, 가구수가 많으면서 문제가 가장 심각한 것, 그리고 고령자와 취약 계층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이렇게 규칙을 정하니 회의를 진행하기가 수월했습니다. 이 규칙은 회의에서 다 같이 정했습니다. 동사무소 직원들의 적극적 참여와 협조 아래 이 규칙의 적용은 동별로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전체 진행방식은 동 소규모 사업 중 무엇을 했으면 좋을지에 대한 주민의견을 먼저 듣고 1차 분과회의가 진행되었습니다. 너무 많은 제안이 들어온 경우 금액을 5천만원 이내로 조절하는 과정에

주민들의 의견 결과를 가지고 직접 현장에 나가 확인했습니다. 이 결과를 가지고 2차 분과회의가 진행되었고 여기서 정해진 규칙을 바탕으로 최종 우선순위가 결정되었습니다.

· 김준용 위원 · 교육지원 분과는 점수를 준다면, 100점 만점에 51점을 주고 싶습니다. 51점이라고 하는 것은 긍정적인 부분을 더 크게 본다는 것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를 이끌어 가기 위해서는 단체장의 의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진짜 좋은 사업이라면 중간에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는 공직자들의 재임기간에만 유효한 사업들을 보면서 큰 희망을 갖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현 구청장님이 좋은 생각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현 구청장님이 있는 동안은 잘 운영될 거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또한 민선 5기에 참여예산학교가 처음 만들어졌고 이를 바탕으로 시스템도 만들어지는 등 한번 운영해 본 경험이 바탕이 되어 시간이 지날수록 발전할 거라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열성적으로 활동하시는 위원들이 있기 때문에 하드웨어든 소프트웨어든 긍정적인 영향을 받는 것 같습니다. 49점에 해당하는 부족한 면은 전문지식 부족과 경험이 부재해 우선순위 선정 시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 김남영 위원 · 저희 복지분과는 최고령, 장애인, 청년, 그리고 장년까지 다양한 연령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 복지라는 것이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말이 어울릴 만큼 모든 계층을 대상으로 한다면 예산은 백억, 천억도 부족하게 됩니다. 이번에 9억3천1백만원이 통과가 됐는데 예산이 한정돼 있어 많은 한계를 느꼈습니다.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우선순위를 정해야 된다고 하니 신규 사업에 손을 댈 수 없는 단점도 있었습니다. 기존 사업을 중지시킬 순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저희는 낮은 위치에 소외되어 있는 사람들을 위해 정말 꼭 필요한 사업을 우선순위로라도 하려고 했었는데 잘 이루어지지 않아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 박학용 위원 • 저는 마을만들기 분과에 참여했어요. 활동기간이 짧아서 아직은 뭐라 평가하기는 이른것 같아요. 마을만들기는 사업 영역이 아주 포괄적이어서 다른 분과와 소통과 협의조정을 잘 해나가야 할 것 같아요. 거기에서 마을만들기지원 조례가 제정되고, 마을만들기 운영위원회와 센터가 별도로 만들어졌어요. 역할이 중복되지 않도록 관계설정을 잘 해야 할 것 같아요.

Q 부천시 사례를 보면 교육 경비 보조금을 지급하는 부분은 해당 예산위원들이 학교를 다 방문해 현장 조사를 하고 더 시급한 학교를 우선순위에 두었는데, 내년에 교육분과도 그렇게 운영할 가능성이 있나요?

• 김준용 위원 • 저희 교육사업분과 역시 현장을 견학하고 이를 반영하는 방향으로 운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분과위원회 활동보고를 할 때 다른 분과들이 현장조사를 했는데 우리는 현장조사가 조금 미약했습니다. 또한 주민설명회 당시 위원회모임을 함과 동시에 학교 관계자들이 많이 참석하면서 의견을 제시하기 어려웠습니다.

성북은 주민조직이 매우 활성화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장들이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저 이름뿐인 활동을 하는것은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리고 네트워크 체제

를 만들기 위해선 위원장 체제로만으로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총무(간사)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간사가 위원장한테 알려주는 시스템이 되면 좋은데 현재는 분과별로 연락이 원활하게 되고 있지 않아요. 또한 위원들의 일정을 사전에 고려해서 조정하는게 필요합니다.

Q 주민이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참여예산제, 너무 중요한데요. 2012년부터 주민이 주도하고, 주민의 참여를 더욱 이끌어 내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김남영 위원· 주민참여예산 운영 과정 중 우선순위 선정 시에 갈등이 있었습니다. 저는 여러 안건 중 ‘자원봉사자 지원금을 증액시키자’라는 의견을 냈지만 관철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오래전부터 자원봉사자들의 중요성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을 지원해 주면 그들의 영향력이 얼마나 클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하는 사람들에게 표창과 선정 후 인터넷 공표 등 자긍심을 심어줄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예로 신생아 지원금으로 20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소정의 돈을 지급하는 것과 신생아 의료서비스를 무료로 지원하는 것 중 무엇이 더욱 실천적인 지원일까요? 보여여주기 위한 사업들이 아닌 진정으로 그들이 원하는 것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사업들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소수 보다 다수를 위한 근본이 있는 사업 집행이 필요합니다.

·박학용 위원· 당분간은 많이 알리고 교육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 주민들이 경험하지 못한 일이니까 자기한테 도움이 되

는 건지,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지 모를 겁니다. 그리고 위원들이 주민들의 욕구와 사업아이템을 발굴하고, 제안하고, 설득하고, 참여를 이끌어내야죠. 그렇게 사례가 하나 둘 쌓이고 알려지면 ‘우리도 한 번 해보자’라는 욕구가 점차 확산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윤성희 위원• 각자 생활 패턴이 달라 사람을 모으는 게 가장 힘듭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 경험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싶다 할 때 저는 성북천으로 사람들이 가장 많이 운동하러 나오는 시간에 직접 가 인터뷰를 합니다. 인터뷰를 하다 보면 개의 대소변 문제가 쉽게 언급되고 이에 관해 주민들의 의견을 묻고 개선 방안에 대해 인터뷰를 이어 진행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애완동물을 데리고 나올 수 있는 시간대를 정한다거나 기저귀 채워야 성북천변을 이용할 수 있게 한다는 규칙을 세우는 등 응답해 준 주민의 특성에 맞게 다양한 답이 나왔습니다. 즉 사람이 모이는 장소로 내가 찾아가야 합니다. 사실 의견에 부합하는 곳이 있다면 이렇게 찾아가면 되는데 문제는 부합하는 장소가 없는 경우, 의견을 수렴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가정방문하는 것은 더욱 어렵습니다. 결국 행사장 위치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대한 스케줄을 잘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의 숙제는 사람들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장소와 시간을 아는 것입니다.

•김준용 위원• 주민참여예산제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홍보부분이 중요할 것입니다. 우리가 활동하는 것에 대한 스케치나 사진 등을 홈페이지

에 올리거나 반사회 홍보지에 내용을 신는 등의 홍보 과정이 필요합니다. 관심 있는 사람들만 알고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분과 위원들) 결국 주민으로서 참여한 것이고 이 자리가 우리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을 알리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를 지속적인 민주주의 성장 과정으로 보기 위해서는 조직화 하는 부분에서 좀 더 홍보하고 교육하는 역할을 구청이 담당해야 합니다.

·김남영 위원· 각기 직업이 있는 상황에서 자발적 참여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모두 모여 회의를 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기가 어려웠습니다. 예산위원·운영위원들에게 일정의 돈을 줘야 한다는 의견도 있는데, 이걸 그들의 기회비용을 생각해 줘야 한다는 의미일 겁니다. 하지만 저는 돈을 꼭 줘야 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결국 주민 중심으로 가기 위해 가장 중요한 건 시간을 만드는 것이고 우선 예산위원부터 참여가 잘돼야 다음을 진행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인 의지로 열정을 가진 분들이 활동을 하면 좋은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저도 명확한 답을 얻지 못했습니다.

전체 복지분과를 평가하자면 위원들의 전문성이 부족했고 이를 극복할 수 있는 교육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사실 강의를 듣고 교육을 받으려면 시간이 있어야 하는데 교육을 받을 시간을 내는 것조차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를 어떻게 제도권 안에 끌어들일 수 있을지 시간을 맞출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고민이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Q 2012년 성북구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기대가 높습니다. 내년을 어떻게 준비하실지 비전을 말씀해 주세요.

·윤성희 위원· 전체적으로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조직을 만들어 끌어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개별적 문자 독려를 하는 등과 같은 활동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분과위원장끼리라도 회의를 가져야 합니다. 현재 분과위원장들은 관계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데 문제는 분과 위원장들이 분과 사람들과 단절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위원장은 분과위원들 모두를 끌고 갈 수 있어야 하고 회의내용을 공유해야 합니다. 조직 전체 위원장 분과위원장들이 그 위치에 맞는 역할을 적극적으로 해 주어야 합니다. 즉 분과위원장들은 분과구성원들을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구청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합니다.

·박학용 위원· 저는 마을만들기 분과에 참여하고 있으니 주민참여 마을만들기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만드는데 주력하고 싶어요.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 장수마을에서 좋은 사례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고, 장수마을 외에도 다양한 사례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마을만들기센터를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죠. 동네의 문제를 주민 스스로 해결해 나가는 마을만들기가 확산된다면 주민참여예산제의 취지는 절반 이상 성공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남영 위원· 인터넷 카페는 내부 시스템을 구성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잘 운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예산편성과 관련해 주민들의 건의 사항을 수렴하는 방법을 살펴보면 관 회보가 높은 비중

을 차지했습니다. 이를 수렴하는 과정이 좀 더 다양해져야 합니다. 예를 들면 구청에서 하는 여러 교육의 시작과 끝 시간에 10분, 20분 정도 시간을 마련해 주민참여예산제에 관해 홍보를 하는 겁니다. 모아서 홍보하는 것은 힘들지만 모인 사람들 앞에서 홍보하는 것은 쉽습니다. 참여예산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틈틈이 기회를 만들어 주민참여예산제 홍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인터넷 홍보도 좋습니다. 관심을 일으킬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열어 놓아야 합니다.

Q 그렇다면 홍보는 누가 하는 게 좋을까요?

•윤성희 위원• 현재 20개 동에서 주민자치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 프로그램 시작할 때나 끝날 때 시간을 내어 담당자들이나 위원들이 소개하는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각 동별로 예산위원이 있으니 위원이 가서 해도 좋고 동에 자치프로그램 담당자가 해도 됩니다. 우리 동의 소식을 전하고 접하고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주민참여예산위원들이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청 7층에 자원봉사자 단체가 있습니다. 이들에게 홍보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다양한 관계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들의 홍보는 2차, 3차 홍보로 이어질 수 있어 효과가 클 겁니다. 자원봉사자뿐만 아니라 동사무소 직원들이 하는 홍보 역시 지속적인 홍보로 이어질 수 있을 겁니다.

•사회자• 여러분의 생생 인터뷰는 이 책을 읽는 여러 지방자치단체 관계자분들께도 도움이 되는 귀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

4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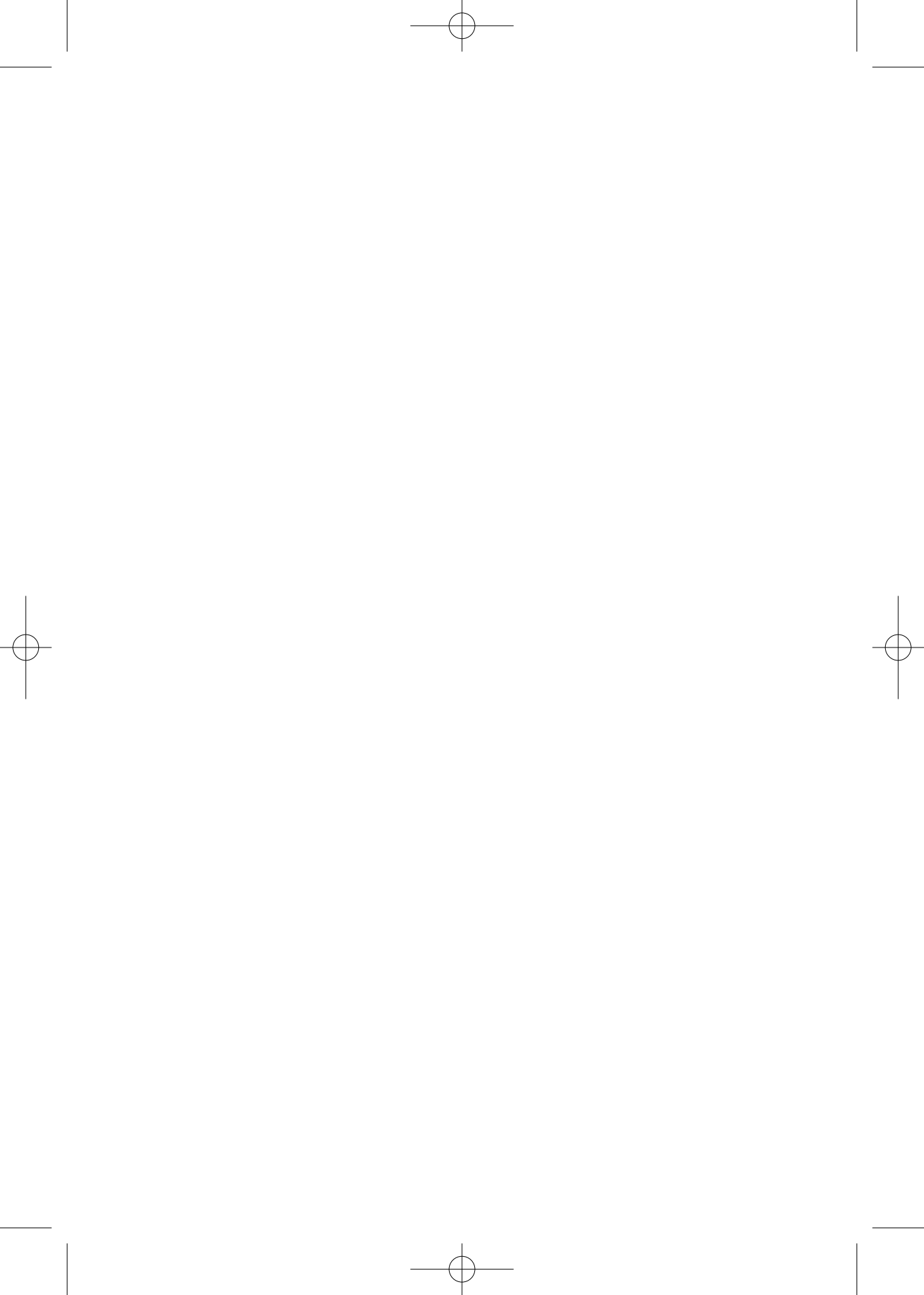
주민참여예산제 고민거리와 지역 사례 탐색



▶ 성북구 참여예산제를 구상한다!

- 주민참여예산제 고민거리와 다른 지역 사례 탐색





성북구 참여예산제를 구상한다!

주민참여예산제 고민거리와 다른 지역 사례 탐색



<성북구 주민참여예산 연구회>가 뜨다

<성북구 주민참여예산 연구회> 위원
안영신(성북형 복지 분과위원장)
성낙경(마을만들기 분과위원장)
서철모(교육지원 분과위원장)
박우형(동 소규모 편익사업 분과위원)
전택기(동 소규모 편익사업 분과위원)
송창석(희망제작소 부소장)
최인욱(좋은예산센터 사무국장)
송정복(희망제작소 연구원)
이창림(풀뿌리자치연구소 이음 운영위원장)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분과위원회 활동이 마무리면서, 2011년 5월
부터 일찌감치 성북구 참여예산제를 준비했던 「성북구 주민참여예
산 추진준비단」이 11월에 「성북구 주민참여예산 연구회」(이하 「연구

회)라는 이름으로 옷을 갈아입었다. 5월 상황과 다른 점이 있다면, 이제 엄연히 성북구 참여예산위원이 된 5명이 「연구회」 활동을 시작했다는 것이다. 「연구회」의 목적은 뚜렷했다. 우선 2011년 5월부터 진행된 운영 과정 상의 문제점을 찾고, 이에 대한 개선점을 찾는 것이었다. 다른 기초자치단체의 사례는 문제의 실마리를 찾고 2012년에 보다 발전된 참여예산제를 기획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연구회」는 2011년 11월 10일, 11월 24일, 12월 20일 세 차례에 걸쳐 주민참여예산백서의 기획방향, 운영과정 상의 문제점, 주민제안 및 의견수렴방법의 적절성, 주민참여 활성화 방법 등에 대해 두루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장은 「연구회」가 그동안 평가하고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탐색했던 노력의 흔적이다. 세 차례의 토론 과정에서 가장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제기됐던 문제점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연구회의 고민거리와 대안 모색

1. 주민참여예산제의 각 기구는 어떻게 구성해야 하는가?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은 각 기구의 구성과 위상, 역할에 따라 많이 달라질 수 있다. 기존의 여러 지역 사례를 분석해 볼 때, 주민들의 참여는 크게 세 가지 형태로 이뤄진다. 각 동별로 진행되는 지역회의(혹은 주민위원회)와 지역회의를 통해 제안된 안건들을 최종 심의·조정하기 위한 주민참여예산위원회(혹은 시민위원회, 구

민위원회), 심의·조정이 완료된 안건들을 대상으로 우선순위 투표를 진행하는 주민총회이다. 그 외에 참여예산제의 운영을 지원하는 역할로서 1년 간의 참여예산제 운영계획을 수립하는 주민참여예산 연구회(혹은 추진준비단)가 있다.

〈표 4-1〉 지역별 주민참여예산제 각 기구별 위원 수

*2012.2.10 기준

지역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수	지역회의 위원수	민관협의회 위원수	연구회 위원수
서울 성북구	40명	460명 (동소규모 편익사업 부분)	—	9명
광주 북구	100명	195명	12명	10명
울산 동구	100인 이내	272명	10명	15인 이내
대전 대덕구	100인 이내	120명	11인	—
서울 서대문구	30명 이내	100명	—	—
서울 은평구	96명	152명	13명	10명
인천 연수구	60명	110명	10명	7명
경기 부천시	100명 이내	3700명	15명	11명
경기 수원시	60명 이상	40명	—	13명

*성북구는 지역회의를 전체 분과위원회에서 운영하지 않고, 「동 소규모 편익사업 분과」에서만 사업 우선순위 선정을 위해 부분적으로 시행함.

주민참여예산제의 각 기구별 구성 현황을 확인해보면, 지역회의는 100명~3,700명까지 위원 수가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으며,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30명~100명 수준으로 위원을 구성하고 있다. 민관협의회는 제안된 안건들의 최종 심의기구로서 해당 지자체 공무원과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이 포함되며, 서울 성북구와 서대문구, 수원시는 운영하지 않고 있다.

1) 주민참여예산위원회(구민위원회, 시민위원회)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과정 중에 행정의 예산편성 과정에 직접 참여하기 때문에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핵심적인 의사결정 단위이다. 따라서 이 위원회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지역회의 혹은 주민위원회, 홈페이지나 우편엽서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제안된 안건을 수렴하여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그 내용을 행정의 예산편성 과정에 효과적으로 반영시키는 것이다. 최종 의사결정 단위로 주민총회나 민관협의회 등을 상정한 자치단체의 경우에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우선순위 선정 업무가 핵심 업무가 되지만, 각 부서가 제안하는 사업과 주민 제안 사업 간의 조정과 예산의 효과적 배치를 위한 1차 협의 창구로서의 역할은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고유 역할이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위원 수는 행정구역의 인구 규모와 행정동의 개수에 따라 차이가 있다. 구성 인원 수의 차이가 있지만 대체적으로 동별 주민회의에서의 추천, 공개모집을 통한 추천, 학계 전문가 및 시민단체 관계자에 의한 추천으로 구성된다.

참여예산이 실질적인 주민참여 제도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기존 활동이 많은 통·반장, 주민자치위원 이외에도 새로운 주민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 따라서 주민참여예산제에서 공개모집 비율은 중요하다. 공개모집의 적절한 비율은 정해진 것은 없지만, 전체 위원 수의 절반 정도가 적합하다는 의견이 많다. 현재 주민참여예산제를 의욕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성북구, 서대문구, 은평구, 광주 북구, 울산 동구, 대전 대덕구 등은 전체 위원의 50% 이상을 공개모집으로 위촉하고 있어 타 지자체에 좋은 선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표 4-2〉 지역별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 현황

*2012.2.10 기준

지역	위원 수	위원 구성	명칭
서울 성북구	40명	공개추첨 20명 예산학교 수료자 9명 대학교수 등 관계전문가 5명 국장급 당연직 6명	주민참여예산 위원회
광주 북구	100명	동별 지역회의의 추천 주민자치위원1인 동별 공개모집 2인 (전체 26개동) 비영리 단체 추천	예산참여 시민위원회
울산 동구	100명	공개모집 50인 동별 주민자치위원회 추천 : 20명 (전체 9개동) 시민 · 사회 · 직능단체 추천 30인	주민참여예산 시민위원회
대전 대덕구	100명	공개모집을 통해 전체 위원 1/2 이상 동별 지역회의의 선출 2인(전체 12개동) 시민 · 직능단체 추천	예산참여 구민위원회
서울 서대문구	30명	지역회의의 대표 14명 공개모집 16명	주민참여예산 위원회
서울 은평구	100명	공개추첨 50명 추천 50명	참여예산 시민위원회
인천 연수구	60명	공개모집 26명 지역위원회가 추천 22명(각동 2명) 시민 · 사회 · 직능단체, 기관, 학계등의 추천 12명	주민참여예산 구민위원회
경기 부천시	100명	시민대표 74명 (동별 주민회의의 추천 위원 2명) 추천 26명 : 전문가, 시민단체 등	주민참여예산 시민위원회
경기 수원시	60명	공개모집 30명 이상 : 인터넷 및 서면접수 추 천 30명 이내 : 시민단체, 학계, 지역 회의 등의 추천	주민참여예산 시민위원회

2) 지역회의(주민위원회)

지역회의는 참여예산제도를 시행하는데 가장 기초단위로서 일반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적극적인 장치이다. 주민참여예산제 1세대라고 평가받는 울산이나 광주의 조례에는 지역회의가 조례상 보장되어 있고, 서울시의 경우 6개 자치구가 지역회의의 의무 설치를 명시하고 있다. 지역회의 구성은 읍·면·동을 기초단위로 하고, 참여인원 수는 제한없이 공개모집할 것을 제안하고 있지만 현실적인 운영 형태는 각 동별 10명 이내로 제한을 두고 공개모집을 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지역회의를 권역별, 직능 주제별로 구성하는 것이 현재의 참여예산제를 확대하는데 보다 적합하다는 지적도 있다.

현재 지역회의는 예산에 대한 지역주민의 의견을 제안받고, 제안 사업에 대해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서대문구의 경우처럼 지역회의 위원이 상시적으로 회의를 운영하는 형태가 아니라 공시된 지역회의 일자에 불특정 다수 주민이 참여하는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도 있다. 지역회의가 없는 지역의 경우에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주민 의견수렴처로서 더욱 그 중요성이 커지게 된다.

성북구의 2011년 지역회의는 시범적인 형태로 운영되었다. 타 지자체의 경우에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구성하기 이전에 각 동별로 지역회의 위원을 별도 모집하고 역할이 주어지는 반면에, 성북구는 「동 소규모 편익사업 분과」에서만 부분적으로 운영하였는데 분과위원회 회의 이전에 각 동의 구의원과 일반 주민들이 모여서 주민제안 사업에 대해 1, 2차 회의를 진행하는 방식이었다. 두 차례의 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동 소규모 편익사업 분과」 위원들이 직접 현장을 조사하고 사업의 우선순위를 선정하였다.

〈표 4-3〉 지역별 지역회의 구성 현황

*성북구는 지역회의를 전체 분과위원회에서 운영하지 않고, 「동 소규모 편익사업 분과」에서만 사업 우선순위 선정을 위해 부분적으로 시행함.

*2012.2.10 기준

지역	위원 수	위원 구성	명칭
광주 북구	195명	동별 7~11명 전문그룹 20, 자영업 75, 주부 66, 기타 34 30대 3명, 40대 64명, 50대 92명, 60대 이상 36명	예산참여지역회의
울산 동구	195명	제한없이 참여 제적위원 수 20명 이상 주민자치위원, 시민위원, 관내주민	지역회의
대전 대덕구	120명	동별 10명 이내 동장이 위촉	지역회의
서울 서대문구	100명	해당지역 거주주민 누구나 참여 주관 : 동장	지역회의
서울 은평구	152명	1회 : 불광 1동 51명 2회 : 진관동 63명 3회 : 신사 1동 38명	지역회의
인천 연수구	110명	각동별 10명씩 동별위원장, 부위원장 선출	지역위원회
경기 부천시	3700명	동별 100명 이내 해당 동 대상 공개모집	주민회의
경기 수원시	40명	구청별 10명 이내 모집(구별 20명 이상) : 인터넷 및 서면 접수 추 천(구별 20명 이내) : 시민단체, 학계, 동 추천 등	지역회의

3) 민관협의회(조정위원회)

민관협의회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대표들과 지자체 행정의 대표가 만나 협의한 후 최종적으로 예산편성안을 합의하는 기능을 한다. 이 경우에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결정 사항이 민관협의회 협의 과정에서 반복되는 상황이 발생해 예산위원회의 권한이 대폭 축소될 우려가 높다. 따라서 학계 및 시민단체 전문가는 민관협의회에 자치단체장이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또한 최종 의사결

〈표 4-4〉 지역별 민관협의회 구성 현황

*성북구는 민관협의회를 구성하지 않음.

*2012.2.10 기준

지역	위원 수	위원 구성	명칭
광주 북구	12명	조정위원회 : 공무원 6명, 시민위원회 6명	예산참여 민관협의회
울산 동구	10명	공무원 : 구청장, 부구청장, 각 국장 시민위원: 시민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각 분과장 위원장 : 구청장, 부위원장 : 부구청장과 구민위원회 위원장	주민참여 예산협의회
대전 대덕구	11명	구청장, 부구청장, 본부장 3명, 기획감사팀장, 구민위원회 위원장, 분과장 4명	주민참여 예산협의회
서울 은평구	13명	위원장 : 참여예산시민위원장 부위원장 : 참여예산위원 위원 : 구의회의원 2명, 기획예산과장, 차지행정과장 2명, 각분과장 5명, 정책기획시민위원장 1명, 구정평가시민위원장 1명	운영위원회
인천 연수구	10명	구청장, 부구청장, 각 국장, 보건소장, 분과위원장	민관협의회
경기 부천시	15명	위원장(시장) 1명, 시민위원회 추천7명, 공무원 7명	조정위원회

정단위로 주민총회의 역할을 강화해 주민총회의 투표를 통해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는 필요성도 제기된다.

4) 주민참여예산연구회(추진준비단)

주민참여예산연구회는 주민참여예산제를 의욕적으로 운영하는 지자체에서 설치하는 단위로 지역의 참여예산제도에 대한 평가와 환류, 차년도 계획 수립을 주 기능으로 하고 있다. 참여예산제도를 전반적으로 지원하고 실행한다는 점에서 주민참여예산연구회의 유무에 따라 해당 자치단체의 1년 운영과정의 결과가 달라지게 된다. 주민참여예산연구회는 추진준비단이라는 용어로 사용할 수 있으며, 성북구의 경우에는 5월 경에 추진준비단을 구성했고 11월 초순에 연구회로 이름을 변경해서 차년도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표 4-5〉 지역별 연구회 구성 현황

*2012.2.10 기준

지역	위원 수	위원 구성	명칭
서울 성북구	9명	예산관련 전문가 4명, 참여예산위원 5명	주민참여예산연구회
광주 북구	10명	교수 2명, 의회 1명, 시민단체 2명, 공무원 3명, 기타 2명	주민참여예산연구회
울산 동구	15명	예산관련 전문가, 관련분야 종사자, 시민단체 관계자	주민참여예산연구회
서울 은평구	10명	은평구에 소재한 기관 및 사업체에 근무하는 시민, 행정·예산분야에 경력이 있거나 구정에 관심많은 시민	구정평가시민위원회

*2012.2.10 기준

지역	위원 수	위원 구성	명칭
인천 연수구	7명	공무원 3명, 구의원 1명, 구민위원장 1명, 교수 1명, 시민단체 1명	연구회
경기 부천시	11명	시의원 3명, 시민위원회 2명, 재정전문가 2명, 민간단체 2명, 공무원 2명	연구회
경기 수원시	13명	시장위촉 6명: 예산관련 전문가, 시민단체 관계자, 기타 당연직 3명 : 예산업무 담당팀장, 재정 분석팀장, 기타 관계자 공무원 4명 : 구 지역회의 담당팀장 ※ 간사(1명) : 별도 선출	연구회

2. 지역회의는 어떻게 운영해야 하는가?

1) 조례에 지역회의의 근거 규정을 두어야 하는가?

성북구의 2011년 주민참여예산제에서는 동 소규모 편익사업 부분에 한정해 지역회의를 시범 운영하였다. 현실적으로 지역회의를 구성하지 않는 지역들이 다수 있어, 이 경우에는 참여예산위원회가 일차적인 주민 의견 수렴의 역할까지 담당해야 한다. 하지만 주민 의견 수렴의 가장 기초 단위가 지역회의이고, 다양한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참여를 활성화한다는 점에서 지역회의의 중요성은 항상 강조된다. 이에 성북구 「참여예산 연구회」에서도 성북구 조례에 지역회의를 의무화하는 개정을 할 것인지, 현재 상태에서 지역회의를 대체하는 다양한 방법을 기획할 것인지 토론이 진행되었다. 세 차례의 토론 결과, 성북구는 조례 개정보다는 현재 조례안의 범위 내에서 권역별 지역회의를 운영해보자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 성북구는 공식화된 지역회의가 없는데, 주민참여예산학교 동문회나 그런 분들이 지역 일에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통로가 되자는 겁니다. 동문회 출신자 등이 지역회의에서 주체가 되어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뭔가 물꼬를 터줄 수 있는 작업이 필요합니다_송창석
- 주민입장에서 주민은 자리를 채워주는 역할만 하게 될까 우려가 됩니다. 참여예산위원들도 공무원이 준비한 안으로 심의하게 되면 예산위원들의 역할이 축소됩니다. 참여예산위원 뿐만 아니라 많은 주민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지역회의를 조례안으로 담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봅니다_안영신
- 지역회의는 조례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다른 이름으로 운영될 수 있지 않을까요?_최종준
- 지역회의가 형식을 갖추기 어렵다면 어떤 포맷으로 갈 건지까지 현재의 체계 내에서 만들어가야 합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이 잘 되면 지역회의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게 되므로,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에 대한 평가를 하고, 동별로 회의를 만들기까지 구체적으로 접근했으면 합니다._박우형
- 지역회의를 하더라도 동 보다는 권역별로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원안인건지, 동별 지역회의로 가야 하는건지..._참여예산홍보팀장
- 원안이 있는게 아니고 굳이 동별 지역회의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 각 지역의 특성에 맞게 하고, 주민참여가 확대되면 더 넓힐 수 있습니다._최인옥
- 여러모로 내년도는 권역별로 푸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시범적으로 시작을 하는 거기 때문에 같이 하면서 학습, 훈련을 하고 그 후에 동별로 분화하는게 맞다고 봐요_안영신

- 권역별로 하더라도 회의, 의견수렴, 동소규모 사업 심의까지 모든 과정을 전체로 권역별 지역회의에 진행하는게 어떨 지...
_송정복
- 논의를 하되 결정하는 과정에서 각 동별 참여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확대하는 형태가 좋다고 봅니다._박우형
- 지역회의가 주민들이 학습하고 훈련하는 장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_안영신

• 서울시 자치구의 지역회의 조례현황

성북구의 주민참여예산 조례에는 명시적으로 지역회의가 드러나 있지 않다. 그렇다면 다른 자치단체 사정은 어떨까? 2012년 2월 기준으로, 서울시 자치구 주민참여예산 조례를 확인한 결과 지역회의가 명시된 자치구는 도봉구, 노원구, 은평구, 서대문구, 구로구, 관악구 총 6곳으로 확인됐고, 19개 자치구는 지역회의의 명시 규정이 없었다. 그렇다면 6개 자치구의 주민참여예산 운영 조례에 지역회의는 어떻게 규정되어 있을까? 잠깐 그 내용을 살펴보자.

〈표 4-6〉 서울시 각 자치구 조례 상의 지역회의 명시 사례

*2012.2.10 기준

	각 자치구 주민참여예산 운영 조례	특징
도봉구	제23조(지역회의) 예산편성에 관한 지역 주민의 의견을 효율적으로 수렴하기 위하여 구의 예산이 편성되기 이전에 동별로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동별 지역회의의 개최를 의무 규정 -최소 참여 인원 규정은 없음

	각 자치구 주민참여예산 운영 조례	특징
노원구	제10조(구성 및 운영) ① 구청장은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주민의견수렴을 위하여 동별로 주민참여예산지역회의(이하 “지역회의”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지역회의는 해당 동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통장,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으로 구성한다. 단, 주민자치위원 및 통장의 수가 3분의 1이 넘지 않도록 한다.	-지역회의 구성은 임의규정 -주민자치위원 및 통장 1/3 이하로 제한
은평구	제18조(지역회의 회의) ① 지역의제 설정 등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연 1회 이상 지역회의를 개최한다. ② 지역회의는 지역회의 위원과 지역주민 10명 이상 참석으로 성립하며, 출석인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지역회의 구성은 의무규정 -10명 이상 참석
서대문구	제10조(구성 및 운영) ① 구청장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주민의 의견수렴을 위하여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이하 “지역회의”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제12조(회의소집 및 의결) ① 구청장은 지역회의를 연 1회 이상 개최할 수 있으며, 주민의 참여를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지역회의는 20명 이상의 참석으로 성립하며, 안건은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지역회의 구성은 임의규정 -20명 이상 참석
관악구	제15조(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 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각 동에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민참여예산 ○○동 지역회의(이하 “지역회의”라 한다)를 둔다. ② 지역회의의 위원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0명 이내로 구성한다.	-지역회의 구성은 의무규정 -50명 이내
구로구	제20조(구성 및 운영) ① 구청장은 주민의견을 효율적으로 수렴하기 위하여 동별로 주민참여예산지역회의(이하 “지역회의”라 한다)를 둔다. ② 지역회의의 구성은 동별 20명 이내로 한다. ③ 지역회의의 위원은 주민자치위원회 등 동 단위 자생단체 회원 및 지역회의에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으로서 공개모집 절차에 의해 선정된 사람 중에서 동장이 위촉한다.	-지역회의 구성은 의무규정 -20명 이내 참석

2) 지역회의는 어떻게 운영해야 하는가?

지역회의는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하는 전 과정의 가장 기초가 되는 구성단위이다. 주민참여예산연구회가 1년의 참여예산제 운영 과정을 설계하고 기획하는 역할을 담당한다면, 지역회의는 바닥로부터 주민들의 의견과 제안이 수렴되는 첫 번째 공식적인 회의통로가 된다. 따라서 가능하면 적은 규모(읍·면·동 단위)의 행정구역마다 지역회의를 구성하는 것이 적절하다.

지역회의 참여 주민의 범위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시민위원회, 민관협의회 등이 일정한 수의 위원들로 구성되는 것과 다르게 원하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방형으로 구성하는 것이 적절하다. 이는 지역회의 위원을 한정된 인원으로 제한할 경우, 기존에 구청에서 조직한 통·반장, 직능단체 회원 등이 중복적으로 역할을 맡게 될 확률이 높아 일반 주민의 참여가 제한되기 때문이다. 주민참여예산제를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자체의 경우, 일반 주민의 참여 폭을 확대하기 위해 지역회의의 위원 수를 제한하지 않고 전원 공개모집의 방식으로 위촉한다. 참고로, 안양시의 경우에는 지역회의 위원을 제한하지 않고 공개모집하고 있으며 부천시도 동별 100명 이내로 구성해 총 3,700여명의 지역회의 위원을 모집한 바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지역에서 동별로 지역회의 위원을 10명 이내로 제한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지역회의가 주민들이 제안한 안건을 단순 분류 취합해 우선순위를 선별하는 기능에만 머무르지 않도록 지역주민들의 폭넓은 의견 수렴을 위한 활동 기구로 그 역할을 명확히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 지역회의 실제 운영 사례 탐색

주민참여예산 운영 조례 중 지역회의의 규정을 가진 서울시 6개 자치구 중에서 서대문구의 2011년 사례를 확인해 보자. 서대문구는 14개 동별로 각각 지역회의를 계획했고, 참여 대상은 서대문구 주민 모두를 대상으로 했다. 처음부터 각 동별 지역위원을 구성하지 않아 지역회의가 지속적으로 운영되지는 않았으며, 각 동별 1회 이상 개최를 목적으로 하였다. 동별 지역회의에 부여된 권한은 수렴된 주민의견 중 우선순위 3건을 결정하는 것과 지역회의 대표를 선출하는 것이었다. 각 동별 지역회의에서 선출된 대표 14명은 자동으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됐다.

〈서대문구 지역회의 개요〉

- 시기 : 2011.08.25. ~ 09.08.
(기간 중 1회 이상, 19:00 ~ 21:00)
- 대상 :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누구나
(100명 이상 참석토록 홍보)
- 장소 : 동별 동주민센터 등(100명 이상 참석 가능한 장소)
- 주요 기능 - 2012년도 예산편성 관련 주민의견 수렴 및 우선
순위 결정 : 3건 이내
- 지역회의 대표 선출

〈표 4-7〉 동별 지역회의의 진행과 지역회의의 후 조치 사항

구 분	내 용	비 고
업무 설명	• 2011년도 주요 업무 계획 및 현안 사항 설명	동장
주민참여예산제 및 지역회의 방식 설명	• 2011년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계획 및 지역회의 설명	지역강사
주민 의견 수렴 및 우선순위 결정	• 2012년도 예산편성을 위한 의견 수렴 ⇒ 동별 3건 이내	담당주사
지역회의 대표 선정	• 2차 주민참여예산학교 수료 가능자 • 의견 제출자 및 일반 주민 우선순위 부여	담당주사
회의결정서 작성	• 지역회의의 결정서 작성	간사

구 분	내 용	비 고
지역회의의 결과 통보	• 지역회의의 결정서	동주민센터 → 예산팀
공모 의견 및 지역회의의 의견 취합, 통보	• 공모 의견과 지역회의의 의견 취합 후 해당부서로 통보	예산팀 → 해당부서
공모 의견 및 지역회의의 의견 검토 결과 제출	• 공모 의견과 지역회의의 의견 검토 후 결과제출(서식3)	해당부서 → 예산팀
사업 부서 검토 결과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송부	• 검토 결과 취합 후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 송부	예산팀 → 주민참여예산 위원회

서대문구의 동별 지역회의는 별도의 지역회의의 위원을 위촉하지 않고 다양한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이끄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즉 지역회의라는 회의 공간을 실질적으로 활용할 주민단은 구성하지 않았다. 이러한 운영 시스템에서는 지역 주민의견이 최종적으로 참여예산위원회로 수렴되고, 그만큼 참여예산위원회 자체의 역할과

〈표 4-8〉 동별 지역회의 우선순위 사업 현황

사업분야	건수	사업내용
	42	동별 3건
수송 및 교통	18	주차장 확보, 조명, 통행로 확보, 계단정비, 보도블럭 교체 미끄럼방지 포장 등
환경보호	9	무단투기CCTV, 야외음악당, 하수관 교체, 도시가스관 음식물 수거통 등
국토 및 지역개발	5	공원 정비, 야생화 단지 조성, 벽화 그리기
사회복지	3	경로당 설치, 통합 봉사 차량 동별 배정
공공	3	방범용CCTV 설치
산업·중소기업	2	아치 설치, 버류시장 조성
교육·문화·관광	2	청소년 꿈터 만들기, 농구대 설치

*자료 출처 - 서대문구 홈페이지 〈주민예산참여방〉 2011. 8. 9. 게시물 “1% 주민참여예산제 세부운영계획” 중 7쪽

비중이 높아지게 된다.

이와 다르게 지역회의에 참여할 주민을 처음부터 조직하고 들어가는 형태도 가능하다. 대전 대덕구의 경우, 각 동별로 10명씩 추천을 받아 120명의 〈지역참여단〉을 구성해 운영되었다. 〈지역참여단〉은 지역회의에 상정될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 구민위원회¹⁾의 활동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인천 연수구는 지역회의 공간을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한 사례이다. 대전 대덕구와 유사하게 인천 연수구도 각 동별로 〈지역주민위

1) 대전 대덕구의 경우,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아닌 구민위원회를 구성한다. 구민위원회는 120명의 지역 참여단과 공개 모집된 구민 64명, 지역 대표단에서 2명씩 추천하는 인사 24명(동별 2명씩), 시민단체 및 직능단체에서 추천하는 12명, 총 100명으로 구성된다. 구민위원회는 내부적으로 4개의 분과위원회로 나뉘어져 있다.



지역회의에서 서대문구 주민들이 우선순위 투표를 하고 있다. 사업을 홍보하는 패널에 스티커를 붙여 의견을 표시했다.



지역회의에서 대표를 선출하는 모습. 서대문구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총 29명이었는데 그 중 14명이 지역회의 대표로 구성되었다. 나머지 15명은 공모에 의해 선정되었다.

원회》를 구성해 각 동별로 10명씩 추천을 받아 총 110명의 지역위원을 구성했다. 연수구의 〈지역주민위원회〉는 각 동별로 지역회의의 확대된 형태인 동 총회를 기획·준비하고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역할을 한다.

〈2011 연수구 옥련 1동 지역주민위원회 회의 진행 사례〉

- 1차 회의(5.30.) 지역단체와의 1차 간담회 및 주민제안서 배포, 의견 수렴
- 2차 회의(6.14.) 지역단체와의 2차 간담회 및 주민제안서 배포, 의견 수렴
- 3차 회의(6.28.) 지역 동 총회 기획안 검토, 지역총회 초대장 배포
- 4차 회의(7.5.) 주민제안서 취합 및 분석 시작(옥련 1동 주민 1% 참여를 목표로 함)
- 5차 회의(7.12.) 지역 동 총회 준비
- 동 총회(7.16.) 지역주민에 의한 사업 우선순위 선정
- 6차 회의(7.19.) 지역 총회 평가 및 지역 요구안 결정



인천 연수구의 지역주민위원회 위원 위촉식



수원시 장안구의 지역회의 모습

현재 〈성북구 주민참여예산연구회〉는 권역별 지역회의 개최 여부를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다. 권역별 지역회의를 진정한 주민 참여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각 동별로 지역참여단, 지역주민위원회 등을 구체적으로 구성할 것인지, 구성한다면 어떤 기능과 역할을 할 것인지, 지역회의가 주민들에게 교육의 장으로 활용되기 위해서 어떻게 할지 등이 주요한 검토 대상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서울시 자치구 조례상 지역회의를 규정한 곳은 6개 자치구에 불과하고, 성북구는 지역회의의 규정이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의욕적으로 지역회의를 구상하는 중이다.

3. 사업의 우선순위 선정을 위해 어떤 기준이 필요한가?

〈성북구 주민참여예산연구회〉의 큰 고민 중에 하나는 우선순위 사업을 선정하는 기준에 대한 고민이었다. 실제로 2011년을 운영한 결과 각 분과위원회에서는 주민이 제안한 다양한 사업을 선별하는 기준이 없어 혼란스러웠다는 평가를 제출했다. 특히 주민과 구의

회의 의견이 엇갈린 경우나 주민들 간에도 의견 차이가 극명한 쟁점 사업이 있는 경우, 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데에 기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출되었다. 이러한 애로 사항은 비단 성북구만의 문제는 아니다. 주민참여예산제 1세대라 평가받는 울산 동구, 광주 북구, 대전 대덕구, 전북 익산시에서도 우선순위 사업에 대한 선정 기준과 최종 예산 반영 사업에 대한 평가 기준에 대해 고심을 했었다.

보통 사업의 우선순위 결정은 지역회의, 주민총회, 분과위원회, 주민참여예산위원회 혹은 주민참여예산협의회 등의 모든 회의 과정에서 진행된다. 특히 분과위원회의 우선순위 결정이 최종 예산편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이 보고되고 있다. 가령 울산광역시 동구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 최종 예산편성 결과는 분과위원회의 우선순위 결정이 예산편성에 영향을 미쳤음을 보여 준다. 울산광역시 동구의 경우, 소관 부서가 높이 평가한 2개 사업이 분과위원회에서 낮은 우선순위를 받아 예산에 편성되지 못했고, 1개 사업은 분과위원회에서 높은 우선순위를 배정받아 예산에 편성되었다. 이렇게 소관 부서의 검토, 분과위원회의 우선순위 결정,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통한 심의와 조정은 보다 나은 예산편성을 가져올 수 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의 경우, 울산 동구와 마찬가지로 분과위원회에서 높은 우선순위를 배정받은 사업들이 예산에 편성된 사례를 찾을 수 있었다.

〈표 4-9〉 동별 지역회의 우선순위 사업 현황

2009년도 예산안 결정 내역	
울산 동구	① 재정문화분과 도시디자인팀 : 소관 부서 우선순위 1위 사업이 4위로 바뀌어 예산편성되지 않음. ② 재정문화분과 문화체육과 : 소관 부서 우선순위 3위 사업이 13위로 바뀜으로 예산편성되지 않음. ③ 자치행정분과 자치행정과 : 소관 부서 우선순위 20위 사업이 7위로 바뀜으로 예산편성되지 않음.
대전 대덕구	① 행정지원분과 자치행정팀 : 소관 부서 우선순위 2위 사업이 1위로 바뀜으로 예산편성됨. ② 사회산업분과 경제팀 : 소관 부서 우선순위 3위 사업이 1위로 바뀜으로 예산편성됨. ③ 도시교통분과 도시녹지팀 : 소관 부서 우선순위 5위 사업이 1위로 바뀌었지만 재정 열악으로 인하여 장기 과제로 분류됨.

*자료 출처 - 「2009년도 당초예산 심의조서」, 울산광역시 동구청(2008)
 「2008년 주민참여예산제 주민참여예산협의안 및 회의자료」, 대전광역시 대덕구청(2008)

이렇게 지역회의, 분과위원회의 우선순위 사업 결정 내역이 최종 예산결정에 미치는 영향은 크다. 하지만 주민참여예산제 1세대라 언급되는 4개 자치단체가 별도의 우선순위 선정기준을 표준화된 형태 즉, 전국 지자체에서 활용 가능한 수준의 자세한 기준을 정립하고 있지는 않다. 다만 동별 지역회의, 동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기획되는 위원 회의와 주민총회에서 수십 개 제안 사업을 대상으로 투표를 통해 결정한다.

이에 반해 브라질 포르투 알레그리, 독일의 리히텐베르크의 경우 교통, 복지, 문화 등 여러 영역에 대해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투표를 실시하고, 우선순위 사업 중 최우선 사업을 선정하는 과정에서는 세밀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가령, 브라질의 경우 지역총회에서 선정된 사업에 대해 우선순위 점수를 매기고, 지역별 참여자 규모와

지역 인구수 등의 지표에 가중치를 부여해 점수를 계산해 사업을 최종 선정하고 있다. 오랜 기간 운영해 온 노하우인 셈이다.

브라질의 예산 결정 과정의 기준에 대해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자. 아래에 기술될 브라질 포르투 알레그리 사례는 풀뿌리자치연구소 이음에서 2007년 10월에 발표한 『포르투 알레그리 현장조사보고회 - 포르투 알레그리는 무엇을 말하는가』에 수록된 자료 중의 일부이다.

『포르투 알레그리 현장조사보고회』 자료 중 발췌

포르투 알레그리의 참여예산제에서 최종 예산결정을 하는 데에는 세 가지 기준이 있다. 첫째 지역의 우선순위, 둘째 주제별 요구, 셋째 정부의 필요이다. 지역에서는 주민총회 이전에 지역이나 주제별 회합을 통해 주제를 분류하고 이에 대한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이를 토대로 총회에 참가한 참가자가 해당 지구의 우선순위 4가지를 투표하며, 전체 16개 지구별로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 우선순위 사업이 정해진다. 우선순위는 1순위부터 4순위까지이며 1순위가 4점, 2순위 3점 등 순위마다 점수가 매겨진다.



우선순위를 기입하는 용지

시 차원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기 위해 전체 16개 지구의 우선순위를 합산해 전체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것이 1차 예산 모형이 된다. 이를 토대로 시는 주제별 회의에서 제안된 안과 시의 장기적인 틀에서 결정되는 투자 계획 등을 고려하여 1차 모형이 최종 결정된다. 이를 기본으로 하여 시 각 부서의 예산 지출이 배분되고, 이후 참여 예산평의회에 상정되어 표결에 부쳐진다.

〈표 4-10〉 1차 배분 모형에 의한 산출 예시

지구	기본적 위생설비	주택	도로정비	교육	사회복지	건강	운동/교통	레저공간	스포츠와 레저	도시체제	경제개발	문화	환경
HUMÁITA/NAVEG./ILHAS	3		1	2		4							
NOROESTE	4				1	3					1		
LESTE	4	3	2		1								
LOMBA DO PINHEIRO	1	2	4		3								
NORTE	3		2	4		1							
NORDESTE	1	4	3		2								
PARTENON		2	4	1	3								
RESTINGA			3	4	1	2							
GLÓRIA	2		4	3		1							
CRUZEIRO		4		2	3	1					3		
CRISTAL		4		1	2								
CENTRO-SUL	2	4	3	1									
EXTREMO-SUL	3	2	4			1							
EIXO BALTAZAR	1			2		4							
SUL	3	3	4	1	2								
CENTRO		4		1		2						3	
TOTAL SUM	27	32	34	22	18	19	0	0	0	0	4	3	0

자료: Sérgio Baierte(ONG-CIDADE)의 발표자료(2006)

2차 배분 모형은 3가지 기준에 따라 부여되는 등급을 합산하고 각각에 정해진 계수를 곱해서 구해진다. 3가지 기준은 인구, 공공서비스와 인프라의 부족 정도, 우선순위이다. 2차 배분 모형에 의해 실질적으로 사용 가능한 자원의 배분과 지구별 할당될 투자분이 결정된다.

〈표 4-11〉 인구규모별 기준

인구 규모	점수	가중치	산출
25,000명 이하	1점	2	1×2
25,001~45,000	2점		2×2
45,001~90,000	3점		3×2
90,001명 이상	4점		4×2

자료: Sérgio Baierle(ONG-CIDADE)의 발표자료(2006)

〈표 4-12〉 공공서비스와 인프라 부족 정도

부족 정도	점수	가중치	산출
0101%~14,99%	1점	4	1×4
15%~50,99%	2점		2×4
51%~75,99%	3점		3×4
76% 이상	4점		4×4

자료: Sérgio Baierle(ONG-CIDADE)의 발표자료(2006)

〈표 4-13〉 지역 우선순위

우선순위	점수	가중치	산출
4순위	1점	5	1×5
3순위	2점		2×5
2순위	3점		3×5
1순위	4점		4×5

자료: Sérgio Baierle(ONG-CIDADE)의 발표자료(2006)

위의 예산 배분 모형을 토대로 예를 들면, 우선 1차 모형에 의해 해당 연도에 도로포장을 20km 하는 것이 결정되었다고 하자. 이에 대해 16개 지구 중 레스팅가 지역의 사례를 들면, 우선순위는 3점(가중치 5점) 15점, 인프라 부족 정도 1점(가중치 4점) 4점, 인구 규모 3점(가중치 2점) 6점 등 모두 25점이다. 이는 6.94%에 해당하므로, 전체 20km 중 1,389m가 레스팅가 지역의 사업량이 된다.

〈표 4-14〉 도로포장에 있어서 2차 배분 모형에 의한 산출 예시

지구	지구의 우선순위			인프라 부족 정도			인구 규모			점수 합계	결과 %	결과 (M)
	NOTA	PESO	SUB TOTAL	NOTA	PESO	SUB TOTAL	NOTA	PESO	SUB TOTAL			
HUMÁITA/NAVEG. /ILHAS	1	5	5	1	4	4	3	2	6	15	4,17	833
NOROESTE	0	5	0	1	4	4	4	2	8	12	3,33	667
LESTE	2	5	10	1	4	4	4	2	8	22	6,11	1.222
LOMBA DO PINHEIRO	4	5	20	3	4	12	3	2	6	38	10,56	2.111
NORTE	2	5	10	1	4	4	3	2	6	20	5,56	1.111
NORDESTE	3	5	15	2	4	8	1	2	2	25	6,94	1.389
PARTENON	4	5	20	2	4	8	4	2	8	36	10,00	2.000
RESTINGA	3	5	15	1	4	4	3	2	6	25	6,94	1.389
GLÓRIA	4	5	20	2	4	8	2	2	4	32	8,89	1.778
CRUZEIRO	0	5	0	1	4	4	3	2	6	10	2,78	556
CRISTAL	0	5	0	1	4	4	2	2	4	8	2,22	444
CENTRO-SUL	3	5	15	2	4	8	4	2	8	31	8,61	1.722
EXTREMO-SUL	4	5	20	3	4	12	1	2	2	34	9,44	1.889
EIXO BALTAZAR	0	5	0	1	4	4	3	2	6	10	2,78	556
SUL	4	5	20	1	4	4	3	2	6	30	8,33	1.667
CENTRO	0	5	0	1	4	4	4	2	8	12	3,33	667
TOTAL										360	100,00	20.000

* NOTA: 점수, PESO: 가중치

자료: Sérgio Baierle(ONG-CIDADE)의 발표자료(2006)

그러나 이러한 산출 기초에 의해 결정된 이후에도 인근 지역별 논의와 협의를 통해 공사 구간이나 배분이 조정되는 등 다소 탄력적으로 운영되기도 한다.

브라질 포르투 알레그리의 경우, 우선순위 사업은 각 지역별 총회에 참석한 주민들의 투표를 통해 결정된다. 이렇게 결정된 우선순위 사업들은 1차 예산 배분 모형을 작성한 후 인구 규모, 공공서비스와 인프라 부족 정도, 우선순위 등의 기준을 반영해 최종 점수로 합산되어 결정된다. 한국의 사례와 비교했을 때, 예산 투자를 위한 최종사업 선정 기준이 표준화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산타클라라카운티에 있는 서니베일(Sunnyvale city)의 우선순위 도출 과정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서니베일에서는 연간업무계획을 수립할 때 작년 1년 동안 시의회, 시 공무원, 시민이 협력하여 중요한 이슈를 도출하고, 시의회가 최종적으로 검토된 23개 이슈를 대상으로 ‘December Study Workshop’에서 차기 년도 우선순위 이슈를 결정한다. 모든 부서에서 제안된 이슈들을 검토하여 부서 리스트에 추가하거나 탈락시킬 것들을 중요도에 따라 도출하고, 이에 대한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과정에 주민이 참석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국내 사례 중 인천 연수구의 우선순위 선정 기준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연수구는 4개 분과위원회의 우선순위 결정 기준과 공통 우선순위 결정 기준을 구분했다. 공통 우선순위 기준은 기대 효과, 예산 집행의 가능성, 공공성, 시급성이다. 세부적으로 각 분과위원회 결정 기준은 아래 표와 같다.

〈표 4-15〉 인천 연수구의 2011년 분과별 우선순위 결정기준

일반 행정	문화 복지	도시 환경	건설 개발
• 기대 효과 • 예산집행의 가능성 • 공공성	• 현장 실사 후 우선 순위 기준을 정하고 순위를 결정하기로 함	• 4개 구 지역회의 의견청취 • 합의 가능한 부분 먼저 합의 • 나머지 위원들 우선순위 정하기 • 가장 많이 나온 순으로 정하기	• 안정성 • 공공성 • 편의성 • 소액 예산

〈성북구 주민참여예산연구회〉는 2012년 분과위원회 활동 시부터 적용될 수 있는 우선순위 선정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보다 공공적 가치를 담으면서 성북구 주민 다수가 동의하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반영되는 기준이 필요하다는 논의에는 합의가 되어 있다. 문제는 성북구 지역의 특성에 맞게 표준화할 것은 표준화하고, 지역 특성을 담은 것은 담은 지표의 형태일 것이다.

4. 분과위원회는 어떻게 구성해야 하는가?

현재 성북구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안에 교육지원 분과, 동 소 규모 편의사업 분과, 마을만들기 분과, 성북형 복지 분과를 두고 있다. 다른 자치단체와 다르게 마을만들기 분과가 있는 것이 특징인데, 성북구가 마을만들기 사업에 큰 관심과 기대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반영한다. 하지만 2011년 첫째 동안 운영된 분과위원회 구성에 대해 여러 가지 평가가 제기됐다.

타 지자체의 운영사례를 분석해보면, 분과위원회는 대개 행정의 업무담당 부서와 연계시켜 분과를 구성하고 있다. 분과위원회를 주민들의 관심이 높은 주제별로 구성하자는 의견도 있지만 예산편성 과정 자체가 행정 각 실·과·소에서 예산요구액이 정해지고, 이를 다시 심의·조정하는 과정에 주민제안을 반영한다는 점에서 분과위원회를 행정 각 부서와 연계하는 기존의 방식이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다. 다만 주민이 요구하는 사업을 담당하는 부서가 2~3개 연계된 경우 그리고 분과위원회 간에 사업내용이 중첩된 경우 이를 조정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고민이 필요하다.

〈표 4-16〉 타 자치단체의 분과위원회 구성현황

*2012.2.10 기준

	분과위원회 구분	해당부서
대전 대덕구청	행정자치분과	기획감사팀, 총무팀, 자치행정팀, 세무팀, 홍보문화팀 민원지적팀, 대덕구평생학습원, 의회사무과
	사회산업분과	경제팀, 복지지원팀, 주민복지팀, 환경관리팀 청소위생팀, 보건소
	도시교통분과	도시녹지팀, 건축팀, 교통팀, 대덕공원관리사업소
	건설재난분과	건설팀, 생활안전팀
광주광역시 북구청	자치행정분과	총무과, 주민자치과, 민원봉사과, 일곡도서관 의회사무국, 동주민센터, 기획감사실
	재정경제분과	세무과, 회계과, 경제정책과, 기업지원과, 문화진흥과 홍보전산과
	문화보건분과	위생과,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두암보건지소 주민생활지원과
	주민생활분과	가정복지과, 희망복지과, 환경과, 청소행정과
	도시교통분과	도시개발과, 건설과, 건축과, 교통과, 공원녹지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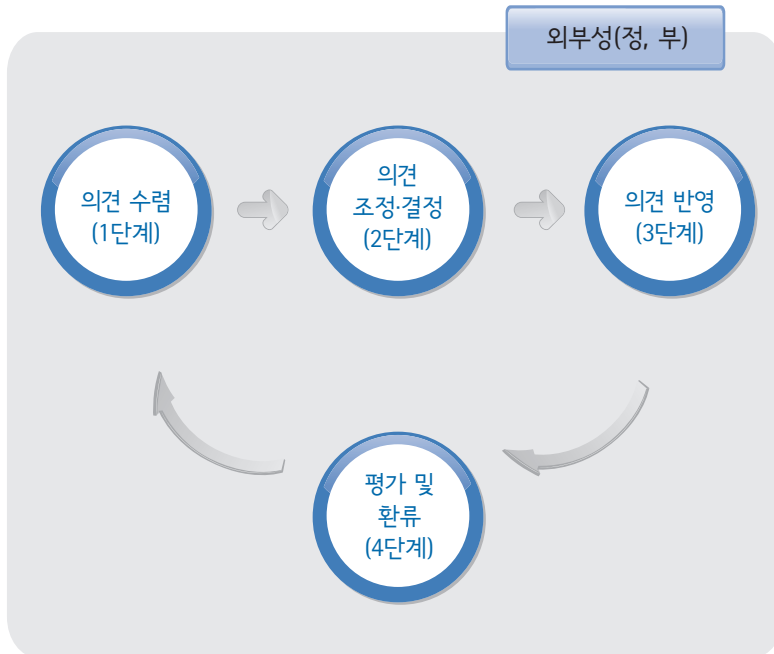
	분과위원회 구분	해당부서
전북 익산시	기획행정분과	기획예산과, 세무과, 징수과, 회계과, 지식정보과 행정지원과, 의회사무국,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읍면동
	전략산업분과	투자유치과, 일자리창출과, 문화관광과, 경영개발과 농업기술센터,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 유적전시관, 보석박물관, 소리문화예술회관
	주민생활지원분과	여성친화담당관,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여성친화정책과, 종합민원과, 체육진흥과 국민생활관, 시립도서관, 함열출장소
	환경녹지분과	환경위생과, 청소과, 산림공원과, 왕궁환경개선과 보건소
	건설교통분과	도시개발과, 건설과, 주택과, 재난안전과, 교통행정과 도로관리과, 상하수도사업단, 차량등록사업소
부천시	자치행정분과	일반행정, 자치센터, 교육지원, 체육
	경제문화분과	지역경제, 문화예술, 농산지원
	사회복지분과	사회복지, 보훈, 시민보건
	도시개발분과	도시재개발, 녹지공원
	환경청소분과	청소행정, 환경보호, 상하수도
인천 연수구	교통도로분과	교통행정, 도로건설, 재난안전
	문화환경분과	문화체육과, 청소행정과, 환경보전과, 위생관리과, 연수어린이도서관
	도시관리분과	도시국 소관과
	주민생활지원분과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지역경제과, 보건소
	기획행정분과	기획감사실, 자치행정국 소관과, 의회사무과

5개 지자체에서 운영되는 분과 구성을 확인해 보았다. 대부분 행정 기능별로, 주제별로 분과를 4~6개를 구성했으며, 각 분과위원회마다 인원은 15명 내외로 구성하였다. 성북구의 4개 분과위원회의 분과명이 다소 협소한 주제 영역에 한정되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2012년 분과위원회 구성은 보다 폭넓은 주제 영역을 담는 방향으로 개선될 것이다.

5. 주민참여가 보장되는 새로운 의사결정 시스템 제안: 원주시 사례

주민참여예산제를 의욕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지자체는 주민참여예산제 전체 운영과정에 주민참여를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새로운 의사결정 방법을 고민하게 된다. 이에 대해 강원도 원주시의 경우에 2011년에 ‘의사결정단계 모형’을 개발해, 전체 4단계 틀에 맞춰서 의견수렴(1단계)-의견조정·결정(2단계)-의견반영(3단계)-평가 및 환류(4단계)에 맞춰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했다.

〈원주시 의사결정단계 분석틀〉



*출처-원주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인터넷카페(<http://cafe.daum.net/yourvoiceinwonju>)

〈원주시 주민참여예산제 의사결정모형의 특징〉

1단계 - 주민의견 수렴 단계

주민들이 자신의 요구를 표현하는 단계 혹은 주민 의견 수렴 단계이다. 통상 지역회의를 거쳐 의견을 모으고 주민참여위원회로 올라오기 전 단계이다.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공개설명회, 예산정책토론회, 읍면동 간담회, 지역회의 등의 논의기구를 통해 주민들의 의견이 제시된다.

- 2011년 활동 : 읍면동설명회, 인터넷 설문, 주민참여예산위원 개인요구, 기타 읍면동에서 만든 읍면동 요구안

2단계 - 주민의견 조정·결정 단계

수렴된 주민 의견을 놓고 일정한 우선순위 결정 기준이나 의사결정 규칙에 근거하여 상호 토론, 비교 검토를 통해 타당한 수준이나 만족할만한 수준에서 결정하는 단계이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 회의, 분과위원회 회의 등을 통해 해결한다. 의사결정기준은 최적화를 추구하기 보다는 만족할 만한 수준에서 합의를 전제로 한다. 그러므로 총회와 같은 다수결의 원칙 또는 수정된 만장일치에 의해 최종 합의 과정이 필요하다.

- 2011년 활동 : 분과위원회 활동(논의과정, 현장답사, 기각된 의견 처리 등), 총회 우선순위 결정 방법 등

3단계 - 주민의견 반영 단계

주민들의 의견이 지역회의 등을 통해 수렴되고, 주민참여위원회 회의 등을 통해 의견이 통합·결정되어 최종 논의를 거친 후 실제 예산에 반영되는 단계를 말한다.

- 2011년 활동 : 최종 의견을 원주시 본 예산안에 반영하기 위한 논의 구조

4단계 - 평가 및 환류 단계

1~3단계까지 절차가 진행된 이후 과정에서 나타났던 오류와 한계를 평가하고 이를 차기 과정의 내용에 반영하기 위한 평가 단계이다. 의사결정 주체들 간의 의견교환, 쌍방향 의사전달과정을 위해 구성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고 상대방의 의견을 받아들여 환류시키는 연속적인 과정은 발전된 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과정이다.

- 2011년 활동 : 평가회의 구성, 평가항목, 평가경로 및 방법 등의 문제

외부성 - 외부 영향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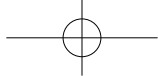
외부성은 경제학적 개념으로 어느 한 경제주체의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이득이나 피해를 가져다주는 현상을 의미한다. 위원들은 긍정적 인 외부성 요인으로 합리적인 선택을 돕는 정보제공, 홍보 및 교육을 평가하고, 부정적인 외부성 요인으로 주민참여예산위원의 전문성 여부, 의사결정비용 규모, 주민과 집행부의 인식차이를 평가한다.

- 2011년 활동 : 주민교육, 위원 교육

관계 공무원과의 협조 관계(예산부서, 각 사업부서)

조례 제정, 각 종 회의방법과 절차, 홍보방법 등

원주시는 위 의사결정단계 모형에 근거하여 주민참여예산위원들이 각 단계별로 조를 편성하여 조별모임, 토론회, 평가워크숍을 진행하도록 돕고, 위원들은 각 단계별로 누적된 결과를 바탕으로 최종 평가하는 과정을 가진다. 각 단계별로 제시된 의사결정 항목에 근거해 의견을 정리하는 형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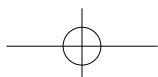


6. 주민참여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은?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하는 지역이라면 한결같이 나오는 고민이 바로 어떻게 하면 주민참여가 활성화될 수 있느냐이다. 성북구는 6월 29일 「성북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가 가결되자 즉시 7월 14일부터 8월 말까지 구청장과 함께하는 주민설명회를 진행했다. 권역별 주민설명회를 4회 진행하면서 550여 명의 주민을 만났고, 직능별 주민설명회를 9회 진행하면서 930여 명의 주민을 만났다. 주민설명회는 주민참여예산학교 참여 희망생을 모집하고, 성북구 주민의 의견 1100여 건을 수렴하는 뜻깊은 자리였다. 특히 전체 설명회 진행 과정에 구청장이 참여하면서 주민들의 참여와 관심은 더욱 깊어졌다. 하지만 주민설명회에서 만났던 1,480여 명의 주민들이 이후 예산학교,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 모두 참여할 수 없는 현실적 한계로 인해 지역의 소중한 예비 주체들을 조직화하는 데 한계를 보였다. 자치단체장의 의지도 중요하지만 주민의 참여를 조직화하기 위한 노력이 동반되어야만 한다는 점을 실감할 수 있었다. 그렇다면 어떠한 시스템을 만들어야 주민참여가 더욱 활성화되고, 참여한 주체들을 다시 지역의 일꾼으로 성장시킬 수 있을까? 이 문제는 비단 성북구의 문제이기보다는 모든 자치단체가 고심하는 문제이기도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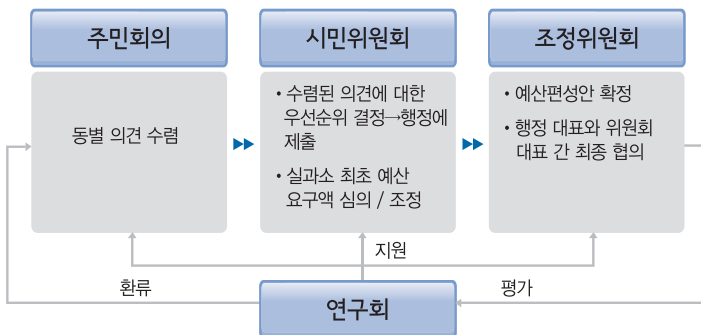
1) 동별 지역회의 활성화

이 고민에 대해 2011년 한 해 동안 의미있는 시도를 한 자치단체들이 있었다. 물론 이 실험적 시도에 대한 정책적 평가는 별개로 진행되어야 하고 많은 보완할 점이 있겠지만, 주민참여를 주민참여에



산제라는 틀 내에서 시스템으로 구축하고자 했던 시도 자체는 충분히 의미가 있었다. 우선 부천시 주민참여예산제 사례이다. 부천시는 동별 지역회의에 참여하는 동별 최소 주민 인원을 100명으로 목표하고 모집에 들어가 2011년 3월까지 37개 동 2,698명을 모집했다. 또한 별도로 「참여예산 시민위원회」 100명을 구성해 동별 지역회의의 위원으로 참여하지 못한 시민들의 참여 요구도 수용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부천시의 2011년 운영 체계를 살펴보면, 3월말 구성된 동 주민회의는 8월 중순까지 동 편익사업(5000만~1억 원)을 선정하고 우선순위를 선정한다. 4월 중순에 구성되는 시민위원회는 10월까지 동에서 제기된 동 편익사업과 홈페이지를 통해 제안된 주민 의견을 조정하고, 각 분과위원회에서 제기된 쟁점 사안에 대하여 부천시 주민의 의견을 다시 수렴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렇게 수렴된 예산안을 10월말 시민위원회에서 선정하면 11월초부터는 시민위원회 대표들과 시청 공무원이 참여하는 참여예산조정위원회에서 확정된다. 이 전 과정은 「주민참여예산 연구회」에 의해 평가되고 그 평가 결과가 2012년 활동에 반영된다.

〈부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체계〉





스티커 투표로 주민 편의사업을 선정하는 주민들

물론 여러 위원회 시스템을 형식적으로 갖는 것이 주민참여를 보장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주민들의 참여가 실제 현실에서 변화를 이끌었다는 경험 그 자체가 바로 주민참여 활성화의 핵심이란 점을 고려할 때, 원하는 시민이라면 모두

위원회에 직무와 역할을 갖고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려 한 것은 중요한 시도로 평가될 수 있겠다.

2) 주민 총회 개최

부천시와 같이 시민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았지만, 지역회의와 참여예산위원회의 결정을 주민들과 함께 공유하는 자리로 1000여 명이 참석한 시민회의를 기획한 수원시의 사례도 주목할 만하다. 부천시의 시민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은 수원시의 경우 참여예산위원회에서 맡게 되는데, 바로 이 참여예산위원회의 결정 사업 10개를 대상으로 참여한 시민들이 직접 투표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투표 결과 시민부문 최우수는 <매관로 2가 노후 하수관 교체공사>가 선정되었고, 청소년 부문 최우수는 <청소년 진로상담 도우미>가 선정됐다.



수원시 시민회의에 참석한 시민들 모습



참여예산위원회에서 결정된 사업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위원 모습

은평구의 주민총회도 주목할 만하다. 은평구는 2011년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과정을 통해 최종 제안된 23건의 사업의 우선순위 선정 을 위해 주민총회를 개최했다. 약 700여명의 주민이 참석해 각 동 별 제안사업 설명 및 토론을 하고, 제안사업 우선순위 투표를 진행 했다. 주민투표 결과 20건의 사업에 9억원 상당의 예산을 투입하기로 결정했다.



은평구의 2011년 주민총회 모습. 진관동 주민 참여예산위원 한 명이 뽀에로 복장을 하고 제안사업의 우선순위 투표를 호소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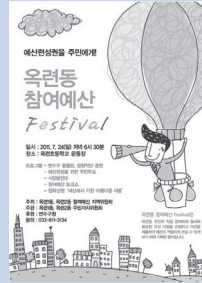
은평구 주민총회에 약 700여명의 주민이 참석한 모습

3) 정책 서포터단, 찾아가는 예산설명회 등의 새로운 참여방식 개발

수원시, 부천시 이외에도 주민참여를 독려하고 모든 주민의 예산 축제가 되고자 노력한 자치단체도 많다. 2011년에 인천 연수구에서



◀ 주민이 많이 다니는 공원 등에서 참여예산을 홍보하는 캠페인을 진행하는 지역 주민위원회 위원들



◀ 인천 연수구 옥련1동 주민위원회에서 진행한 동 주민총회의 포스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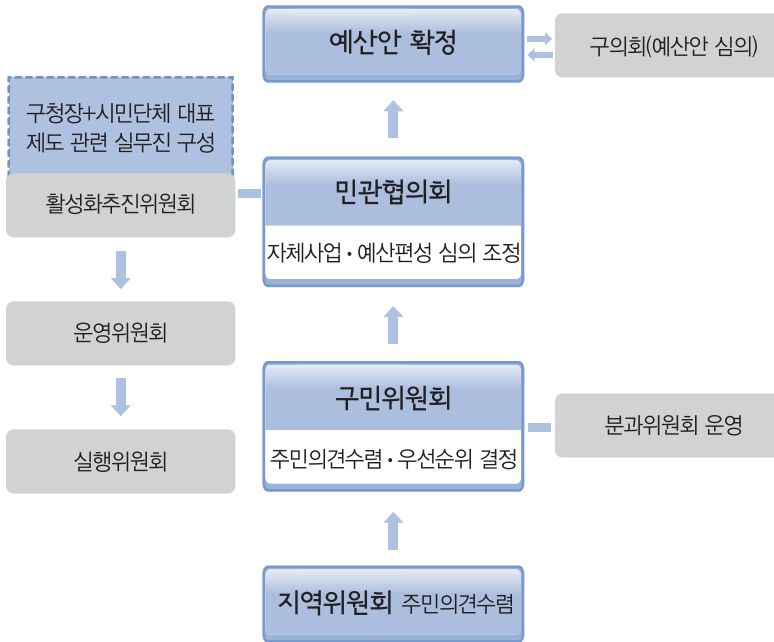


◀ 인천 연수구 동춘 1동 주민총회에서 설치한 제안사업 패널에 주민들이 스티커로 의견을 붙이고 있는 모습

했던 것과 같이, 공원 등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서 캠페인을 벌여 참여를 독려하거나 참여예산에 관심이 있지만 참여가 어려운 직장인을 위해 ‘정책 서포터단’을 조직해 주민들 의견을 수렴하는 역할을 부여한 것도 좋은 사례이다. 또한 동별로 ‘찾아가는 예산설명회’를 하고, 동별 지역주민위원회가 동별 총회를 기획한 사례도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주민참여 활성화 방안이 다양한 참여 방법과 홍보 방법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주민참여예산제라는 큰 틀 속에서 참여를 원하는 시민 누구라도 참여할 기회를 보장하고, 바로 그 시민에게 참여에 따른 권한을 부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바로 이 시스템 속에서 참여한 시민의 경험 자체가 주민참여 활성화의 원

〈인천 연수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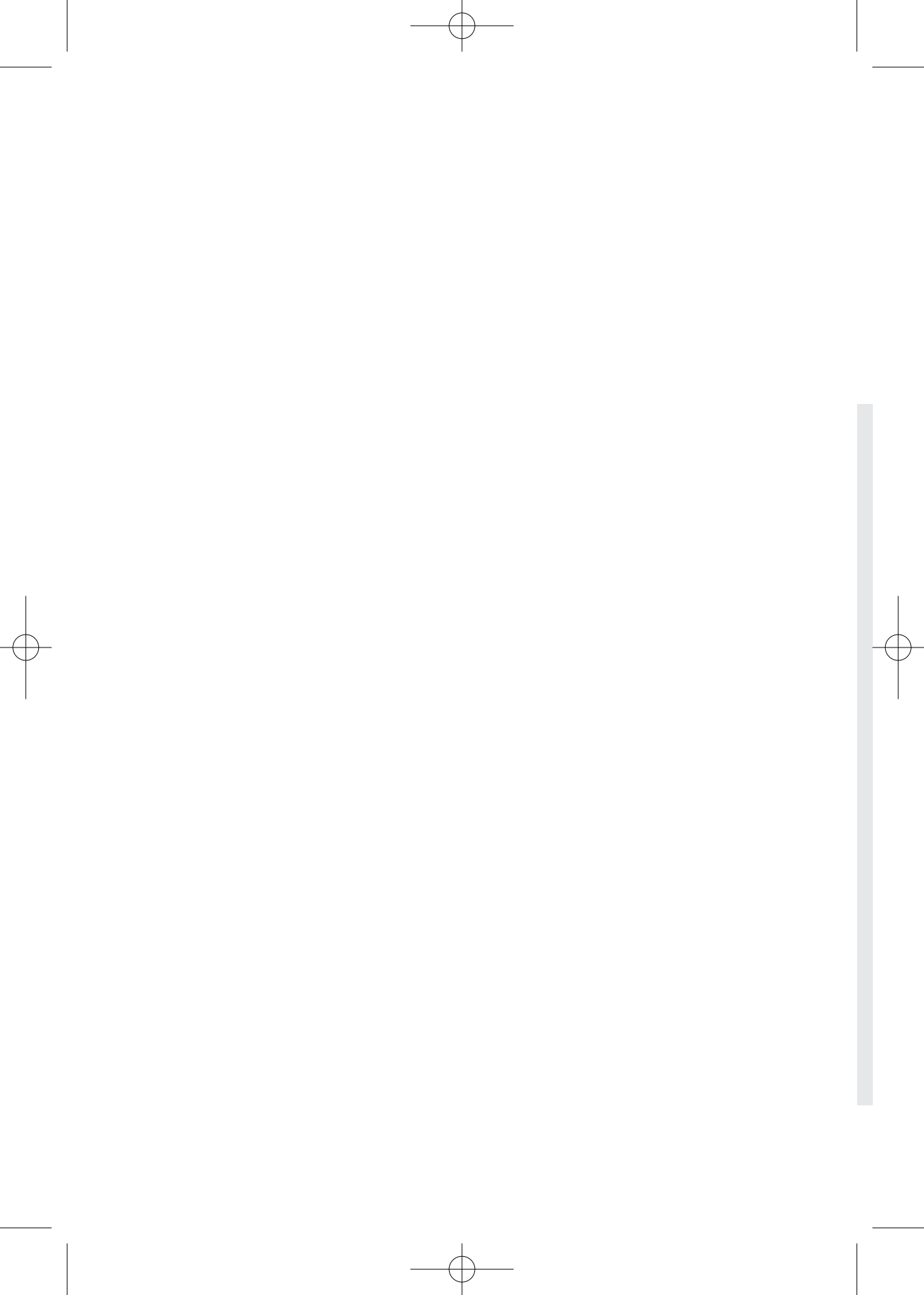
동력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부천시, 수원시, 인천 연수구의 사례 이외에도 전 세계적으로 주민참여가 활성화된 사례는 다양하고 무궁무진하다. 정답은 없다.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모델을 찾아내는 것이 관건이다.

5장 부록



- ▶ ① 성북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 ▶ ② 성북구 주민참여예산제를 통해 결정된 2012년 예산 내역
- ▶ ③ 성북구 2012 분야별 예산규모
- ▶ ④ 성북구 민선 5기 주요 역점 사업
- ▶ ⑤ 서울시 25개 자치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현황
- ▶ ⑥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체계 및 추진일정 비교





성북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북구의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구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주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서울특별시 성북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2. 구 관할지역에 소재한 기관에 근무하는 사람
3. 구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

제3조(법령준수의무) 이 조례에 따라 예산편성 시 주민참여 절차·방법 등은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에 관하여 규정된 법령을 위반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주민의 권리)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가 정한 범위에서 구의 예산 편성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2장 운영계획 수립 및 의견수렴

제6조(운영계획 수립 공개 및 적용범위) ① 구청장은 예산편성방향, 주민 참여예산의 범위, 주민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을 정한 주민참여 예산제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의 범위에 인건비 및 법정정비는 해당되지 아니한다.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① 구청장은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 수렴을 위해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필요시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및 사업공모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8조(의견 제출) ① 지방예산편성관련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사람은 제6조의 구청장이 수립한 주민참여예산운영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출된 의견수렴 결과를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3장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제9조(위원회 구성) ① 구청장은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참여 예산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각 국장, 보건소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위원회의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으로서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선정된 사람

2. 그 밖에 재정, 예산 등에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예산업무의 담당 부서장이 된다.

제10조(위원의 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장 및 간사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1.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2. 주민참여 예산제 평가 및 개선방안 마련
3.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4.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1. 주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
2. 주민참여의 보장 및 재정자치의 실현
3. 분과위원회별 자율적 운영 유도
4. 위원회의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한 노력
5. 정치적·사적인 목적으로 이용 배제
6. 구의회의 예산안 심의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구청장
의 예산편성권 행사 범위에서 활동

③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분과위원회를 대

표한다.

④ 분과위원회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5조(회의소집 및 의결) ① 위원장은 예산활동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를 개최한다.

② 구청장은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의견수렴이 필요할 경우에는 위원회 회의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6조(회의결과 공개) 위원회 회의는 공개하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의 규정을 제외하고는 회의 종료 후 회의 일시, 회의안건 및 결과를 구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제17조(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다른 지역으로 거주지나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
2.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개인 사정으로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4. 위원회 운영취지, 원칙, 목적,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5. 그 밖에 그 직무를 소홀히 하였거나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제18조(의견청취 및 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① 위원회는 업무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조사·연구를 의뢰하거나 정책토론회,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관계전문가 또는 주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9조(주민참여 등 홍보) ① 위원회는 주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구 예산에 대한 설명·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위원회 운영에 대한 주민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한다.

제20조(위원 등에 대한 교육) 구청장은 위원회 위원 및 주민을 대상으로 예산의 편성과정과 주민참여 방법·위원회 운영계획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21조(연구회의 구성 및 운영) ① 구청장은 주민참여예산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가·관련분야 종사자·시민단체 관계자 등 10인 이내로 주민참여예산연구회(이하 “연구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연구회에서 주민참여예산제와 관련하여 연구회 활동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개최한다.

③ 연구회 회장과 부회장은 연구회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연구회 회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22조(연구회의 기능) 연구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연구, 개정
2. 주민참여 예산제의 역기능 해소방안 강구
3. 의회와의 원활한 협조방안 강구
4. 주민참여 예산제도의 도입에 따른 효율적인 운영방안 연구
5. 그 밖에 연구회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4장 지원 등

제23조(재정 및 실무지원) ① 구청장은 위원회 및 연구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회의장소 및 사무처리 등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위원회 및 연구회의 회의운영과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주민예산 교육 활동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위원회 및 연구회의 위촉직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성북구 주민참여예산제를 통해 결정된 2012년 예산 내역

● 주민참여예산 반영 예산액

- 위원회 결정 내역 : 26건 6,577백만 원
- 구 의회 심의결과 : 25건 6,484백만 원(세출예산 반영)

• 복지분과(16건 912백만 원)

(단위 : 백만원)

연 번	사업명	참여예산위원회 결정액	2012년 예산 반영액	소관 부서	비고
1	보훈회관 차량 구매	25	25	복지 정책과	신규
2	'보훈의 달' 행사 보조	18	18		
3	자원봉사자 워크숍 및 문화체험	28	28		
	소계	71	71		
1	장애아동 학습지원 멘토링사업 지원	20	20	노령 사회 복지과	신규
2	장애아동 방과후학습 기악교실운영 지원	21	21		신규
3	장애인자립생활 체험 홈 지원	52	52		신규
4	장애인컴퓨터교실 운영	21	26		
5	장애인단체 행사 지원	21	28		
6	점자도서관 운영비(사서인건비) 지원	20	21		신규
	소계	155	168		
1	여성교실 운영	98	83	가정 복지과	
2	여성백일장 등 여성정책 행사 지원	57	53		
3	출생아기 축하금 지원	449	446		
4	다문화아동 멘토링 지원	29	29		신규

연 번	사업명	참여예산위원회 결정액	2012년 예산 반영액	소관 부서	비고
5	다문화가정 공모사업	20	20	가정 복지과	신규
6	청소년어울마당 운영	32	22		
7	드림스타트 프로그램 운영	20	20		신규
소계		705	673		

• 교육지원 분과(6건 4,065백만원)

(단위 : 백만원)

연 번	사업명	참여예산위원회 결정액	2012년 예산 반영액	소관 부서	비고
1	교육경비보조금	3,500	3500	교육 지원 담당관	
2	관내 예술기관과 연계한 예술창작교육	100	70		신규
3	교육복지특별지원사업	50	50		신규
4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 프로그램 운영	287	287		
5	전공·진로 탐색교육 운영	86	35		신규
6	멘토링 지원	123	123		신규

• 마을만들기 분과(2건 507백만원)

(단위 : 백만원)

연 번	사업명	참여예산위원회 결정액	2012년 예산 반영액	소관 부서	비고
1	마을만들기 사업	300	307	도시재생과	
2	공동주택 관리사업 지원경비	100	200	주택	
3	공동주택 커뮤니티 지원 사업	100		관리과	신규

• 동소규모 편익사업 분과(1건 1,000백만원)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참여예산위원회 결정액	2012년 예산 반영액	소관 부서	비고
동사무소 소규모 편익사업	1,000	1,000	자치행정과	사업 시행부서 - 공원녹지과 - 토목과 - 치수방재과



성북구 2012 분야별 예산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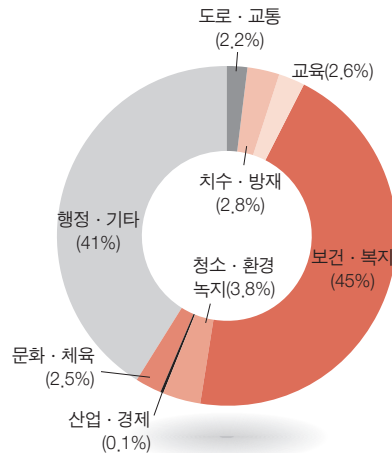
2012년 예산규모 - 3,671억 원

일반회계 : 3,435억 원 , 특별회계 : 236억 원 (전년대비 6% 증액)

분야별 예산

(일반회계 기준 / 단위 백만원)

구분	예산액
합계	343,513
도로·교통	7,533 (2.2%)
치수·방재	9,650 (2.8%)
문화·체육	8,685 (2.5%)
보건·복지	154,546 (45%)
청소·환경·녹지	13,407 (3.8%)
산업·경제	472 (0.1%)
교육	9,152 (2.6%)
행정·기타	140,068 (41%)





성북구 민선 5기 주요 역점사업

“어린이가 행복한 도시, 어린이 세상” 성북을 만들겠습니다

- 아이돌봄 서비스의 획기적인 확대
- 어린이 건강증진 및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확대
- 맞춤형 보육서비스 확대 및 어린이 교육활동 지원
- 어린이 안전 종합대책 추진

● 아이돌봄 서비스의 획기적인 확대



지역 아동관 설치

- 2012년 8월 개관 예정
- 위치/규모 : 정릉2동 / 지하1층, 지상2층
- 기능 : 상담 및 치료, 방과후 교육, 건강관리 등



돌봄센터 설치 운영(2개소)

- 2012년 2~3월 개관 예정
- 길음뉴타운 및 석관동 지역
- 기능 : 특기적성 계발, 영어교육, 견학·체험활동, 아동보호(석식제공)



동주민센터 내 어린이 돌봄교실 운영

- 2012년 하반기부터 운영 예정
- 위치/규모 : 동 주민센터 내 / 1~3층
- 기능 : 초등학교 방과후 활동지원을 위한 자치회관 프로그램 개발 등

●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확대 등을 통한 어린이 건강증진



친환경 무상급식 확대 실시 및 우수식재료 지원 확대

- 초등학교 전학년(6개 학년) 실시
- 우수 농축산물 차액보전 확대 실시 : 유치원, 초, 중 전체, 고등학교 일부
- 친환경 쌀(39개 교) 및 김치(43개 교) 공급



친환경 급식지원센터 및 어린이 급식 관리 지원센터 운영

- 식생활 교육지원 (농촌체험, 학교 텃밭 교실)
- 어린이 급식용 식단 개발 및 보급
- 영양교육 및 식사 지도 실시 / 급식관리 매뉴얼 보급

● 맞춤형 보육서비스 확대 및 어린이 교육활동 지원



국공립 보육시설 확대

- 2012년 3개소 추가 확대

맞춤형 보육(시간연장형, 시간제, 아이돌보미) 확대

- 시간연장 보육시설 확대 : 10개소 추가지정
- 시간제통합 어린이집 : 1개소 추가설치
- 아이돌보미 사업 인력 확충



도서관 어린이 친화시설 확대

- 아리랑정보도서관 / 서경로 꿈마루 도서관 유아열람실 온돌마루
- 종암동 새날어린이도서관 시설보강
- 해오름 어린이도서관 다용도실

● 어린이 안전 종합대책 추진



학교주변 및 어린이 통학로 개선

- 어린이 보호구역 신규지정 및 재정비
- 보호구역 지정 / 통합표지판 신설 / 자동차 속도 제한 등
- 학교주변 CCTV 확대구축을 통한 관제센터 운영
- 등하교 워킹 스쿨버스 운영



아동학대 예방 등 관리

- 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 및 운영지원
- 법원에 친권행사 제한 및 상실청구 등 아동학대사례에 대한 신속한 업무처리 지원



걸을수록 편리하고, 즐겁고 행복한 도시 성북의 거리가 특별해집니다

- 도보10분도시 프로젝트
- 걷기좋은 거리 조성 프로젝트
- 걷기를 통해 행복해지는 성북 (산책로 조성 등)

● 도보10분도시 프로젝트



구립 공공도서관 확충 (U-도서관 조성)

- 종합공공도서관 : 1개소 (정릉3동)
- 언제 어디서나 이용이 편리한 작은도서관 : 3개소
 - ⇒ 삼선동3가 56-1 외 2개소
- 테마가 있는 전문 도서관 : 1개소
 - ⇒ 아리랑 정보도서관 (02-3291-4990)
 - : <http://ar.sblib.seoul.kr/arirang/index.jsp>
 - ⇒ 성북정보도서관(02-962-1081)
 - : <http://www.sblib.seoul.kr>



친환경 공영주차장 조성

- 2012년 2개소 조성
 - ⇒ 성북동, 석관동 (주차면수 총 40면)

웰빙트랙 조성 및 생활체육시설 설치

- 기존 마을마당, 쉼터
부족한 체육시설·편익시설 보강
 - ⇒ 재정비 2개소
- 소규모 체육시설 설치
 - ⇒ 2개소 15대 설치



● 걸기좋은 거리 조성 프로젝트



성신(고려) Funiv(Fun+Univ) Street

- 성신여대 하나로거리, 고려대 참살이길에 즐거운 디자인을 적용하여 활기찬 젊음의 거리로 조성

역사 문화의 거리

- 성북동 탐방코스 개발 (5개 코스)
- 역사·문화 탐방, 맛집 투어 등 운영



주민과 함께하는 하천거리 조성

- 성북천
 - 문화공간 조성(한성대입구역) 및 산책로 탄성 포장
- 우이천
 - 산책로 조성(월계2교~벼루말교 간)

문화형 거리

- 거리경관 및 보행로 개선
 - 성북동~서울과학교~혜화동로터리
 - 성북동~장수마을~대학로

레저형 거리

- 가로숲길 녹지 조성 및 자전거보관대 설치
- 길음역 주변 도로



● 걷기를 통해 행복해지는 성북(산책로 조성, 걷기운동, 보행안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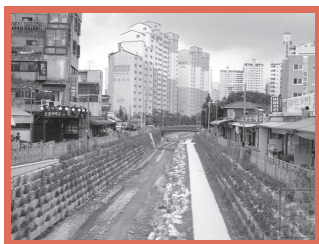


성북 올레길

- 산책로 총 연장 36km 조성
- 단절된 녹지 연결 및 가로변 띠녹지, 숲 조성

정릉천 산책로 조성

- 북한산국립공원~정릉시장



보행약자를 위한 산책로 조성(예정)

- 데크로드, 난간 설치
- ⇒ 북한산, 북악산, 천장산





성북구 걷기동아리 운영

- 동별 주민 걷기동아리 운영
⇒ 참가자 600명
- 걷기교실 운영
- 찾아가는 바른걷기상담실 운영

민간주도 걷기행사

- 시기 : 월별 1회 개최
- 장소 : 성북 올레길 5개소 등 관내 산책로
- 걷기동아리, 등산연합회 회원 등 주민의 자율 참여



보도가로등 확충 및 정비

- 2012년 노후 가로등 165등 교체
- 정릉길 (송덕초교~종암교)



강남·북 균형발전을 선도하고, 보편적 교육가치를 실현하는 교육1번지 성북을 추진하겠습니다

- 교육지원사업 활성화 및 대학과의 연계사업 확대
- 평생학습 진흥
- 책 읽는 성북

● 교육지원사업 활성화 및 대학과의 연계사업 확대



자기주도학습 프로그램 활성화

- 자기주도학습 프로그램 확충으로 이용인원
증가 : 연간 1,930명(기존) ⇒ 2,894명
- 운영횟수 : 연간 1회~12회
인원 : 35명~480명
- 자기주도학습 학생육성 시스템 ⇒ 자기주도
학습 특강, 캠프, 성격·적성 및 진로탐색
- 학부모교육 및 전문지도사 양성 시스템
- 진로·적성 및 학습상담, 대학생 멘토링 등



학력신장 프로그램 운영

- 관내 대학연계 운영기관 확대 : 4개소
- 서울 영어마을 입소시설 추가
- 대일외고 원어민 영어캠프 운영기간 확대
: 8일(기존) ⇒ 10일



멘토링 사업

- 학습분야 멘토링 운영
⇒ 상반기 3~8월 / 하반기 9~2월
- 문예체 분야 멘토링 운영
⇒ 음악·연극·체육 멘토링 운영
- 멘토링 지원단 구성 : 2012. 3월 중



● 평생학습 진흥



평생학습센터 운영으로 누구나 원하는
학습을 할 수 있는 학습공동체 건설

성북구 평생학습센터(02-920-3041)

- <http://learn.seongbuk.go.kr>
- 2012. 2월 개관
- 위치/규모 : 종암로 167/지상 3층(440평)
-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 ⇒ 인문학강좌, 구민교양대학
 - ⇒ 취업연계 프로그램, 특성화 교육
- 학습동아리 구성 및 운영, 스터디 모임
- 지역평생교육기관 간 네트워크 구축
- 평생교육 정보제공

● 책 읽는 성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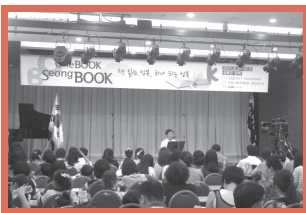
‘책과 함께 인생시작’ 북스타트 운동

- 대상 : 생후 3~35개월 유아 2,400명
- 북스타트 꾸러미 : 생후 3~18개월
- 북스타트 플러스 꾸러미 : 생후 19~35개월



책 읽는 성북, 하나되는 성북
(One Book, SeongBook)

- 한 책 선정 및 선포 후 릴레이 토론 및 토론회 개최
- 독서동아리 모임 / 시민모임 육성



U-도서관 조성

- U-도서관 서비스 구축사업
 - ⇒ 통합도서관리 전용 프로그램 도입으로 상호대차 서비스 확대 : 전 공공도서관 (8개소)
 - ⇒ 관내 도서관 통합이용증, 도서관 자료 공유
 - ⇒ 24시간 무인예약대출시스템 도입 : 3개소 (구정, 지하철역 2개소)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소외받는 이웃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는 복지문화도시를 만들겠습니다

- 굶주림, 고독, 자살 없는 성북 (3무2유 새·봄 성북)
- 동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활성화
- 성북 문화축제 및 문화시설 인프라 구축
- 구민 건강증진 및 보건의료 서비스 강화
- 구민 모두가 행복한 도시 성북

● 굶주림, 고독, 자살 없는 성북 3무2유(새로운 돌봄이 있는 성북)



더불어 함께하는 나눔밥상 지원

- 아동, 청소년, 노인 등 결식
지원사업 확대
- 급식지원(30명)/도시락
(100명)/밀반찬(30명)
- 푸드마켓 신규

취약계층 돌봄사업(새·봄·콜)

- 취약계층 통합지원서비스 운영
- 복지사각지대 소외계층 서비스 연계
- 거동불편, 장애, 우울증, 생계곤란자
등 사회적 약자 민간복지자원 연계
-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통합관리

성북 자살예방센터 운영

- 보건복지 통합개입
- 마음돌보미 사업(위험노출자, 자살시
도자 등 돌봄사업)
- 생명존중 인식개선 사업

● 동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활성화



복지 사각지대 해소

- 복지소외계층 중점발굴 : 연중 수시
- 주기적 대상자 방문을 통한 실태 및 욕구 파악
- 동 협의체를 통한 맞춤형 복지서비스 연계

아름다운 이웃 성북 디딤돌 사업

- 저소득 취약계층 등 이용자를 동 주민센터에서 발굴 후 구청에서 후원업체와 연결하여 서비스 제공

희망가정세우기 성북 Plan

- 자립지원 1:1 집중결연사업
- 저소득청소년 내적성장 지원 program
- 건강한 몸 만들기 「무료진료 연계사업」



● 성북 문화 축제 및 문화시설 인프라 구축

성북 다문화 축제

- 일시 : 2012년 5월 중
- 장소 : 성북동길
- 세계문화체험, 세계 요리강습 등

글로벌 문화행사

- 유러피언 크리스마스마켓(12월 중)
- 라틴아메리카 페스티벌 / 이슬람 문화 축제 (6월 / 9월)



14회 서울국제청소년영화제 지속 유치

- 일시 : 2012년 8월 중(7일간)



● 구민 건강증진 및 보건의료 서비스 강화



동선보건지소 개소에 따른 운영

동선보건지소(02-920-2886)

• <http://bogunso.seongbuk.go.kr>

• 위치 : 동소문동6가 146

• 주요 운영내용

- 대사증후군 관리 (만성질환관리 포함)
- 재활물리치료, 방문 건강관리
- 건강진단서(보건증) 발급



성북 마이너스 93 프로젝트

- 주민중심 걷기동아리 활성화
- 자기 BMI(체질량지수)알기 사업
- 걷기코스 내 건강정보 알림터 조성
- 건강주간 행사 개최



복지관 한방클리닉 확대 운영

- 65세 이상, 장애인, 의료보호대상자 등
- 한방진료, 침, 한약재 투여, 클리닉 상담 등
- 1일 진료인원 : 약 30~40명 (복지관별 순회)



● 구민 모두가 행복한 도시 성북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제공 활성화

- 서비스 사업 지원 인원 확대
 - 연간 88명(기존) ⇒ 150명
- 대상 : 만 65세 이상 노인 중 가구소득,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선정
- 주요내용 : 신변활동, 일상생활, 가사 지원



장애아동학습지원을 위한 멘토링 사업

- 참여대상
 - 멘토 : 고려대, 국민대 등 대학생 30명
 - 멘티 : 초등학교 특수학급 5~6학년 30명
- 운영시간 : 주1회 2시간 (월 4회)

성북 여성교실 운영

- 취미반, 자격증반 운영
 - 15개 과목, 406명 수강 (연 4기 운영)
- 노후시설 리폼 및 교체



**창조산업육성으로 새로운 산업생태계를 형성하고 사회적기업을
통해 새로운 사회적가치를 일자리로 연계하겠습니다**

- 사회적기업 발굴·육성 및 창조산업 육성
- 일자리 확대 및 창출

● 사회적기업 발굴·육성 및 창조산업 육성



사회적기업 허브센터 운영

- <http://se.sb.go.kr>,
- 전화 : 02-920-2364
- 위치 : 종암동 80-8
- 사회적기업 상담창구 운영
⇒ 법률, 회계, 마케팅, 제품구매 등
- 창업설명회, 사회적기업가 양성 과정
- 사회적기업 생상품 판매전시관

창조산업 BIZ센터 설치 운영

- 전화 : 02-920-4394
- 성북 스마트앱 창작터 운영
⇒ 현재 이용인원 : 34명
⇒ 소셜매거진 앱 외 8개 앱 개발 중
- 영상문화 창작 지원 비즈니스 센터(예정)
⇒ 아리랑고개 시네마빌딩
- 패션산업지원 비즈니스센터(예정)



창조문화산업 특구 조성

- 성북 섬유봉제산업 진흥지구 (석관지구)
 - 위치 : 보문역 주변
 - 전략산업 : 섬유봉제산업(섬유봉제, 패션 등)
- 성북창조문화산업 진흥지구 (동소문지구)
 - 위치 : 동소문동 및 삼선동 일대
 - 전략산업 : 창조문화산업 (디지털 콘텐츠, 문화관광, 공연예술)

● 일자리 확대 및 창출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대

- 노인 일자리 창출 ⇒ 1,133명
- 장애인 일자리 창출 ⇒ 200명
- 아동돌봄 서비스 일자리 창출 ⇒ 30명

민간기업 적극유치로 일자리 창출

- 지역기업과 공동작업장 개설
⇒ 취약계층 20명 일자리 창출
- 대형마트기업 유치
⇒ 지역주민 130명 일자리 창출

생산적 공공일자리 창출

-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 연 100명
- 공공근로사업 ⇒ 연 750명

주민주도 마을기업 육성

- 2012년 6~9개소 마을기업 선정·관리

일자리 지원센터 운영 활성화

- 구직자 토탈케어 감동 취업서비스
- 찾아가는 이동 일자리 상담센터 확대



주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마을을 통해 정감이 가는 살기 좋은 성북마을을 만들겠습니다

- 마을공동체 만들기
- 주민자치 / 전통시장 활성화
- 주민위주의 주거환경 개선

○ 교육지원사업 활성화 및 대학과의 연계사업 확대



마을만들기 시범사업 추진

- 시범사업 대상지 (3개 지역)
-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설립
- 담장허물기 사업, 골목 도로 정비, 방법 CCTV 설치 사업
- 마을만들기 공모사업 (5~10개 마을)

장수마을 주거환경개선 추진

- 생활공간 공공미술 마을가꾸기
- 자투리땅 녹화 및 녹화재료 지원 (3개소)
- 마을기업과 연계한 일자리창출 및 저소득층 집수리 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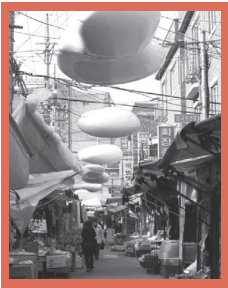
도시 아카데미

- 운영 : 년 2회 / 기수별 40명
- 구성 : 주민, 시민단체, 공무원, 시·구의원
- 운영기간 : 8주간 (현장답사 1~2회)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리더양성 아카데미

- 운영횟수 : 년 2회 (상/하반기)
- 장소 : 성북구청 4층 성북 아트홀
- 대상 :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 자생단체 관계자 등 300명

● 주민자치 / 전통시장 활성화



통장 및 주민자치위원 리더십 교육

- 교육기간 : 2012. 5월 중 (주1회 5주간)
- 교육대상 : 2회 80여 명 (동별 4명)
- 교육내용 : 공동체 이웃과 소통, 갈등해소, 대인관계 역량강화, 지역공동체 활성화 방안 탐구

고객 접근이 용이한 전통시장 현대화

- 정릉시장·돈암제일시장 고객편의시설 : 2012. 4월
- 장위골목시장 어닝(빗물받이) 설치 : 2012. 1월
- 정릉시장 공동주차장 : 2013. 12월
- 석관황금시장 아케이드 : 2013. 12월 (예정)
- 전통시장 전기·가스 안전시설 지원 : 2012. 12월

● 주민위주의 주거환경 개선

주민중심 뉴타운·재개발·재건축 관리

- 순환형 임대아파트 건립 추진
 - 위치/규모 : 장위동 132-1 외 10필지
- 친환경 임대주택 건립 추진
 - 위치/규모 : 정릉4동 1031-2/지하1, 지상5층
- 길음동 휴먼타운 사업추진
 - 위치 : 길음동 1171번지 일대



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건강한 도시를 위해 녹색도시를 만들어가겠습니다

- 온실가스저감 기반 구축 및 환경교육 강화 / 폐기물 감량
- 생태체험 및 생활 속 도시농업

● 사회적기업 발굴·육성 및 창조산업 육성



온실가스저감 기반구축

- 온실가스 배출량 산출 및 인벤토리 구축
- 시민실천행동계획 수립 시행

환경교육 활성화

- 성북 환경아카데미 - 그린리더 양성과정
 - 총 15강 / 강의당 40명
- 그린리더를 활용한 에코라이프 교육
 - 주민자치센터 단체 회의 등 (회당 20명)
- 찾아가는 기후변화 교실
 - 관내 초·중학생 / 연간 2,000명



음식물쓰레기 종량제(RFID) 실시

- 공동주택(아파트) 종량처리시스템 도입
 - ⇒ 2012년 80대 설치
- 단독주택·음식점 종량제 도입



● 생태체험 및 생활 속 도시농업



생태체험관 추가 개관 및 운영

- <http://cafe.naver.com/sbgreensbaning>
- 전화 : 02-920-2949
- 개운산 생태체험관 - 2012. 2월 개관
 - 위치/규모 : 돈암동 / 지상2층
 - 총 168개 프로그램 운영
 - ⇒ 숲유치원, 어르신녹색교실, 생태체험아카데미 등



도시텃밭 조성 및 체험농장 조성

- 도시텃밭 2개소
- 체험농장 1개소



도시농부학교 확대운영

- 교육대상 : 연간 1,500명 (직원 및 구민)

상자텃밭 보급사업 추진

- 보급목표 : 연간 1,200명 (구민 대상)

오동공원 리노베이션(3차)

- 2012. 12월 완공
- 자연친화 산책로 정비, 잣나무 심터 조성
- 자연학습장 조성



북악산 만남의 숲 조성사업 실시

- 성북동 / 2016. 12월 완공 예정

북한산 가족형 테마공원 추가조성

- 정릉동 / 2013. 12월 완공 예정



서울시 25개 자치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현황

*2012.2.10 기준

지역	조례 공포일	예산 위원회 설치(안)	예산편성 우선순위 결정권한	시민위원회 구성			지역회의 구성	연구회
				인원	임기	기타		
종로구	8/19	3안	○	30명내	2년	호선	-	-
중구	7/22	1안	×	둘 수 있다	-	-	-	둘 수 있다
용산구	7/01	1안	×	둘 수 있다	-	-	-	둘 수 있다
성동구	조례안 협의중							
광진구	7/26	1안	×	둘 수 있다	-	-	-	둘 수 있다
동대문	9/15	1안	×	-	-	-	-	둘 수 있다 /의회와 협의
중랑구	7/26	1안	×	둘 수 있다	-	-	-	둘 수 있다
성북구	7/20	3안	○	40명내	2년	분과 구성	-	10인 이내구성
강북구	9/23	3안	○	50명내	2년	위원장 호선	-	-
도봉구	6/10	3안	○	40명내외	2년	분과위 구성/ 부구청장이 위원장	동별 지역회의 개최 의무	-
노원구	8/25	3안	○	60명내	2년	분야별 분과위 구성	주민자치 위원 및 통장 1/30이하	-

지역	조례 공포일	예산 위원회 설치(안)	예산편성 우선순위 결정권한	시민위원회 구성			지역회의 구성	연구회
				인원	임기	기타		
은평구	8/04	3안	○	100명	임의	분과위 구성, 호선	10명이상 참석	-
서대문	6/08	2안	○	30명내	1년	호선	20명이상 참석	-
마포구	9/22	2안	○	20명내	2년	호선	-	-
양천구	조례안 협의중							
강서구	8/05	2안	○	30명내	2년	분과위/운영위 구성	-	-
구로구	4/14	3안	○	100명내	2년	호선	20명이내	-
금천구	6/08	3안	○○	40명내	2년	호선	-	-
영등포	7/18	3안	○	30명내	2년	분과구성, 호선	-	-
동작구	9/08	3안	○	40명내	2년	분과구성, 호선	-	-
관악구	7/28	3안	○	100명내외	1년	분과/민관 협의회구성	50명이내 /자치위원 1/3이하	15인 이내 구성
서초구	11/01	1안	×	둘 수 있다	-	-	-	둘 수 있다
강남구	12/31	1안	×	둘 수 있다	-	-	-	둘 수 있다
송파구	07/25	1안	×	둘 수 있다	-	-	-	둘 수 있다
강동구	07/27	3안	○	50명내	2년	분과/민관 협의회구성	-	-

* 위 자료는 강석호 서울시의원 보도자료와 자치법규시스템 자료를 바탕으로 재정리한 것임.

- 성동구(2차례 조례안제출, 협의 중), 양천구를 제외하고 조례제정 완료
- 시민위원회 위원수는 20~100명이며, 임기는 대부분 2년이나 서대문구, 관악구는 1년
- 지역회의를 명시한 곳은 6곳이며, 최소 회의구성인원을 규정하거나 최대 인원을 제한하는 경우가 있음. 자치위원의 참여인원을 제한한 곳도 있음 (노원, 관악)
- 연구회가 명시된 곳은 성북, 관악 2곳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체계 및 추진일정 비교

1) 2011년 주요 지방자치단체의 추진일정 총괄 비교표

(2011년)

단계	회의명	추진 일정					
		성북구	서대문구	부천시	수원시	인천 연수구	광주 북구
준비 단계	연구회 구성	5월	-	4월	3월	8월	3월
	지역회의 구성	10월	9월	3월	4~5월	3~4월	7월
	예산위원회 구성	9월	9월	8월~10월	6월	5월	2월
	홍보 설명회	7~8월 (13회, 1500여명)	-	-	4월 (4회, 750여명)	3월 (1600여명)	9월 (250명)
	예산학교	8월	7월	5월	6월	3~12월	6월, 9월
의견 수렴	지역회의 개최	10월	8~9월	7~8월	6~7월	5월	7~10월
	위원회 개최	9월	10월	8~10월	8~9월	7월	6월
	분과위 개최	10~11월	10월	7~11월	8~9월	5~6월	2월
예산 의결	위원회 (총회)	11월	10월	11월	10월	11월	11월
	결과공개	11월	12월	12월	12월	12월	11월
평가 환류	평가 보고회	12월	향후 계획	익년 2월	익년 1~2월	익년 1월	12월

- 1) 성북구는 지역회의를 전체 분과위원회에서 운영하지 않고, 「동 소규모 편익사업 분과」에서만 사업 우선순위 선정을 위해 부분적으로 시행함.
- 2) 연수구의 경우, 별도의 설명회 없이 상시적인 <찾아가는 예산학교>를 운영했으며, 총 74회 1,600여명의 주민을 만났음.

2) 2011년 성북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체계

단계	회의명	구성원	주요내용	추진일정
준비 단계	연구회 (추진준비단)	예산 전문가 예산위원	• 주민참여예산제 추진방향 및 평가, 효율적 운영지원	5~ 현재
	예산위 구성		• 39명(공개추천 20명, 예산학교 수료자 8명, 구 추천 5명, 국장급 당연직 6명)	9월
	예산학교	일반시민	• 주간·야간 2개반 운영/120명 • 지역주민 네트워크 구성 • 수료생 중 8명이 예산위원 활동	8월
의견 수렴	설명회 개최	9개 직능 단체별 관계자 통·반장 등 지역리더	• 권역별 설명회(총4회, 550여명) – 약 300건의 주민의견 수렴 • 직능별 설명회(총9회, 930여명) – 약 800건의 주민의견 수렴	7~8월
	설문조사 실시	성북구 지역주민	• 1,031명 참여 • 분야별 중요 사업 및 구정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7~8월
심의 조정	주민참여 예산위원회	참여예산 위원	• 예산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 주민제안사업에 대한 우선순위 결정	9월
	예산위원 워크숍	참여예산 위원	• 예산위원 대상 심화교육 – 9. 23./ 9. 29.~9. 30. •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운영방향, 활동방향 모색	9월
	분과 위원회	참여예산 위원	• 성북형복지, 교육지원, 마을만들기, 동소규모 편익사업 분과(총 4개) • 10. 11~11. 4까지 각 분과별로 개별일정 진행	10~ 11월
예산 의결	위원회 (총회)	참여예산 위원	• 주민제안사업에 대한 최종 우선 순위 선정	11월
	결과공개		• 예산편성안 반영 및 공개	12월
평가 환류	평가 보고회	예산 전문가 참여예산위원	• 〈주민참여예산연구회〉에서 세차례 평가회의 및 차년도 계획안 협의	11월 ~현재

3) 2011년 서대문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체계

단계	회의명	구성원	주요내용	추진일정
준비 단계	예산 학교	지역주민 40명, 지역강사 지원자 공무원, 주민 참여예산위원 30명, 주민 20명	- 지역주민 네트워크 구성 - 동별 지역회의 등 주민참여예산 설명회를 진행할 지역강사뱅크 구성 - 관련 공무원 마인드 제고 -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원활한 진행	6월 ~7월
	지역회의	해당 지역 거주 주민 (100명이상)	2012년 예산편성관련 주민의견 수렴 및 우선순위 결정 : 3건 이내 - 지역회의의 대표 선출	8~9월
의견 수렴	주민설문 조사	서대문구 지역주민	- 수렴된 의견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사업우선순위 선정 - 방법 : 홈페이지 및 FAX, 우편, 이메일, 동주민센터 창구 등	9. 21.~ 9. 30. (10일간)
심의 조정	주민참여 예산위원회	30명 이내 (지역회의대표 14, 주민 16)	- 예산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 주민예산사업의견에 대한 우선순위 결정	10월
예산 의결	반영 및 공개		예산편성안 반영 및 공개	12월
평가 환류	성과분석 및 환류		- 각 과정별 평가 설문조사 실시 - 설문조사결과 분석 반영	

출처 : 서대문구청 홈페이지 '1% 주민참여예산제 세부운영계획' 재구성함.

4) 2011년 부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체계

단계	회의명	구성원	주요내용	추진일정
준비 단계	주민 회의	동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 동에 영업소의 본점 및 지점을 둔 사업체의 임·직원	• 구성인원 : 3700명(동별 100명 이내) • 해당 동 주민 등을 대상으로 공개모집 • 임기 : 1년	3월 (구성) 7~8월 (운영)
	시민 위원회		• 100명 이내(시민대표 74, 전문가 26) • 해당 기관 및 전문가, 동 주민 회의 추천자로 시장이 위촉 • 임기 : 2년(1회 연임 가능) • 6개 분과위원회 설치	4월 (구성) 8~10월 (운영)
	연구회 구성	11명(시의원3, 시민위원회2, 재정전문가2, 민간단체 등 2, 공무원 2)	• 15명 이내 위촉 가능 • 정기회의 연2회 및 수시회의 운영 • 임기 : 2년, 연임가능 •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효율적인 운영방안 지원 등	4월
	예산 학교	위원회 위원 및 공무원, 일반시민	• 참여예산 주민회의 : 6월 • 참여예산 시민회의 : 7월	5~8월
의견 수렴	설문 조사	부천시 거주하는 주민	• 인터넷 설문조사 및 서면 설문조사 병행 • 2012년도 분야별 자원배분 방향 • 거주지역 내 예산반영 요구사업	6월
	예산 정책 토론회	시민, 시의원, 시민 위원회, 동 주민회의, 공무원 등	• 2012년 예산편성 방향 및 자원배분 관련 토론 등	8월
심의 조정	주민회의 운영	위원	• 지역사업 선정 및 의견수렴을 위한 회의	7~8월 초
	시민 위원회 운영	위원	• 운영 내용 : 시 예산안에 대한 의견제출, 주민요구사업 반영 여부 결정 등 참여예산제도 운영 • 운영 방법 : 분과위원회 활동 → 전체회의 개최	8~10월
	조정 위원회	위원장(시장) 1, 시민위원회 추천 7, 시 공무원 7	• 토의를 통한 합의 조정 원칙, 예외적 표결 • 결정안대로 예산 반영 원칙 • 예산안 확정 및 의회 제출	11월
예산의결			• 예산 의결 및 공시	12월
평가	성과분석		•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성과 분석	익년 2월
환류	평가보고회		•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성과 보고회	익년 3월

출처 : 부천시청 홈페이지 부천시 주민참여예산학교 자료집 재구성함.

5) 2011년 수원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체계

단계	회의명	구성원	주요내용	추진일정	비고
준비 단계	연구회	민간단체원, 예산관련전문가, 공무원, 시의원	• 주민참여예산제 추진방향 및 효율적 운영 지원 • 임기 2년(연임가능)	3~5월	
	지역회의 구성	해당 지역구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을 둔 사업체 임·직원	• 공개모집(구별 20명 이상) • 추천(구별 20명 이내) • 임기 2년 • 의견검토, 실사	4~5월 (구성) 6~7월 (운영)	
	시위원회 구성	수원시 거주자 및 수원시에 사업장을 둔 사업체 임·직원	• 공개모집(30명 이상) • 추천(30명 이내) • 임기 : 2년 • 각 분과별 구성 • 총괄조정, 검토	4~5월 중 15일	
	예산위 구성		• 위원 선정 및 기구 구성 • 임기 : 2년	6월(구성) 8~9월(운영)	
	예산 학교		• 예산편성 및 회의개최 방법 등	6월	
	의견 수렴	분과 위원회	• 주제별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주민 의견수렴 및 참여예산안 검토·조정, 우선순위 협의, 현장실사 등 • 1차 분과위원회 개최 시 임원구성	8~9월	
예산 의결	위원회 (총회)	위원회 전 위원	• 주민참여예산 우선순위 최종결정, 시민총회 개최	10월	
	결과공개		• 예산의결 및 공시	12월	
평가 환류	평가 보고회		• 운영성과 평가 보고회	1~2월	

출처 : 수원시청 홈페이지 주민참여예산방 게시 자료 재구성함.

6) 2011년 인천 연수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체계

단계	회의명	구성원	주요내용	추진일정
준비 단계	예산학교	주민 및 단체	• 찾아가는 예산학교 - 3~12월까지 총 76회 개최, 1600여명 참여 • 기초과정, 심화과정 교육 실시 • 직능별 교육 실시	3~12월
	서포터즈단 구성	구민	• 전국 최초 지역위원 및 분과위원 으로 참여하지 못하는 구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소통의 장 마련 • 장애인, 청소년, 여성 등 부문별로 참여예산학교 진행 후 부문별 정책제안 가능 • 성과 : 정책제안 152건, 수렴 후 120건 처리	3~5월 (구성) 8~10월 (운영)
	지역위원회 구성	주민	• 각동 10명씩 110명 위촉 • 동별 5~8회 회의 개최 • 동 주민총회 개최(7월)	5월(구성) 7월(총회)
	연구회	연구회 구성 7명	• 조례개정사항 7건 • 운영 개선사항 7건 • 건의사항 7건 • 2회 개최	8월
의견 수렴	주민 욕구조사	지역위원 및 구민위원 등 2000여명	• 주민욕구조사 실시 • 현황분석 용역의뢰	7~8월
	토론회	4개 분과 215명 참여	• 2012년 예산편성을 위한 주민참여예산 토론회 개최	10월
심의 조정	민관협의회		• 주민제안사업 최종예산반영 결정(2회 개최)	11월
예산 의결	정책결정 보고대회		• 분과별 민관협의회 사업결정보고 • 주민의견수렴 및 답변	11월
평가 환류	발표회		•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성과 발표회	12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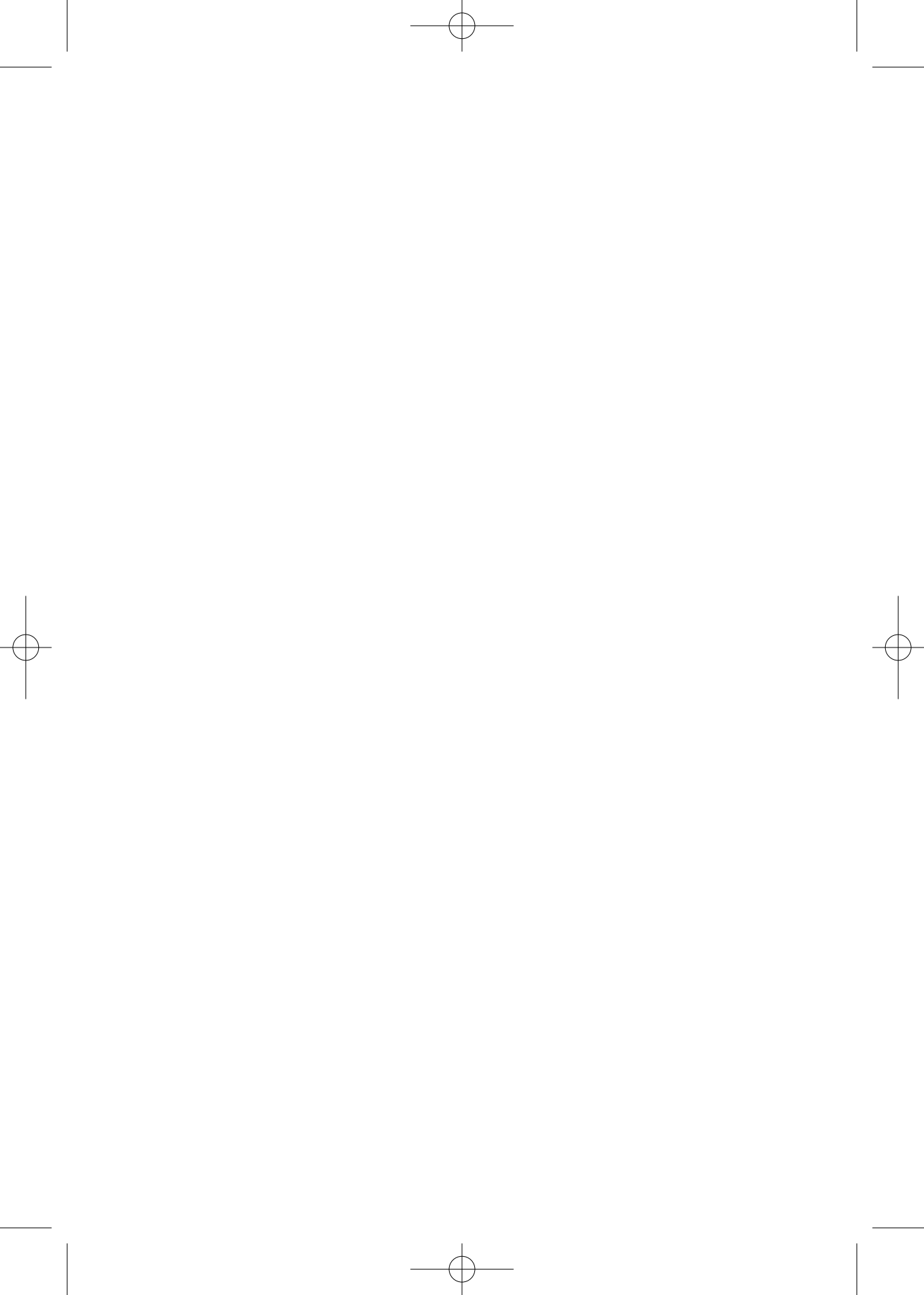
출처 : 〈인천광역시 연수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성과 활동보고서〉 내용을 재구성함

7) 광주광역시 북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체제

단계	회의명	구성원	주요내용	추진일정	비고
준비 단계	연구회 (구성)	연구회 위원 (10명)	• 운영조례 개정 검토 및 효율적인 운영방안 강구 등	3월	
	예산 학교	예산참여 시민위원회, 외부 전문교육기관	• 주민참여예산제 위원의 역할, 분과별 토론, 설문조사 • 예산 및 회계실무 교육 • 상반기 : 결산분야 • 하반기 : 예산실무	4~5월 (상반기) 7~8월 (하반기)	년 2회
의견 수렴	지역회의	주민자치위원회 일반주민 (26개동 195명)	• 예산편성 및 결산결과 주민의견 수렴 · 집약 등 • 지역회의 활성화 추진 1. 지역회의 개최 행사실비보상금 6723천원 배정 2. 시민위원회 및 지역회의 위원장단 간담회 추진(년 2회) 3. 회의불참 등 활동부진 의원 교체(연중)	7~10월	년 4회 이상
	사전 설명회	구 간부, 시 · 구의원, 시민위원회, 지역회의, 주민 등	• 10년도 결산결과 및 12년도 예산편성방향 토론, 질의응답 등	8~9월	
	분야별 토론회		• 부서별 결산결과, 예산요구 자료 토론 및 의견수렴 등	5~6월 (결산) 7~8월 (추경) 10월 (본예산)	년 3회
	총괄 토론회		• 분야별 토론회 결과 수렴, 예산 편성방향 토론, 질의응답 등		
	예산요구서 공개 및 주민의견 수렴		• 공개범위 : 예산안 전체, 중기 지방재정계획, 기금 등 • 의견수렴 : 세입은 자체수입, 세출은 자체사업 (의존 · 목적재원 제외) • 방법 : 구 홈페이지 공개, 공개자료 발간 등	8~11월	

단계	회의명	구성원	주요내용	추진일정	비고
심의 조정	민관 협의회	13명(공무원7, 시민위원회 6)	- 절차 : 의견접수→실무검토→ 총괄검토→예산참여민관 협의회 심의 - 지역회의 · 시민위원회 · 예산참여방 등 주민의견 심의 후 예산반영 여부 결정	10~11월	
예산 의결			- 주민의견 수렴 및 반영, 구청장 결재 - 구의회 제출(예산안 심의)	11월	
평가 환류	주민의견 평가 및 환류		- 주민의견 반영결과 공개 및 통보 - 주민의견 분석 및 환류 - 우수 의견 제출자 및 헌신적인 활동 위원 표창	12월	

출처: 광주광역시북구 홈페이지 '2009년도 주민참여예산달력' 및 '세부운영계획' 재구성함.



우리가 디자인하는 성북구 살림살이

성북구 주민참여예산 길라잡이

발 행 일 : 2012년 2월

발 행 인 :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

발행부서 : 성북구청 기획경영과(920-3315)

주 소 :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문로 168

홈페이지 : <http://www.seongbuk.go.kr>

연구기관 : (재)희망제작소

디 자 인 : 흥디자인

비매품

※ 본 출판물의 저작권은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에 있습니다.